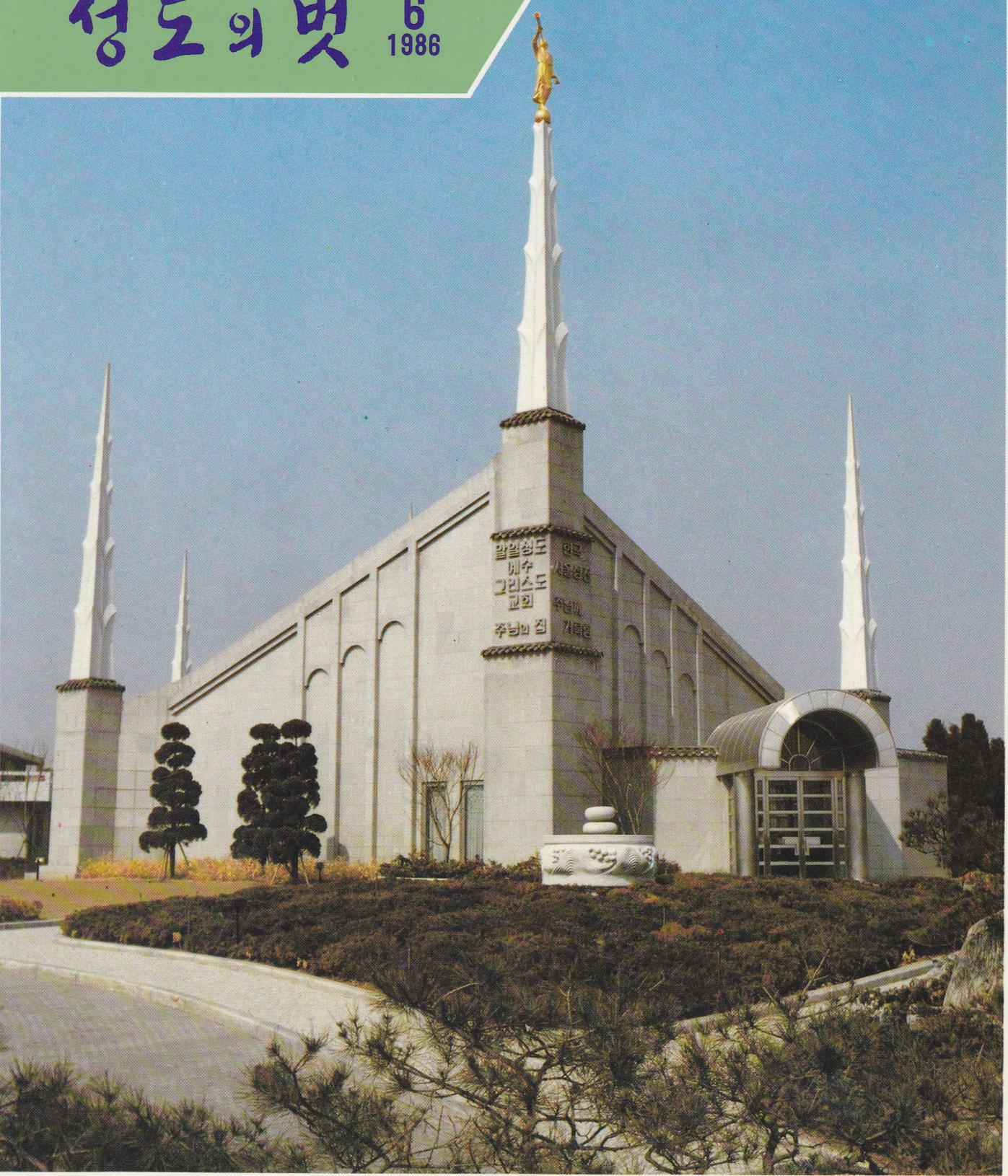


성도의 빛 6 1986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서울 성전 특집호

성도의 빛

1986년 6월호
한국 서울 성전 특집호

“예언자의 말씀이 실린
성도의 빛을 읽읍시다.”

International Magazine © 1986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판장단: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매리온 지 롬니,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팩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우스,
엠 러셀 벨라드

고문:

칼로스 이 애시, 랙스 디 피네가,
조지 피 리, 제임스 엠 패러모어

통권: 제244호, 제22권 제4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바-1135
발행일: 1986년 6월 1일(겨울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김 영 철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 738-6832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010041-31-514091

인쇄인: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460KO PRINTED IN
KOREA 6/86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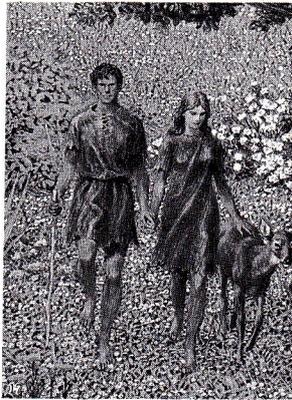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례

표지 설명-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서울 성전

- | | |
|----|---|
| 1 | 선교 사업에 대한 브리감 영 대관장의 말씀 |
| 2 | 경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 5 | 영성-느낌 이상의 것
메리 엘른 에드먼즈 |
| 8 | 사실과 같지 않은 결혼 생활의 신화
스티브 에프 길리랜드 |
| 11 | 더 훌륭한 나, 더 좋은 결혼 생활을: 성숙한 감정을 키움
빅터 엘 브라운 이세 |
| 16 | 대조의 시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켄트 피 잭슨 |
| 20 |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에이 에드워드 칼슨 |
| 22 | 트로이의 친구
실비아 에이치 그린허 |
| 24 | 어머니의 꿈
바이어러 에이치 저지 |
| 27 | 질의 응답 |
| 29 | 새 찬송가를 발표함 |
| 31 | 장막 너머의 세상: 말일의 두 계시
로버트 엘 밀레 |
| 36 | 베이보 키트의 선물
키티 드러이터 |
| 39 | 요셉 스미스 집안의 고고학적 사업
데일 엘 버지 |
| 42 | 심심풀이-원숭이 미로, 점 잇기, 반지 찾기
로버트 엘 페어롤, 콜린 페이 |
| 44 | 솔로몬의 지혜(열왕기상 3장, 4장: 31-32, 34) |
| 46 | 친구가 친구에게
키드 더블류 윌콕스 장로와 재닛 피터슨의 면담 중에서 |
| 48 | 할아버지의 성경
데브라 허긴스 베어드 |
| 51 | 한국 서울 성전 특집호 차례 |



예언자의 말씀

선교 사업에 대한 브리감 영 대관장의 말씀

○ 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만형이시며, 이 세상과 온 하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이 백성들에게 지상의 열국과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잠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준비를 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받는 어떠한 질문에 대답하거나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필요한 어떠한 권고의 말씀을 들려 주는 데 있어서 지혜의 부족을 느끼지 않을 것이며, 결코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그리고 쉬임없이 주님을 부르며, 세상에 주의를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을 충분히 보게 될 것이며, 그것은 언제나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신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진 성신의 은사와 권세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권세가 없이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영은 화려한 말보다 더욱 사람들을 빛과 깨달음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진리를, 오직 진리만을 세상에 전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진리로 성결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때, 하늘에서 여러분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영혼을 구원할 때,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구원하는 영혼의 수에 비례하여 커질 것입니다. *

브리감 영 설교집 중, 존 에이 윌소 편,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41년)

경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내가 경전을 읽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예언자의 말씀을 연모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경전을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 직접 또는 예언자를 통하여 주어진 — 주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훌륭한 책을 사랑합니다. 나는 경전 읽기를 사랑하며, 항상 반복해서 읽고자 노력합니다. 경전은 내가 하는 말씀에 권능의 음성을 부여해 주므로, 나는 그 말씀을 인용하기를 즐깁니다. 나는 뛰어난 경전 연구가로 자처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전을 읽는 것은 학자가 되려 함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 예언자의 말씀을 연모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경전의 전편에 수놓여진 자비와 용서를 읽으며 주님의 자비를 사랑합니다. 이사야서에 들어있는 권유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찌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이사야 1:18) 내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훌륭한 요소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는 누가 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모든 부모에게 자비에 대한 훌륭한 교훈이며, 빛나간 자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에 대하여 알려주는 더욱 위대한 교훈입니다.

이와 같은 용서와 자비의 정신은 물몬경 전편을 통해 계속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니파이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는 ...만인을 부르사 그의 선하심을 취하게 하시고,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면 검거나 회거나 속박된 자거나 자유인이거나, 남자나 여자가거나를 부인치 아니하시고, 이교도까지라도 기억하시리니,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모두 하나님 앞에는 동일함이라.”(니파이이서 26:33)

이와 같은 사랑과 용서의 개념은 현대 계시에서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보리,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 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 하느니라.”(교성 58:42) 우리가 용서받기만 하면, 우리가 저지른 죄과가 영원히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과 그의 예언자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사랑합니다.

용서와 자비의 주제에 대하여 경전 용어 색인에 들어있는 여러 참조 성구를 살펴 보는 것은 흥미롭고 가치있는 일입니다.

나는 주께서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백성에게 그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성약해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의 성약을 사랑합니다.

그 성약의 맥락은 물몬경 전편을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성약은 주께서 현재 교리와 성약이 된 책의 서문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해 주시므로써 이 경문의 시대에 재확인 되었습니다. 이 회복의 목적에 관하여 주님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원한 성약이 이루어지게 하며”(교성 1:22)

우리는 성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와 더불어 성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독생자의 이름을 받들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성약을 맺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의 아들과 딸이 되며, 그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며, 성신이 우리와 함께 거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성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우리 경전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위대하며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읽기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구속주의 속죄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예언자에 의하여 예언되었습니다. 그것은 물몬경의 예언자들에 의하여 약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들의 비결 데 없이 훌륭한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그대로 이루어



“속죄와

부활은 구약의
예언자에 의하여
예언되고,
신약에서
이루어졌으며,
물론경과 현대의
다른 경전에서
증거되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모든
부모님에게
자비에 대한
훌륭한 교훈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에 대하여
더욱 큰
교훈입니다.”

졌읍니다. 서한을 기록한 사람들도 그것을 증거했읍니다. 그것은 미대륙에서도 증거되어 물몬경에 기록되었읍니다. 그것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 뒤를 이은 분들을 통해 기록된 현대 계시에서도 거듭 확인되었읍니다.

나는 이러한 경전을 읽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이로우심과 위대하심에 놀라곤 합니다. 이러한 전서의 모든 저자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속주를 찬양합니다. 경전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하여, 그 위대하심과 경이로우심을 증거합니다. 경전은 모든 사람을 아버지와 아들에게 나아오게 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는 데서 평화와 힘을 찾도록 권유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빛과 진리로 가득 찬 이러한 위대한 책의 정수이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들어나게 되는 항구적인 것입니다.

나는 물몬경에 들어있는 정신과 말씀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나는 니파이의 말씀을 읽으면서 영혼의 충만함을 알게 됩니다. 오래 전에 그는 이렇게 썼읍니다. “나는 이 판에 나의 영으로 느끼는 일과...

기록하노니, 이는 경전과 더불어 나의 심령이 기꺼워하며 나의 가슴이 이를 깊게 사모함이라. 나의 후손들이 이를 배우게 하며, 또한 저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자 내가 이를 기억 하노라.” (니파이서서 4:15)

나는 현대 계시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여러 계명을 상고하라. 이는 참되고 신실하며 그 가운데 있는 예언과 약속은 모두 성취될 것임이리라.

“나 주가 이야기한 바는 참되도다.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니와 천지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

“보라, 주는 하나님이시요, 성신은 증언하시나니, 기록은 참되며 진리는 영원토록 불변하느니라.” (교성 1:37-39)

나는 이러한 위대한 책을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성신의 권세로 진리와 거룩함에 대한 증거를 얻게 됩니다.

나는 경전에 들어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주해서를 읽는 데는 과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는 우리가 경전으로 받아들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근원에서 나오는 순수한 물을 마시기를 더 좋아합니다. 경전을 읽으므로써, 우리는 우리가 읽는 책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달음과 축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영의 확신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경전의 교훈을 우리 생활에 적용시키기 위한 이해의 조화를 기하기 위해 모든 경전을 종합하여 연구하기 위해서 경전을 더욱 더 읽을 것을 권합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총관리 역원들은 우리에게 경전, 곧 성경, 물몬경, 교리와 성약 및 값진 진주를 읽고 연구할 것을 권고하십시오.
2.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정신은 고대와 현대의 경전을 통해 금실로 수놓여져 있음.
3. 경전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하여, 그리고 두 분의 위대하심과 사랑과 우리 각자를 위해 구세주께서 속죄하신 축복을 증거해 줍니다.
4. 경전은 우리 각자에게 평화와 힘을 줄 수 있음.

토론시 유의사항

1. 우리의 생활에서 경전을 연구하는 가치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이야기한다. 가족들에게 그들의 느낌을 말하게 한다.
2. 이 기사에는 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읽고 토론할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3. 방문하기 전에 가장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면 토론이 더 잘 될 것인가? 경전 연구에 관한 정원회 지도자나 감독의 메시지가 있는가?

영성

느낌 이상의 것

메리 엘른 에드먼즈



나는 예전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내가 영적이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기억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아마도 내가 공과 시간 동안 내내 조용히 있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셨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당시에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칭찬같이 들리지 않았으므로, 나는 집으로 가서 그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나는 영성이란 특히 주일학교 시간에 조용히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영적이기를 원했으며, 그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계속 영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이 더욱 내 성품의 일부가 될 수 있기를 추구했다. 어느 날 나는 “영성을 능가하는 재능은 없다.”라는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의 말씀을 읽었다. (육신을 입은 메시아, 솔트레이크 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82년, 234페이지) 영성은 재능이라는 이 개념을 나는 깊이 탐구해 보게

성도의 빛/1986년 6월호-한국 서울 성전 특집호

더욱 높은 영성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한 가지 특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온유함과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되었다. 영성을 얻는 것에 관해서는 달리 비법이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그것도 다른 재능을 키우듯이,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여 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선택을 하며, 어려운 때를 인내로 이겨내고, 다시 노력해 보고,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키울 수 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은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나는 편안한 곳에 앉아서 그에 관해 생각해 보고, 토론하거나 책 읽기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로서는 쉽지 않은

문제였다. 그러나 영성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권유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에 응답하고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기 보다는 실천하는 것이다.

영성은 약속을 지키는 것

행위가 어떻게 영성의 필수적인 부분인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진실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침례 성약을 맺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이다. (모사이아서 18:8-11 참조) 그러한 뜻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며 다른 성약을 맺는 특권을 갖는다. 또한 그러한 뜻에서 우리는 가장 조용하고, 은밀한 순간에 주님께 나아가 그의 도움을 구하고 그밖의 여러 가지 약속을 간구한다.

나의 부모님이 집에 계시지 않던 어느 날 밤, 나는 어린 여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는 몹시 울고 있었다. “언니, 나 좀 데리고 가줘.” 하고 그녀는 간청했다.

동생은 친구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가족도 모르게,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로 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영성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드린 것을 존중하는 것이다.

영성은 궁핍한 자와 함께 나누는 것

내게. 참되게 들린 다른 개념은 이전의 관리 감독단 제 2 보좌였던 제이 리차드 클라크 감독에게서 배운 것이다. “궁핍한 자를 보살피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영성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을 때 지닌 성품이었습니다.” (성도의 빛, 1978년 10월호, 128 페이지)

궁핍한 자란 누구인가? 우리가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매우 쉽게 가난한 자를 찾을 수 있다. 나는 아프리카, 아시아 및 기타 여러 지역에서 “가난한 자”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음식물도 없었다. 그들은 마실 물도 없어 갈증에 시달리고 있다. 병이 들어도 치료할 약이 없다.

어느 날 나는 몇몇 여인들이 강가에 쭈그리고 앉아 옷을 빨고 있는 것을 보고는, 내가 세탁기에 빨래를 집어 넣는 것을 머리 속에 그려 보았다. 나는 그러한 남는 시간에 과연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태국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서 어느 부부를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가까이에서 놀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 어린 딸이 쌀이 든 작은 비닐 봉지를 걷어챘다. 그 부모는 온 정성을 다 기울여 쌀을 한 알 한 알 다 모아 봉투에 남김없이 다 집어 넣었다. 나는 살아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음식을 낭비했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년에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내가 한 달에 쓰고 있었음을 깨달았던 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영성은 세속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이며, 이기심과도 반대되는 것이다. 세속적이 된다 함은 이 세상의 문제와 압력과 “일”에 파묻혀 더욱 중요한 것을 제쳐 놓는 것이다.

우리가 세속적이 될 때, 우리는 사실 세상의 불평등에 기여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영성은 의식적으로 방종한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충만하여 남는 것이” 있도록 창조하셨으니(교성 104:13-18 참조) 나에게서는 충분하고 남는 것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더욱 많은 것을 나누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좀더 높은 목표에 달하고, 가난한 자가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시온이라고 칭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여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음이더라.”(모세 7:18)

그러나 세상에는 너무나 여러 면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슬픔에 젖은 채 아무런 위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외로움을 느끼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또는 스스로 무용지물임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기회를 찾지 못하기도 한다. 누구든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 가난한 사람이다. 무엇이든 나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부자이다. 우리는 모두 짐을 털어 줄 수 있고, 소리없는 투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다.

영성은 감수성이 확대된 것

한번은 한 친구가 몹시 앓은 일이 있었다. 그녀가 집에 혼자 있는 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일어나고 싶지 않았으나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그제서야 그녀는 방문 교육 교사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들이 100퍼센트의 목표를 정했다는 것을 알았으며, 월말이 가까워 오는데 그들은 아직도 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실제로 방문 교사임을 안 그녀는 희망이 솟아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자기 아파트에서 밀린 일이 많이 있었다. 그들이 자신이 얼마나 앓고 있는지를 보면 자진해서

일을 거들어 주겠다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그녀를 보고 어떻게 지냈느냐고 묻자, 그녀는 희망이 부풀었다. “나는 몹시 아팠어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러면,” 하고 그들이 대답했다. “다시 편히 누워 계시도록 우리가 공과를 빨리 끝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공과를 그녀에게 전하고는 바로 가 버렸으며, 그들의 방문 책임에 대한 “명예”를 지켰다. 내 친구는 다시 자리에 누워 울었다. 그녀는 자신도 무감각했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놓쳤던가를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손을 내어미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선행을 베푸는 일을 얼마나 많이 계속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려한다는 근본 목표를 갖고, 방문 교육이나 가정 복음 교육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해 보았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100퍼센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든다.

영성은 지금 변하는 것

영성은 옳고 그른 것을 알고, 지체없이 옳은 것을 택하는 천부의 능력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것은 날마다 똑같은 변명을 늘어 놓으며 뒤로 밀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을 할 때 마음의 평정을 잃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결코 성신이 우리와 더불어 노력하는 일을 그치지 않도록 간구해야 한다. 우리 내부에 많은 날카로운 바늘이 달린 조그만 기계가 들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가 그릇된 일을 하면 그 기계는 돌기 시작해서 바늘이 고통을 주게 된다. 우리가 그릇된 행동이나 생각을 그친다면 그 기계는 돌기를 멈추어 기분이 나아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행한다면, 날카로운 바늘 끝이 닳아서 더 이상 그만한 고통을 느끼거나 알 수 없게 된다. 우리가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것을 고치기를

- 영성은 약속을 지키는 것
- 영성은 궁핍한 자와 함께 나누는 것
- 영성은 감수성이 확대된 것
- 영성은 지금 변하는 것
- 영성은 곧 품위
- 영성은 즐겁게 생활하는 것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말을 들은 조각가는 조각이 아닌 것들이 없어질 때까지 깎아내는 것 뿐이라고 대답했다. 영적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의 참된 존재를 감지하고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결국, 영성은 어떤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의 참 소망을 따를 수 있는 완전한 요소를 지닌 존재가 되는 것이다. 힐라멘의 아들, 니파이는 자신이 요구하는 것과 의로운 것 사이에 아무런 마찰이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축복하며, 언행과 신앙과 역사함에 있어 네게 권세를 주어, 정녕 네가 내 뜻에 거스르는 바를 행하지 아니할 것일때 무엇이건 네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리라.”(힐라멘서 10:5)

이러한 영성은 우리가 친절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불순하며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모든 것으로부터 의식적으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우리가 분노와 원망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항상 요구받거나, 재촉받거나, 또는 누가 상기시켜 주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영성은 즐겁게 생활하는 것

영성을 깊이 발전시킨 사람을 살펴 보면 나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았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 의미있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여, 명상과 사색을 즐기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즐겁고 낙관적이며 유쾌한 마음이다. 영적인 사람은 또한, 분명한 축복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흔히 눈에 띄지 않는 생의 기쁨에 대해서도 감사해 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거나 칭찬을 받을 때 진심으로 행복해 한다. 그들은 의무감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명예를 바라서가 아니라, 깨달음을 얻고 진보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 그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똑같은

관심을 갖는다.

더욱 높은 영성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기쁘게 생각하는 특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온유함과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봉사에 대하여 어떤 영예를 탐하지 않는다. 그들은 의존감이나 은혜를 베푼다는 느낌을 주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이 돕는 사람들을 높이 이끌어 준다. (교성 104:15-16)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여기 우리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세상 어느 곳이라도 우리를 보내소서. 따스한 밥을 들고 이웃 집에 가게 하옵소서. 피곤에 지쳐 애쓰는 이웃의 말을 귀담아 듣게 하소서. 우리가 외로운 친구들을 방문하게 하옵소서. 이웃 집에 가서 그들을 즐겁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영의 속삭임에 귀기울여 우리에게 임하는 크고 작은 속삭임에 모두 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기 전에 미리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도록 하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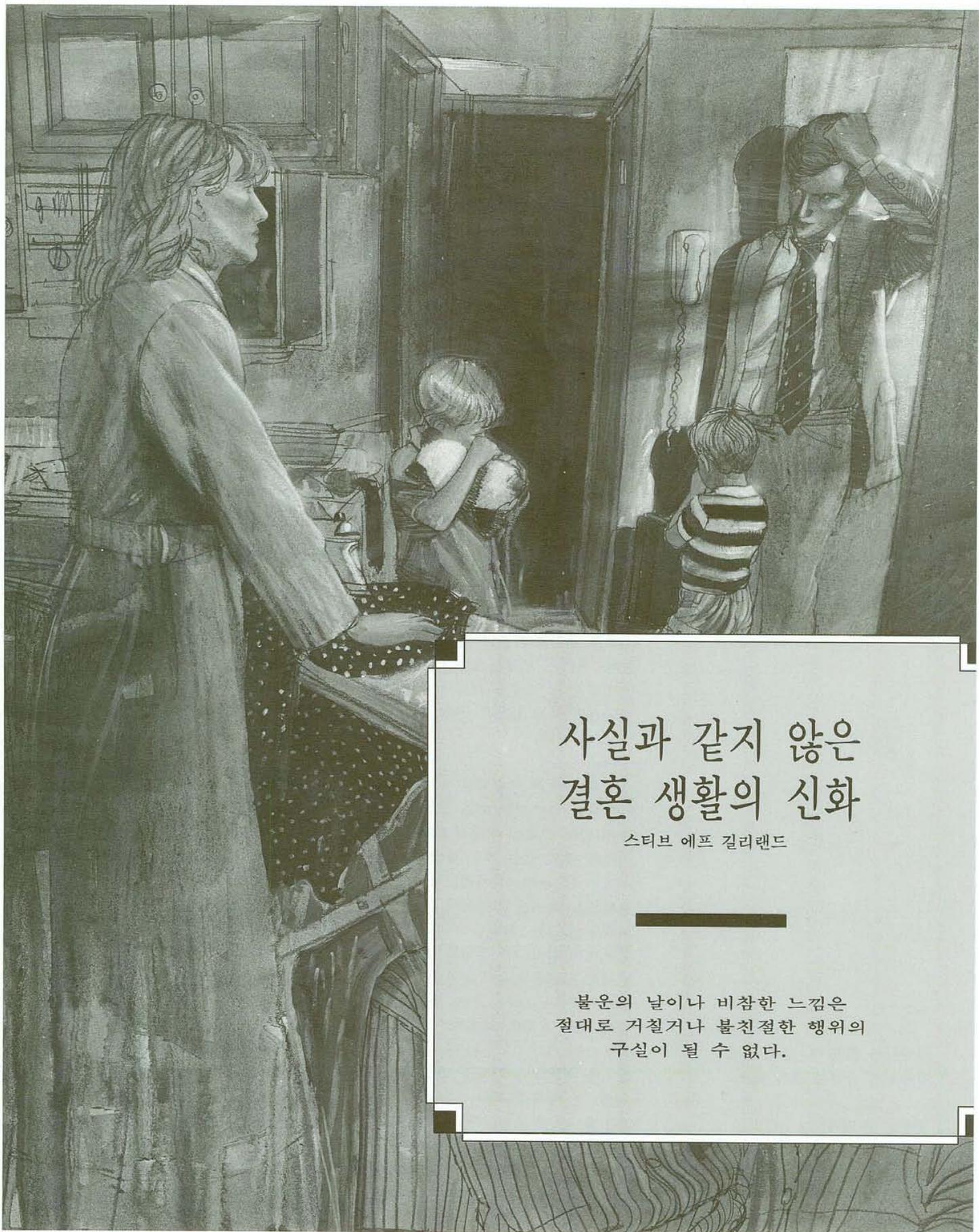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가도 그와 같이 모든 것이다. 보상도 또한 그와 같다. 만족감과 평화로운 느낌이 더욱 증가한다. 나는 어느 간증 모임에서 키가 큰 나이제리아인이 일어나 감정에 가득 차,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언제나 기억할 것이다. 나는 또한 이노스가 자신의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보상받았을 때 어떻게 느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좋아한다. “내 영육은 평안하였더라.”(이노스서 1:17)

우리는 항상 밝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웃음지을 수 있어야 하겠다. 기쁨이 우리 영혼에 넘쳐 흐를 때까지 우리 서로 방문하고 나누며 노래하고 봉사해야겠다. 그러함으로 우리는 이노스와 더불어 “기쁨으로 주를 대할 수 있을 것임에”(이노스 1:27)하나님을 만나 보기를 고대하게 될 것이다. *

미룬다는 것은 그 만큼 영성을 측정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영성은 곧 품위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이태리 미술가인 미켈란젤로에게 어떻게 해서 평범한 바위덩이를 그처럼 놀라운 조각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묻은 일이



사실과 같지 않은 결혼 생활의 신화

스티브 에프 길리랜드

불운의 날이나 비참한 느낌은
절대로 거칠거나 불친절한 행위의
구실이 될 수 없다.

내가 감독으로 있던 어느 일요일 오후에, 환멸에 찬 어느 여인이 나를 찾아 왔다. 그녀의 대가족은 최근에 우리 와드로 이사해 왔다. 그녀는 의롭게 생활하고 영적인 인도를 구하면, “유일한 영원한 동반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성전 결혼과 의로운 생활은 훌륭한 결혼 생활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가르침을 수도 없이 들으며 자랐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권고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 노력했지만 여러 해 동안은 행복하게 살았으나, 남편이 다른 여자 때문에 자기를 떠나 많은 자녀들을 남겨놓고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하고 그녀는 말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가 보지요?”

그녀의 고통과 혼란된 감정을 다 들어주고 난 뒤에, 나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키고, 문제는 하나님과 그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녀의 전 남편과 또한 사실과 다른 것을 그녀에게 믿도록 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확실히 연구 조사에 의하면, 성전에서 결혼한 사람들의 이혼율은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성전 결혼이 배우자를 함께 하게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결속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유일한 결혼 상대자를 약속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의미있는 결혼 생활을 이루는 방법은 가르쳐 준다. 계시는 우리가 앞으로 좋은 동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유의지를 지닌 사람이므로 그러한 가능성에 반대되는 것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주제님을 행동을 함으로써 또는 그 관계를 약화시키는 행동을 기본대기는 대로 함으로써 자유롭게 성약을 깨뜨릴 수 있다.

결혼 생활에 성공하는 유일한 길은 남편과 아내가 그 길을 이루기 위해 함께 헌신적으로 일하는 데

달려 있다. 뒷전에 몰려 앉아 주님께서 결혼 생활을 성공시켜 주시기만 바라고 있는 사람은 필경 실망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자신은 열심히 일하는 데 배우자가 전혀 협력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계속해서 의롭게 생활한다면 어느 것도 영원한 세상에서 그들로부터 거두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여인이 느끼는 환멸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대하여 품고 있는 많은 환멸의 하나이다.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내 배우자는 변할 것이다.”

인간은 변화한다. 그러나, 배우자의 인품은 미래에도 바로 지금 현재의 그와 같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확한 예측이다. 상대방의 인품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거나 또는 상대방을 개종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그와 결혼하는 사람은 종종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

“앞으로는 사정이 좀 나아질 것이다.”

견디어 내야 할 일시적인 위기가 닥치게 되면, 긴장이 고조되며, 인내심과 희생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가 일시적인 위기로 보는 것이 실제로는 그가 선택한 생활 양식의 일부인 경우가 많이 있다. 바쁜 일이 지날 때까지 아내와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를 미루는 사람은 결코 그런 시간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가족 관계를 풍요롭게 하기를 미룬다는 것은 그들을 잃게 됨을 뜻할 수도 있다. 나는 유명인으로서의 출세와 심지어는 교회에서 일할 기회까지도 희생해가며 지속적이며, 뜻깊은 가족 관계를 지킨 많은 형제 자매를 알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결정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아내(또는 남편)가 변화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잘 될텐데.”

이러한 발상의 밑에 흐르고 있는 것은 “나는 확실히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구세주께서는 우리는 우리 눈 속에서 들보를 뺀 연후에야 다른 사람의 눈에 든 티를 빼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7:3-5 참조) 들보 곧, 우리의 약점을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그것을 우리 생활에서 찾아내어 제거한다는 것은 배우자의 결점을 들추어내는 것보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강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가 진실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여인은 남편의 위생 습관 때문에 감정이 몹시 상했다. 그녀가 결국 그 말을 했을 때, 남편이 크게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것을 보고는 몹시 놀랐다. 그의 아내가 왜 그렇게 냉담하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었으며, 그저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때문이라고 해석했었던 것이다. 사랑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개인적인 차이 또는 오해의 여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은 거부감이나 소외감을 갖는 두려움을 갖지 않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기쁨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내 방법이 옳다.”

우리는 자신의 견해가 가장 옳바르며, 일단 배우자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사실 대부분의 충돌은 자신의 견해만을 내세워 각자의 입장이 옳다고 하는 데 있다.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남편이나 아내 곧, 상대방이 그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배우자의 견해를 이해하라는 것이다. 내 아내의 견해를 아는 것은 내가 나의 견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나누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늘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볼 수는 없으나, 듣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상 대부분의 인간은 “옳은” 사람보다는 관심을 갖고 돌보아 주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영을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크게 불화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정직하게 서로 상호 작용을 할 때마다 의견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혼 생활에서 화합의 비결은 충돌을 없애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보다 더 큰 어떤 것, 곧,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 가족 및 구세주에게 충실한 것이다. 나의 아내와 나는 때때로 크게 견해 차이를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심한 논쟁을 벌이고 난 후에도 서로의 관계에 더욱 충실히 대한다. 이와 같이, 충실히 대함으로써 우리의 의견 차이는 우리를 더욱 가깝게 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마다 언제나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통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구세주께서는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니파이사서 11:29)라고 가르치셨다. 다투기를 일삼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고 배우자의 잘못을 들추어내기에 급급하여 상대방의 생각이나 느낌을 살필 여지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예민하게 살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야고보서 1:19)한다면, 의견의 불일치가 있더라도 큰 분쟁으로 번지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의 배우자에게 항상 따스한 애정을 느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구애 기간에 느끼는

황홀한 애정을 진정한 사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서 갈등을 겪게 되면 실수를 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게 된다. 대부분의 행복한 기혼 부부는 서로에 대한 어려움을 풀어 나가야 했으며, 서로 간에 특히 좋지 않은 느낌을 가졌던 짧은 기간을 이겨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느낌을 느낄 때라도 그 관계를 여전히 충실하게 지켰다. 그들의 부정적인 느낌을 염려하기 보다는 사랑의 행위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로 인해 결국은 그들도 인식하지 못했던 깊은 사랑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느낌이 아무리 큰 상처를 준다 해도 항상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

정직이나 신뢰는 결혼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나, 감정적인 증오감에서 우러나온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해가 될 수 있다. 그러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남편이 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또는 “아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 주기 위해서” 라면, 그 관계는 끊어져 버리고 말 수도 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버리고 나면 기분은 좀 나아질 수도 있으나,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감정이 악화될 수도 있다.

반면에, 배우자를 돌보고 그 관계를 이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배우자의 느낌이나 반응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또한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 진정으로 상대를 염려하는 배우자는 자기 생각을 말할 뿐만 아니라, 질문하고 들어 준다.

시기를 잡는 것도 감정을 전하는 데 중요한 것이다. 내 아내가 하루종일 일이 잘 되지 않아 내가 귀가할 때쯤 되어서는 지칠대로 지치고 화가 나 있다면, 내내는 결국 나의 비판을 듣게 될 것이다.

아내가 치우는 것을 내가 거두고 아이들을 잠자리로 돌려 보내고 난 뒤, 밤늦게 내내는 내 말에 반응을 표현할 만큼 기분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은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지금 돌이켜 보면, 나도 그 당시에는 크게 생각되었던 사소한 일에 대하여 나의 아내에게 말해야겠다는 유혹을 느낀 적이 많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입술을 깨물고 지나쳐 버렸던 일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또한 고통스럽기는 하나 내심으로 좋지 않은 심각한 감정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분명하고도 부드럽게 말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한다. 사소하다는 것과 심각한 것의 차이를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불안과 초조가 지속되어 두 사람의 관계에 썩기를 막는 것으로 생각되면 그것은 표현되어야 한다.

“내가 비참함을 느낀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남편이 좋지 못한 기분으로 직장에서 돌아와, 내내는 혼자서 아이들을 재우려 애쓰고 있는 데 폭신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내에게 편잔을 퍼붓고는, 아내가 애정을 표시해 주기를 기대했다. 아내가 남편에게 좌절감을 표현하자, 그는 “나도 직장에서 기분이 좋지 못했어.”라고 변명했다.

불운의 날이나 비참한 느낌은 절대로 거칠거나 불친절한 행위의 구실이 될 수 없다. 우리 구세주를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 그의 생애는 “불운의 날”로 일관되었다.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을 트집잡으려 했다.

결혼 생활의 신화를 물리치고 영원히 계속될 사랑의 관계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부부가 결혼에 관한 인식을 복음의 진리에 비추어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

더 훌륭한 나, 더 좋은 결혼 생활을 : 성숙한 감정을 키움

빅터 엘 브라운 이세

구세주의 생애는
감정적인 성숙의
가장 참되고 온전한 본보기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연구하고 본받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감정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다.

결혼 생활은*영원히 계속되도록
계획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임을 받아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결혼 생활은
있을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독특한 좌절감이나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당연히 우리는 결혼 생활이
성공적이 되기를 바라므로, 배우자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즉,
부부간의 의사
소통, 물질적인
만족, 자녀 양육 방법, 가족 활동에
대한 여러 저서나 이론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러나 나는 많은
부부들을 상대로 일해 오면서
배우자 사이의 상호 작용이 참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기에 앞서, 먼저
개인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관찰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인적인 준비를
통해 소위 감정의 성숙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감정의 성숙이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거나 행동하든지
일관성있는 감정적인 힘과 자제와
온전함을 개인적으로 성취하는
것이다. 그것은 유쾌할 때나 불쾌할
때나 감정을 통제하고, 또한
정직하게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가 감정의 성숙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끈기있고, 변함없고, 항상
활기에 넘치게 된다. 우리의 행위는

배우자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감정적으로
유쾌하고 좀더 즐겁게 생활할 수
있으며, 의사 소통이 보다 용이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그러므로써 다른 사람과의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준비하게
된다.

나는 사람들과 일하면서, 이러한
감정적인 성숙을 증진시키는 다섯
가지 원리를 발견했다.

다음에 예로 든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과 특정한 환경은 변경시켰음)
그들의 배우자와는 별도로 스스로의
성숙을 키웠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좀더 그리스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배웠다. 나는
그들이 이러한 개인적인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을 보면서, 훌륭한
결혼 생활은 더욱 강하게 되고,
관계가 약했던 결혼 생활은
강화되며, 실패한 결혼 생활까지
구원되는 것을 보았다.

원리 : 우리는 자존심을 키워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안정감과
자신감을 느끼는 것은 결혼
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냉혹하게
평가하거나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스스로 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는



엘라는
자신을
비난하는
태도는 자신의
간증과 결혼
생활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의 표준에 의하여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가 많다.

예를 들면, 복음의 원리를 지키는 것을 근거로 한 가치관, 즉 친절이나 온정 및 성실성 등은 참가하기 보다는 승리에, 절약이 아니라 부를, 신의가 아니라 명예를, 봉사하기 보다는 지위를 더 높이 찬양하는 문화권에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다.

우리는 누구나 독특한 품성과 재능과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의 가치는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인식하도록 도와줄 수 있으나, 그들이 우리에게 자존심을 줄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 이것을 키워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인식해야 하며, 계속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고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

엘라라는 한 여인이 생각나는 데, 그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와 친구들에게서 심한 비난을 받으며 성장했다. 후에 성인이 되어 상호부조회 공과를 하는 중이나, 하고 나면, 자기 자신을 다른 자매들과 비교해 보면서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그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지적이고, 조직적이고, 복음안에서 더 강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너무나 우울해 하므로 상호부조회가 끝난 뒤면 그녀를 피하게 되었다.

드디어 엘라는 자신을 비난하는 태도는 자신의 간증과 결혼 생활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변화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열거해 보았다. 처음에 그녀는 자신의 장점을 받아들이는데 힘들었으며, 자신의 약점은 모두 다 영구적이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으로 쉽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목록을 사용하여 그녀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약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키워나가기로

결심했다.

자기 평가를 통하여 그녀는 자신의 약점의 하나는 자신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너무 빨리 말해 버리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 자신의 말로 해를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한 그녀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을 연습했다.

결국 그녀는 생각없이 말하여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는 일을 그치게 되자, 새롭게 자기 성취감을 얻게 되었다. 그녀는 또한 가사 솜씨를 키우게 되었으며, 그것은 그녀에게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한 어떤 것에 대한 분명한 성취감을 느끼게 해 주었다.

봉사한다는 것은 자존심을 키우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완전하고자 하는 강박 관념은 감정적인 무능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또한 이성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면에서 재능을 닦아나갈 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좋은 느낌을 갖게 된다.

엘라는 자신의 몇 가지 약점을 극복하고, 몇몇 장점을 잘고 닦은 후에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임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칭찬받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가 한 일은 내부적이고 개인적인 일이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고자 노력한 것이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진정한 자긍심이였다.

이와 같이 좋은 의미에서의 자존심을 키우게 되자, 결혼 생활도 개선되었다. 그녀의 남편도 긴장을 풀게 되고 아내의 밝은 표정과 태도를 보고 즐거워 하였다. 그러자 남편도 역시 자신을 살펴 보고 개선하여 유익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원리 :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의 관계로부터 받은 오래된 상처, 감정적인 상처를 갖고 있다. 감정적인 상처는 다양한 근원으로부터 받게 된다.

어린 시절의 불안정하고 난폭한 집안 분위기라든가, 만족스럽지 못한 친구 관계, 잦은 이사로 감정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일 또는 우리의 목표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일 등을 들 수 있다.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를 받게 된다.

우리는 배우자에게 우리가 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것은 비논리적이며 실제적인 일이 아니다. 블레어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별스럽게 지배적이고 불친절한 사람이었다. 독자였던 블레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모친의 지배력을 원망했다. 그는 아내의 사소한 의견 표시나 주장에도 맹렬하게 맞섰다. 그는 모든 재정 문제와 자녀 교육이나 심지어는 가사, 오락, 기도 및 교회 참석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마음대로 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해왔다. 그의 아내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만족시키고 달래 줄 말이나 행동을 하고자 갖은 애를 다 썼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자신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느낀 그녀는 절망하였다.

블레어의 상처는 자신이 모든 여성을 자기 모친에게 하듯이 대하고 있었음을 알고 나서 겨우 치유되기 시작했다. 자기 모친에 대하여 더 잘 알아 보기 위해서 그는 계보 사업을 하고 친척들을 만나 보았다. 테이프에 수록된 역사를 연민의 정을 가지고 들으면서 그는 자기 모친을 부모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보게 되었다.

그는 모친이 인식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서 성공해 보려고 노력했던 점을 알게 되었다. 결국 블레어는 자기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상처를



루벤은 대화의 기법에 의지하기 보다는, 아내에게 신경을 써 줌으로써 아내가 말하기 보다는 존경받기를 더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치유하기 위한 책임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결혼 생활에 해를 끼치는 여러 가지 압박감을 덜 수 있었다.

원리 : 우리는 복잡한 기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존경심에서 예의로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단지 올바른 반응을 얻기 위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말만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의사 전달은 꾸밈없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지 못하고 방어적이고, 고의적인 것이 되기 쉽다. 유능한 점전자나 상담자는 참된 의사 소통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진정한 존경심과 소망을 가지고 들으려 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한 진실성에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은 루벤과 같은 태도를 취하기 쉽다.

그는 자신이 판매 교육을 받는 중에 익힌 의사 전달의 기법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아내의 불행한 어린 시절을 알고 나면서부터 그는 그녀가 우울할

때마다 그녀에게 말을 하게 하려고 애썼다. 불행하게도, 루벤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라기 보다는 기계적으로 조사하기라도 하듯 캐묻는 기술적인 방법에 더욱 의존했으므로, 그는 아내에게 힘이 되어 주기 보다는 오히려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긴장이 고조되면 될수록, 그는 더욱 압박을 가하며 의사 전달의 기법을 적용하려 들었으므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의사 전달은 찾아 보기 힘들게 되었다.

해결책은 거의 전적으로 루벤에게 달려 있었다. 그는 아내를 보살피면서 아내의 말하기 보다는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을 내 말기면서 말없는 의사 표시를 할 줄을 알게 되었다. 그가 질문을 해도 아내가 곧 대답하지 않을 때에는, 아내에게 대답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무런 문제점도 말하지 않고 단순히 예절바르고 신중한 행동을 하며 “해주겠소.” 라든가 “고맙소.”라는 등의

말만 하는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가 아내의 입을 열게 하려 하기 보다는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기에 힘쓰자, 아내는 점차 신뢰하는 태도로 반응을 보이고, 그들의 의사 소통은 점차 원활해지게 되었다.

원리 : 우리는 준비하고 반복해서 실행하고 구세주의 모범에 따름으로써 한 단계씩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

구세주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 그러나 온전함은 이루기가 힘든 것이며, 흔히 일생을, 혹은 그보다 더 긴 세월이 걸리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노력하기를 포기하고 퇴폐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도 한다. 혹자는 그들이 재능을 부여받은 면에서나 직업에 몰두함으로써, 지적인 성장, 사회 활동, 또는 물질적인 재물의 획득이라는 한 면에서 온전함을 추구하기도 한다. 한편 스스로는 도저히 완전을 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의무적으로 또한 비참한 마음으로 계속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녀가 하면, 학자연하는 그들의 조상, 곧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의 문자만 강조하면서 냉혹한 견해를 지닌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해 지라는 구세주의 권유의 말씀에 실망을 느껴서는 안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다. 그의 아들은 이 지상에 내려와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가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 우리에게서 기대되는 온전성은 평생 동안 인내하고, 발전하고, 율법을 지키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 아들의 구속의 자비에 의존하는 것이다.

로리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좀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노력함으로써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질서정연한 것에 대한 욕구가 강한데 비해 남편은 그렇지 못했다. 그녀는 남편이 조심성없고 정돈을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차례 눈물을 흘려가며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로리는 자신의 감정 상태나 행동은 구세주께서 보이신 본보기와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러한 경우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남편이 다음에 다시 그러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하리라는 대책도 생각해 보았다.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를 지니게 되면 결점을 찾은 여지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불쾌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남편의 단정치 못한 성격에 그녀가 신경을 쓰지 않게 되기까지는 여러 주일 걸렸으나, 그녀는 매일같이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남편이 하루종일 받은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스스로 계획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서 질서를 잡으려는 그녀의 욕구가 감소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문제를 유쾌한 방향으로 처리해 나갈 줄 알게 되자, 자연스럽고 그런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그녀가 원하는 만큼, 남편의 정돈 하는 태도는 크게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 하면 자신의 성질을 제어하는 능력은 서랍속을 깨끗하게 정리해 두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만족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녀는 감정의 성숙을 이룩하기 위해서 긴 길을 우회해 왔던 것이다.

원리 : 하나님의 성약은 감정적인 성숙을 이룩하기 위한 지침과 보상을 제시해 준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약은 우리와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복음 질문에 대한 대답, 조셉 필딩 스미스 이세 편, 5권,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57-66년, 4 : 155-160)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율법을 순종함에 따른 계시된 축복을 주신다. 그는 조건과 성약을 제정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충족시킬 때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는 그 성약을 지킬 수도 있고 깨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조건을 정하거나 우리의 창조주에게 그것을 변경해 주시도록 제언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으로 가득하신 아버지의 율법을 변경할 수 있기라도 하듯이 행동한다.

스티븐은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변경시키기를 제언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감독에게 그와 그의 아내는 행복하지 않으니 그들이 이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의해 왔다. 교회의 규율을 범하는 죄를

스티븐의 감독은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로 그의 아내를 대하라고 제언했다.



저지르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에 스티븐에게 그가 성전에서 영원한 결혼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남편이 될 것을 성약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스티븐은 감독의 그러한 반응에 내심 마음이 좋지 않았다. 편견적인 도덕 관념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몰두해 있던 스티븐은 감독에게 자기 아내의 결점과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는가를 말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감독은 다시 이혼 문제를 생각해 보기에 앞서 다만 다음 일 년간 그의 성약을 실천할 것을 제언했다.

감독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스티븐에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성약을 상기시켜 주었다. 영의 속삭임을 받아 그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명하고 친절하게 말해 주었다. 다행히 스티븐은 자신이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성약을 주님과 맺었음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는 성숙했다.

열두 달 동안 스티븐은 아내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 줄 만큼 매혹적인가를 염려하기 보다는 자신의 신권을 존중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그 해가 다 되었을 때 스티븐은 감독에게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내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스티븐은 개인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결혼 관계에 축복을 가져오게 되었다. 회개하고 스스로를 엄격하게 자제하기란 그다지 편하거나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인 의로움을 키워 나가면서 그가 추구한 소위 “행복”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온전하며 기본 좋은 치유 능력을 지닌 평온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참을성 많은 아내는 자신을 비난하기 보다는 도와주는 것을 알게 된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하게 되었다.

기본 원리 : 구세주를 따르라.

이러한 사례는 대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말해주고 있다. 모든 결혼 생활이 다 붕괴 위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내 또는



그녀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약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키워나가기로 결심했다.

남편을 바꿔 보려고 애쓰기 전에 각자가 복음 생활에 중점을 둔다면 많은 심각한 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할 수 있다.

이상의 다섯 가지 원리에 모든 문제가 다 들어 있는 것도 아니며, 감정적인 성숙의 이상에 협력이 결혼 생활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훌륭하고 보람있는 결혼 생활은 효율적인 협력, 의사 소통 및 배우자 관계의 토대로써 위의 다섯 가지 원리의 일부 또는 전부와 결부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심각한 오해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다섯 가지 원리가 모두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의 토대가 되는 한 가지 사항이 있다. 구세주의 생애는 감정적인 성숙의 참되고 온전한 본보기가 된다. 내가 보아 온 말일성도로 감정적인 온전함을 이룬 사람은 반드시라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연구하고 그것을 본받으려 노력했다. 그는 이 지상에 살았으며, 인간의 감정을 경험했다. 그는 친구와 친지와 더불어 즐거워했다. 그는 광야에서 유혹을 받기도 했다. 의분에 가득 차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 내기도 하였다. 그는 어린 아이들의 순수함을 보고는 기쁨으로, 친구의 죽음에는 슬픔으로 눈물 짓기도 하였다. 가르치고 병고침에 피로를 느끼면 조용히 물러나 쉬기도 하였다. 이 생을 끝맺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며 함께 하심을 간구했다. 사악한 자의 욕을 들어가면서도, 그는 여전히 그를 죽인 병정들을 용서해 주었다.

그리스도는 지상의 여러 경험에서 아무런 영적인 위안을 받지 못한 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 : 46)하고 외치셨을 때에도 변함없이 성숙한 태도를 보여 주셨다.

그의 온전하심으로 우리는 실망을 느껴서는 안된다. 오히려, 우리는 주께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알고 제심에 큰 힘을 받게 되어야 한다. 주님의 율법에 순종함은 우리가 온전한 감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이 함으로써 더욱 온전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더 훌륭한 나, 더 좋은 결혼 생활”을 읽은 다음에, 다음 문제 또는 개념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을 키우는 일을 할 수 있는가?
- 여러분이 받은 감정의 상처를 몇 가지 들어 본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그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가?
- 여러분이 배우자와의 의사 전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그러한 것은 무엇인가?
- 배우자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특정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가?

대조의 시대 :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켄트 피 잭슨

세 계 역사에서 이와 같은 시대는 달리 찾아 볼 수 없다. 그것은 놀라운 시대—경이의 시대요, 힘의 시대였다. 그러나 무엇 보다는 그 시대는 대조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서로 대립하는 하나님과 사탄의 왕국이 분명히 부각되어 양대 세력이 크게 눈에 띄었다.

현대의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아담의 타락과 아브라함이 성역을 베푸는 그 사이의 시기는 지구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시대이다. 비록 그 시대는 이천년 이상 계속되었고,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으나, 우리 경전은 그 시대에 관하여 다른 어느 시대보다 훨씬 더 적은 내용을 들려 주고 있다. 성경은 이 시대에 다만 8장을 할애하고 있을 뿐이며(현대 번역본에 약 10페이지에 달함) 그 중에 3장은 누가 누구를 “낳았고”하는 계보를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말일성도는 추가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 값진 진주의 모세서에서 볼 수 있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부분에는 에녹의 세대에 관한 의미 깊은 새로운 이해력을 더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더 알기를 원하는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다. 다른 경전의 근원은 야벳과 그의 가족의 기록이 간단하게 들어 있는 물몬경을 들 수 있는 데, 그 내용은 이더서 처음 6장에 포함되어 있다. 교리와 성약도 이 시대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이해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의 내용은 충분하지는 않으나,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이처럼 중요한 시대를 이루는 인물과 사건을 개관해 볼 수 있다. 다음 연대기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경전을 근거로 하여 발췌해 본 것이다.

1. 사탄의 과업의 등장과 확산(창세기 4장; 모세서 5장)
2. 신권의 계통(창세기 5장; 모세서 6장; 교성 84 : 14-17; 107 : 40-55)
3. 에녹과 그의 시온 (모세서 6-7)
4. 홍수 이전의 인간의 사악함 (창세기 6; 모세서 8)
5. 홍수 (창세기 7-8)
6. 노아와 그의 아들들 (창세기 9-10)
7. 바벨탑 (창세기 11 : 1-9)
8. 야벳인(이더서 1-6)
9. 아브라함의 계보 (창세기 11 : 10-28)

창세기, 모세서, 이더서의 경전 기록에서 보면, 이 시대의 특성은 대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그들의 사업 그리고 사탄과 그의 무리와 그들의 사업 사이에 존재하는 대조이다.

인간들 사이에서의 사탄의 과업

주님께서 그의 왕국을 세우신 어떠한 경륜의 시대에나, 악마의 왕국은 함께 존재해 왔다. 사탄의 모조 왕국은 슬픔과 고난을 이루어 내는 데 성공했으며, 반면에 주님의 왕국은 충실한 성도들을 행복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했다. 그것은 인간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그러했다.

필경 아담과 이브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난 뒤 오래 되지 않아, 사탄은 인간들에게 죄악과 불순종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경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그들의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친 후에, 사탄이 그들에게 와서 “명하여 가로되, 이 말을 믿지 말라 하니 저들이 믿지 않게 되었으며, 도리어 사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 그 때로부터 인간은 육체와 육욕과 악마를 좇는 자가 되었더라.”(모세서 5 : 13)고 기록되어 있다. 사탄의 명에 움직인 가인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슬프게도, 경전은 우리에게 이것이 역사에서 절연된 사건은 아니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같이 하여 암흑의 일이 모든 인간의 아들들 가운데 알려지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혹심한 저주로 땅을 저주하시고 악한 자와 그가 지으신 모든 인간의 자녀에게 노하시니,” (모세서 5 : 55-56)

악이 많은 사람의 생활에 확대되어, 에녹의 시대에 더욱 그 세력이 증가되었으며, 에녹은 사탄과 그의 사업을 시현으로 보았다.

“또 그가 보니, 사탄이 있더니 손에 큰 사슬을 쥐었는데 그 사슬이 온 지면을 암흑으로 덮었고 바라 보고 웃으며…따르는 사자들도 기뻐하더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머지 백성을 보시며 우시니…

“주께서 에녹에게 이르시되, 네 형제들을 보라. 저들은 내 손의



아담의 타락과
아브라함이 성역을 배론
그 사이의 시기는
지상의 역사에서
가장 신비로운 시대이다.

숨씨니 내가 저들을 만드는 날에
저들에게 지식을 주었고 에덴
동산에서 내가 저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도다.

“또 네 형제에게 내가 이르며
또한 서로 사랑하고 나 저들의
하나님을 택하라는 계명을 주었으며,
저들에게는 아무런 애정도 없어
자신의 혈족을 미워하는도다.”
(모세서 7:26, 28, 32-33)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해, 사탄이
기뻐하며 웃음지었으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슬프게 눈물지으며 바라보셨다.

노아 시대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회개하라 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더욱 사악해져,
그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행이
세상에 관영하며 모든 사람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허황되며
끊임없이 악하기만 함을
보셨더라.”(모세서 8:22)

이 백성들은 너무나도 사악하여
더 이상 그들의 존재로 이 지상을
더럽히게 하거나 무죄한 영들을
퇴폐한 환경으로 데려올 수 없게
하셨다. 주님은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로되, 충실한
소수만이 살아 남아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 사업을 다시 행하시고,
인간 사회에서 그의 성약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홍수는 보복의 행위가 아니라
자비의 행위였다. 노아의 세대는
너무나도 사악하여 깨끗이
정화시키는 커다란 행위가 있어야만,

다음 세대가 더 높은 원리에 의하여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시에도 반드시 그러하겠지만, 회개에 의해서든 파멸에 의해서든 악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노아 시대와 같이 그렇게 사악하게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의 세대도, 여전히 사악한 행위를 고수하였다. 노아의 후손들도 선하기 보다는 악한 행위를 한 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교만하게도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할 도시와 탑을 쌓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자만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창세기 11:4)라고 말했다. 이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홍수에 의한 멸망이 아니라,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의 사회를 멸망시키는 것이었다. 야벳인들이 주님의 인도로 새로운 땅에 인도된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이더서 1:33-43 참조)

인간들 사이의 시온

경전에서 보면 그 당시의 많은 고대 사람들이 극도로 사악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으나, 동시에 지극히 의로운 사람들도 있었음을 또한 말해 주고 있다. 인간의 속성이 가장 저하되었던 같은 세대에서 인류 역사에서 다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배출되었던 것이다. 지상의 부패로부터 도망하여 보다 높은 곳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것으로 판명되어 지상에서 들리워 간 에녹과 멜기세덱의 두 도시도 바로 아담과 아브라함의

시대 사이에 있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노아의 아들로서 끝나는 신권과 복음의 성약이 계속되는 계보의 혈통을 열거하고 있다. 계보 내용 이외의 것은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우리는 큰 일들은 우리가 제사장이라 부른 사람들의 생활에서 제시되었음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으나, 주님은 그들의 역사를 우리에게서 취하여 가시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셨던 것이다. 위대한 제사장 에녹에 관해서 성경은 다만 암시만을 해 줄 뿐이다.

1830년 여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지시하에, 흥정역 성경의 영감역을 착수했다. 그 결과 우리가 영감역 또는 요셉 스미스 번역본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정도의 계시를 다시 받게 되어, 성경의 과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더하게 되었다. 예언자께서 성경 번역본에서 영감을 받아 바꾸어 놓은 많은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의 타락과 아브라함의 성역 사이의 시기를 다루는 전적으로 새로운 자료를 여러 페이지 더 추가시킨 것이었다. 이 내용은 값진 진주의 초판에 포함되었으며(1851년) 1880년에 경전으로 승인되었다. 그것은 현재 모세서 5-8장에 들어 있다.

모세서는 그 당시에 사악함이 만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업은 계속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같이 복음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서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천사가 선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몸소 하시기도 하고

성신의 은사로써 선포하기도 하여 태초부터 전파되기 시작하였느니라.” (모세서 5:58) 모세서 6장과 8장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같은 내용의 이야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추가 내용으로 제사장의 계보를 보충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편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기여해 주고 있는 것은 위대한 예언자 에녹과 그의 백성들에 관하여 비교적 큰 분량의 자료를 제시해 주는 점이다. 창세기는 에녹에 관해 여섯 개의 짧은 구절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에, 요셉 스미스 영감역은 115구절에서 에녹의 생애와 사명과 계시를 논하고 있다. (모세서 6:21, 25; 8:2 참조)

에녹의 생애와 사명에 대한 기록은 그의 동시대의 대부분의 기록과는 현저하게 대조되고 있다. 에녹과 그의 백성들은 시온을 세웠다. 그들은 주님의 뜻에 너무나도 일치하는 도시를 건설하고 “거룩한 도시 곧 시온이라.” (모세서 7:19) 칭하였다.

“주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니 저들 산 위에서나 높은 곳에서도 복을 받아 번성하였더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여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모세서 7:17-18) 조금 더 읽어 보자. “에녹과 그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는 시온 한가운데 거하였더라. 때가 지남에 시온이 없어졌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품으로 받아 들이셨음이라. 이로써 시온이



도망하였다 하는 말이 세상에 퍼졌더라.” (모세서 7:69)

시온과 세상

에녹과 그의 도시가 영화롭게 됨은 다른 모든 성도의 사회가 따라야 할 본보기를 제시해 준 것이다. 우리는 단지 에녹 백성들과 한 무리로서 합치는 데 성공한 벨기세때 성읍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에녹과 노아 시대 사이의 다른 사람들도 합당함이 관명되면 들리워 지거나 또는 변형되었다.

이러한 계시는 교회 역사 초기에 주어졌으며, 또한 말일의 성도들에게도 본보기를 제시해 준다. 말일의 성도들은 합당한 예언과 사도의 권능의 지시를 받아, 주님의 명에 따라 시온을 건설하기에 힘쓰고 있다.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시온 건설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으며, 예언자, 제사장 및 왕들이 특별한 기대를 안고 주목했던 주제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31페이지)

에녹과 성도들은 신앙과 의로운 원리를 토대로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성공했으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사악한 행위를 계속하며 슬픔과 멸망을 거두어 들었다. 아담과 아브라함 사이의 인류 역사는 사탄에게 순종하는 결과는 전쟁과 비극이요, 하나님께 순종함은 평화와 행복임을 시사해 준다.

오늘날 우리들의 환경은 변화했으나,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는 언제나 똑같이 남아 있다. 결국, 우리 역시 대조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

다섯 자녀의 아버지인 켄트 피 잭슨은 유타주 프로보, 브리감 영 대학교의 고대 경전학 부교수이다.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에이 에드워드 칼슨

○ 리는 일상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복음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6년간 나는 온 세계의 해상 시추선에서 전기 기사로 일해 왔습니다. 그 일은 한 달은 일하고, 한 달은 쉬는 교대 작업입니다. 따라서, 교제 관계도 일시적인 것이므로, 친구를 사귀려면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 선원을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그레이트 야머스 해안에서 떨어진 북해에서 어떤 석유 회사에 속해 일하던 중 나는 영국 노리치 출신의 크레인 운전자인 제임스 맥도날드라는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들어간 나는 제임스가 머리를 숙이고 음식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추 작업이라는 거칠은 분위기 속에서 조금도 두려움없이 종교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보고 나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친구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그의 선하심에 감사드리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첫 날부터, 나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내가 제임스를 사귀고 난 뒤, 우리는 종교 교리의 관점에 대하여 토론하거나 그것을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것과 비교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임스는 성경에 대하여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4주간의 근무 기간이 끝나가자, 우리는 함께 조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제임스가 우리와 헤어지기 전에 내가 그에게 가르쳤던 것에 대해 참된 확신을 얻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몰몬경이 진실로 필요한 것임을 확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그 책을 읽어 보고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외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예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르침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금식과 기도의 원리를 설명하고, 제임스에게 그 다음 날 금식해 보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응답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까지 그 마음속의 의문을 생각하고 기도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그 날 하루의 일을 마치고 그의 방으로 들어가서, 무릎꿇고 기도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몰몬경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답을 찾기 위해 몰몬경을 열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경전으로서 참되고 필요한 책이라면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난 그는 몰몬경을 펴들고 그의 손 끝을 어느 한 구절에 갖다 댔습니다. 그 구절에는 이렇게 씌여 있었습니다.

“성경, 우리는 성경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다른 성경이 필요하지 않노라 하고 말할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유대인이 아니었던들 너희가 성경을 얻을 수 있었겠느냐?”

“너희는 민족이 하나만이 아님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나 너희 주 하나님이 만인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바다의 섬들 위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며,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을 다스리며, 나의 자녀 곧 땅의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의 말을 더 받게 됨을 불만스럽다 하겠느냐? 두 민족의 간증이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증거하며, 내가 그중 한 나라를 다른 나라처럼 기억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증거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한 나라에 전한 똑같은 말을 다른 나라에도 전하며, 두 나라가 한데 합칠 때 두 나라의 간증도 하나로 합치게 되니.”(니파이이서 29:6-8)

그는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성신의 힘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의 방으로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악수하는 손은 확신과 힘이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 주기를 청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튼 장로

며칠 되지 않아, 다른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임스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인도하심과 지혜와 지식을 구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 내려주신 많은 축복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이 말일에 지상에 회복된 주님의 참된 교회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된 나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큼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유의 조물주이며, 그의 형상에 따라 내가 만들어졌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과 뼈로 된 두 분의 개체이며, 그들은 요셉 스미스를 방문하시고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세우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전하며, 제임스 피 맥도날드

이러한 편지는 나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회원에게 “선교사가 되라.” “나의 양을 먹이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나는 좋은 친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복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 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교성 18:15) 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데려 오기를 바랍니다. *

넘쳤습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물론경이 참되고, 필요한 책이며, 선생님이 내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음을 압니다.” 그는 그런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모두 다 믿겠습니다.” 밤늦도록 우리는 복음 원리를 토론하고, 함께 깨달음을 받고, 힘을 얻고, 지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이튿날 우리는 석유 시추선을 떠나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제임스에게 선교사와의 모임을 갖기 위해서 전화 번호부에서 교회를 찾아 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었으나 제임스가 아무런 어려움없이 장로들을 찾을 수 있게 되리라 주님을 믿었습니다.

한두 주일 후에 나는 영국의

노리치에 있는 선교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는 원래 텍사스, 엘파소의 우리 스테이크 출신의 선교사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씌여 있었습니다.

형제님의 친구 한 분을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그는 참으로 주님의 “용감한 자”입니다. 나는 제임스씨와 침례탕으로 걸어 들어가서 영광스럽게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침례를 줄 때 형제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생각했습니다. 맥도날드 형제님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나의 동반자와 나는 한 달여를 넘도록 금식하고, 기도하며, 누군가 가르칠 사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제임스씨가 전화로

트로이의 친구

실비아 에이치 그린허

나는 방금 감독님께 하겠다고 말씀드린 초등학교 회장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의아해 하며 감독실을 나왔다.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느 것이나 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아 오긴 했지만, 새로 맡은 책임이 참으로 무겁게만 느껴졌다.

내가 해야 할 첫번째 일은 내가 보좌로 원하는 사람을 감독님께 알려 드리는 것이었다. 와드에서 새로운 존재인 나는, 비록 남편이 성장했던 지역에서 살고 있다 해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처지였다. 그러나 감독님은 나에게 그것은 기도하고, 금식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으며, 그 원리가 작용하는 것을 본 나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 주일 동안 나는 두 자매의 이름을 떠 올릴 수 있었다. 이 특별한 자매들은 나의 보좌가 되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그 문제에 대한 주님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다.

영이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심으로 우리는 서기를 택했다. 그녀는 믿음직하고, 다정한 다섯 자녀의 어머니로서 항상 교회에 헌신적이었다. 우리는 그녀가 매주 나와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의 첫 과제는 어린이들과 교사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었다.

특히 우리는 한 반에 오직 자기 혼자 뿐인 열 살난 소년을 주목했다. 그의 이름은 트로이였다. 그는 교사가 번갈아 가면서 그에게 지명되자 출석률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계속해서 초등학교에 빠질 때가 많았다. 우리는 그의 반



트로이는 선생님이 정말로 자기를 가르쳐 주기 위해 있는지 조사라도 해보려는 듯이 가끔 초등학교에 나왔다.

교사들이 “왜 잘 나오지도 않는 한 아이를 위해서 공과를 준비해야 하지요?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하고 말하는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었다.

트로이를 상급반이나 하급반으로 옮겨 여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시도해 보았다. 얼마 되지 않아 트로이는 초등학교에 전혀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것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우리 초등학교 회장단은 트로이를 도울 방법에 대하여 금식하고 기도해 보기로 결심했다.

다시 한번 나는 이 원리가 작용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모두 생각이 서기에게로 향하는 것 같았다. 그렇기는 해도 그녀를 대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알 수가 없었다.

서기와 이야기를 나눈 후 나는 그녀가 교사 자질 향상 기초 과정을 방금 이수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감동님께 그녀의 이름을 말씀드리고, 재키는 주님께서 트로이를 돕도록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녀는 그 반은 잘 나오지도 않는 남자 아이 하나 뿐인 반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직책을 받아들였다. 또한 그녀는 다른 교사들에게서 그를 다루기가 얼마나 어려우며, 단 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맥빠지는 일인가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을 것으로 모든 구실을 다 갖다 붙여며 소년에 대하여 긍정적이고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가르치는 일을 받아들였다.

나는 트로이에게 훌륭한 새로운 선생님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할 참이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는 그 주일과 그 다음 주일에도 초등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몇 주일이 지나 가면서, 트로이는 정말로 그의 선생님이 자기만을 가르쳐 주기 위해 있는지 알아 보기라도 하려는 듯 가끔 초등학교에 나왔다. 재키는 언제나 나와 있었다. 그녀는 트로이의 집에 가서 그를 데리고 올 때도 있었다.

재키는 그와 가깝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자주 기도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잠들기 전에 트로이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을 때, “그의 친구가 되라.”는 생각이 강하게 떠올랐다.

우리는 점차 이 열 살난 소년이 사랑을 받으며, 초등학교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트로이와 그의 친구 재키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녀는 기분좋은 평상시의 방법으로 그를 가르쳐 주었으며, 소년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그녀가 트로이를 위해서 만들어 낸 여러 가지 재미있는 방법을 활용했다. 것처럼 귀중한 가르치는 순간은 참으로 한 어린이의 가치를 알고 있던 헌신적인 교사에 의하여 참으로 훌륭하게 이루어졌다. 그리 오래지 않아 트로이는 완전히 참석하게 되었다.

재키는 트로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와 함께 진급하면서 계속 트로이의 교사가 되어 주었다. 모두 다 그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트로이는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심장 부위에 심한 감염 증세로 크게 앓아,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 병원에 입원했다. 트로이의 어머니는 그가 간호원이나 주위에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 복음에 관하여 가르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여겼던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는 서슴없이 그들의 종교적인 신앙에 대하여 물었으며, 그가 초등학교 선생님과 그의 집에서 배운 기본 원리들을 가르치고 있음을 그의 부모들은 알았다.

트로이는 회복되지 못했으며, 우리는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슬퍼했다. 그는 겨우 열세살 밖에 되지 않았다. 와드와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에 크게 애통해 했다. 그의 가족들은 트로이에 대한 많은 희망과 꿈을 버려야 했으므로 누구보다도 낙망했다.

그의 장례식을 계획하면서 트로이의 부모는 그와 특별히 가깝게 지냈던 사람—그의 초등학교 선생님을 택해 그의 약사를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날 그녀가 말할 때 모든 사람은 그녀가 진실로 트로이를 사랑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우리는 왜 그가 그녀의 말을 잘 들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세월이 많이 흘렀으나 나는 이 경험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나는 한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알고 있다. 이 간증을 나는 트로이와 재키로 인해 언제나 간직하게 될 것이다. *

어머니의 꿈

바이어러 에이치 저지

잡으라 강한 막대기
하나님의 말씀
그 막대기 우릴 안전히
인도하여 주리.
(찬송가 115장)

오 리 귀에도 익은 이 찬송가의
T 가사는 페드로와 낸시
칸토스와 그들의 가족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준다. 그것은 리하이의 꿈에
관한 물론경의 말씀이 그들에게
복음과 어린 아들의 건강이라는 두
가지 큰 축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었다.

칸토스 집안의 다섯째 아이,
페드리토는 적도 부근의 안데스
산맥 고지에 있는 퀘베도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다. 아기는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보였으나, 이틀이 지나자
그는 뱃속에 있는 태아기의
노폐물을 밖으로 배설하지 못하여
고통으로 울부짖었다.

놀란 그의 부모는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것은 이미 두
자녀를 갑작스럽게 잃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세째
아이인 낸시 출혈마는 난지
석달만에 알지도 못하는 병으로
죽었다.

2년 뒤에는 네째 아이인 한 살된
후안 칼로스가 기관지 폐렴으로
에쿠아도르에 있는 구아야퀼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에
엄마의 팔에 안겨 죽었다. 마음이
찢어질 듯한 어머니는 그 다음
마을에서 버스를 내렸으나, 버스나
택시 운전사들은 아무도 죽은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녀를 태워 주려 하지 않았다.
결국, 필사적으로 그녀는 아기가
잠자는 것처럼 가장하여 지나가는

트럭에 편승하고 퀘베도에서는 개인
차를 빌어 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최악의 경우를 염려하여
페드로 칸토스는 새로 태어난
아기를 담요에 싸안고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28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구아야퀼을 향해
택시를 타고 떠났다. 그들의 거리가
떨어질수록 부모의 마음은 오히려
하나가 되어 어린 아기의 생명을
위해 기도했다.

마침내 부자가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곧 진찰을 해 본 뒤 선천성
장 폐색으로 진단을 내리고 배설을
위한 결장 수술을 했다.

삼 일이 지나자 페드리토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퀘베도의 집으로 돌아와,
구아야퀼에서의 치료비를 지불할
돈을 빌어 그의 아내를 병원으로
보내 병약한 아기와 함께 있게
했다.

낸시 칸토스와 아기는 한달 간
구아야퀼에 있었다. 가족이 모두
슬픔에 젖어 있었다. 그들에게는
페드리토가 회복되리라는 희망도
별로 없었으며, 어디서 어떻게 돈을
더 마련하여 아들의 치료비를 더 댈
것인가를 알 수 없었다.

페드리토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정도는 되었으나 계속해서
병약하고 열이 높았다. 그는 자지도
못하며 고통으로 울부짖었다. 억지로
먹여 줌으로써 그는 겨우 연명해 갈
수 있을 뿐이었다.

석달째에 그는 심한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 칸토스는 그제서야 그들의
아기에게 선천성 심장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심장 절개
수술을 하면 회복될 수도 있으나
수술을 하지 않으면 필경 열 살도
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항상 병약할 것이다.
심장 절개 수술이라니! 그러나
그것은 수백 만원이 드는 것이다.
그것은 불가능했다!

슬픔에 젖은 부모는 그들의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온갖 힘을 다 기울여 아기를
살려 보려고 애를 썼다. 아기는
하루는 좀 낫는가 하면 다음 날은
더 악화되곤 했다. 그들은 이삼
주일에 한 번씩 아기를 구아야퀼로
데리고 가서 약을 처방받고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그들의 제한된
수입으로는 난감한 일이었다.

그런 형편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꿈으로 응답되었다.

페드리토가 태어난지 거의 열
달쯤 된 어느 날 밤이었다. 낸시는
꿈에서 부엌 창문을 통해,
평상시에는 건물들이 줄줄이 늘어
있던 그 자리에 넓은 잔디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멀리서 한 남자가 땅을
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무얼 하십니까?”하고 물었다.
“나는 인간의 병을 고칠 약초를
심고 있어요.”하고 그는 대답했다.

그제서야 낸시는 근처에 이상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나무는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하고 그녀가 물었다.

“이 나무가 페드리토의 병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하고 나그네가
대답했다.

그녀는 간절히 물어 보았다.
“어떻게 하면 그 나무의 약을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나그네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낸시는 어떤 남자가 멀리서 어떤
집의 창문가에 서서 그녀를



넌시는 근처에 이상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나무는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하고 그녀가 물었다. “이 나무가 페드리토의 병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 하고 나그네가 대답했다.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곧 모두 흰 옷을 입은 그와 다른 한 사람이 그 집을 떠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낸시는 놀라서 집 안으로 뛰어 들어와 빗장을 걸었다. 그들은 창살을 뚫 창문가로 와서 그녀를 보고는 “왜 두려워 하십니까?”하고 물었다.

“왜냐하면, 나는 병이든 우리 아기와 혼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문에 빗장을 걸고 창에 창살을 대면 우리가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들은 예절바르게 물었다. “당신이 큰 신앙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때문에 당신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 주셨습니다.”

곧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낸시는 잠이 깨었다.

꿈은 낸시에게 너무도 생생했으나,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일 주일 뒤에 선교사 두 명이 칸토스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 날 저녁 그들은 낸시와 페드로와 그들의 두 아들, 케자와 페르난도에게 첫번째 토론을 들려주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그 가족에게 그리스도가 미대륙에 오신 것에 관해 토론한 구절을 표시한 물문경을 주었다. 그들은 또한 생명 나무에 관한 리하이의 꿈을 말해 주는 구절에도 밑줄을 그으라는 강한 영감을 받았다. 그것은 전에는 그들이 해 보지 않은 일이었다.

후에 낸시 칸토스가 리하이의 꿈에 관한 기록을 읽었을 때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꿈과 너무도 비슷한 것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그녀는 이내 그 구절을 남편에게 읽어주고 자기가 꿈의 말을 말해 주었다. 그도 역시 이것이 그들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쇠막대를 잡는다면, 우리 아기는 나올거요.”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칸토스 집 사람들은 다음

토론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을 정도였다.

장로들이 칸토스의 집에 온 어느 날 밤, 페드리토가 몹시 앓고 있었다. 장로들은 신권의 축복의 원리에 대하여 토론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가족들은 뼈만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약한 두 살된 페드리토를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때까지도 그는 우유외에는 어떤 음식물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잠도 한 번에 한두 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했다.

장로들은 그 아이에게 병자 축복을 해 주고 그가 회복되리라는 강한 느낌을 받고 그 집을 떠났다.

그때로부터 페드리토는 나아지기 시작했다. 칸토스 가족들은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복지 선교사들은 칸토스 자매가 페드리토에게 음식물을 먹이기 시작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몸무게가 불기 시작했으며, 난생 처음으로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있었다. 또한 걷고 말할 줄도 알게 되었다. 돈을 들여가며 자주 구아야킬로 여행하는 일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페드리토가 다시 앓게 되었다. 체온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 그의 부모는 그를 구아야킬로 데리고 갔다. 의사들은 적어도 닷새 동안 병원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페드리토가 살려면 곧 심장 절개 수술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놀람게도 페드리토는 그 이튿날 퇴원을 할 정도로 건강해 졌다.

퀘베도에 돌아오자, 복지 선교사들이 칸토스가 수술 비용에 드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을 도와 주었다. 의사들은 그들이 수술을 받기 위해 미국이나 브라질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에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같은 증세로 수술을 받은 어느 교회 회원이 퀴토 근처에 있는 심장병 전문가인 오스월드 보닐라 박사에게 대하여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보닐라 박사의 스케줄은 몇 달 동안 꽉 차 있었으나, 그는 두

주일안에 페드리토를 보아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복잡한 사정으로 보닐라 박사는 곧 페드리토를 보아줄 수가 없었다. 칸토스 자매는 치료비를 댈 돈을 벌기 위해 양재 학원에 다녔다. 보닐라 박사와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그녀는 마지막 시험이 같은 날에 예정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보닐라 박사는 고맙게도 약속일을 두 주일 뒤로 미루어 주었다. 이번에는 버스 회사의 태업으로 그와 만날 수 없었다. 결국 6주일 뒤에 그들은 보닐라 박사 앞에 설 수 있었다.

심전도 측정, 엑스 레이, 기타 다른 시험 결과는 페드리토가 너무 약해 수술을 견뎌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충분한 힘을 얻으려면 적어도 8, 9개월은 걸릴 것입니다.” 보닐라 박사는 걱정에 싸인 부모에게 말했다. 의사는 다른 일련의 검사를 명했다.

3일 뒤, 페드리토가 새로운 검사를 받게 되기 직전에, 흰 셔츠와 검은 양복을 입은 두 젊은이가 보닐라 박사에게 “우리가 그 아이에게 축복을 주고 싶습니다.”하고 말했다. “5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의사는 말하고 방에서 나갔다.

그 날 오후 이후 그는 껌짝 놀랐다. 검사 결과가 놀랄 정도로 좋아져 보닐라 박사는 곧 수술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쁜 상태였습니다.” 보닐라 박사는 그 부모와 수술하는 다섯 시간 동안 걱정하며 그들과 함께 기다려 준 장로들과 자매 선교사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기도를 계속하시면 페드리토가 살 것입니다.”

페드리토는 살았다. 그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는 이내 다른 소년들처럼 뛰어 놀게 되었다. 페드리토의 삶에 대한 투쟁은 다른 기적도 가져왔다. 보닐라 박사와 그의 보조인 로페즈 박사는 신앙이 발휘되는 것과 장로들이 페드리토를 축복해 주었을 때 본 기적에 대해 큰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수술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



조셉 에프 맥킴,
브리감 영 대학교,
고대 경전학 부교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일어나게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경전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때 곧 그 날짜나 시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명백히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년 월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분명히
일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 오시기 전에
성취되어야 할 절대적인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일을
마치시”는 것으로 경전에 묘사되고
있으며 “일곱째 천년(지구의
역사의)이 시작될 때에...주께서 오실
때에 미리 길을 예비”(교성 77 : 6,
12)하기 위해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9장에서 우리는 일곱째 인
동안에 전쟁과 재난이 퍼붓게 됨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계시로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일곱째
인을 뻔 때에 성취”(교성
77 : 13)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충실한 성도들은 이러한 일을 알
수 있고 그리하여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재림에 앞서 성취되어야 할
여섯 가지 주요한 일을 살펴 보기로
합시다. (반드시 연대순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1)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됨; (2)
이스라엘의 집합; (3) 성전 건립;
(4) 아담 온다이 아만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 (5) 아마겟돈 전쟁;
(6) 하늘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

1.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됨.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된 복음은 운명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가족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물론경에 증거되어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기회를 가져야만
합니다. (니파이삼서 21 : 11 참조) 그
백성에는 러시아, 중국, 인도 및
모슬렘 민족이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백성에게서 회복된 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교성 90 : 11; 엘마서 29 : 8
참조) 이러한 모든 나라에서 많은
말일성도들이 “크신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세로 무장”(니파이일서
14 : 12, 14)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언이 성취되기에
앞서 인간의 통치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 이스라엘의 집합.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한 예언은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은 레이맨인이나 유대인 또는
잃어버린 지파들에게 다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에 모든
자들은 잃어버린 바되고 뿔뿔이
흩어졌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성약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고대 유산에 대해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참된 교회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우리안에
회복”된 후에 이스라엘의 집합의
열쇠를 가진 예언자의 지시하에
그들의 상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니파이이서 9 : 2; 교성
110 : 11)

3. 성전의 건립. 이스라엘이



집합되면 시온이 건설되고, 시온이 건설되면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말일에 주님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말라기 3:1) 이사야는 성전의 건립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이스라엘 집합의 표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사야 2:1-3) 예언의 약속은 고대의 예루살렘과 잭슨군의 새 예루살렘, 두 곳의 성전 건립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교성 84:4; 124:36)

4. 아담 온다이 아만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리스도께서 만인 앞에 내려 오시어 그를 따른 무리를 모으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에 앞서, 아담 온다이 아만 계곡에서 모든 시대의 충실한 성도들에게 조용히 은밀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기서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열쇠와 권세를 맡아 온 사람들이 그들의 청지기의 직분에 대하여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열쇠를 아담에게 돌리고, 아담은 모든 열쇠를 그리스도에게 돌려 드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복천년의 통치를 시작하시도록 모든 것이 준비될 것입니다. (교성 116; 다니엘 7:9-14; 21-22)

5. 아마겟돈 전쟁. 이스라엘 민족이 지상의 모든 나라로부터 돌아와 그들의 땅에 모여 들어 옛 예루살렘에 주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나면,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이 나게 될 큰 악과 멸망의 때가 이를 것입니다.

복천년 시대로 인도하는 의의 상태가 될 것으로 그릇 가정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은 사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살해되어 그 시체가 사흘 반 동안 길거리에 누워 있을 것이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8-11)

신의 섭리에 의하여 예루살렘의 고난은 그들의 죄에 비례할 것입니다. 성읍은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여인들이 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4:2) 의인만이 이 파멸과 약탈에서 피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대 전쟁, 아마겟돈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곡과 마곡의 군대와 싸움을 붙이는 종교 전쟁으로 정점에 달할 전투는 고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에스드라론 평야에서 싸움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 9장 16절에 보면 여기서 “이만만”(즉 이 억명 이상)이 지상의 모든 나라에 확대될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다시 내려 서실 것이며, 성스런 산은 돌로 갈라질 것입니다. 그는 그의 백성들을 구하고 사악한 자를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곡과 마곡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적들의 최후의 멸망과 지상의 국가와 왕국의 최후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 곧,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 교성 45:48; 요한계시록 19:14-16)

6. 하늘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 약 2,000여 년 전에 감람산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일에 이스라엘이 다시 임하게 될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환난이 있는 직후에, 해는 어두워질 것이며, 달은 빛을 발하지 않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고, 하늘의 권세가 흔들리리라.” (영감역 마 1:33)

이것이 마지막 큰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 때에” 그는 이렇게 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지상의 모든 족속이 슬퍼하리니 그들은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권세와 영광 중에 오심을 보게 되리라.” (영감역 마 1:36) *

서로 사랑하라

Luacine Clark Fox

Luacine Clark Fox

경건하게 ♩ = 46-56

나 너 회사 랑 하 듯 사 랑 해

The first system of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a vocal line in treble clef and a piano accompaniment in bass clef. The key signature is one sharp (F#) and the time signature is 6/8. The lyrics are '나 너 회사 랑 하 듯 사 랑 해'.

새 계 명 주 니 서 로 사 랑 해

The second system continues the musical score with the lyrics '새 계 명 주 니 서 로 사 랑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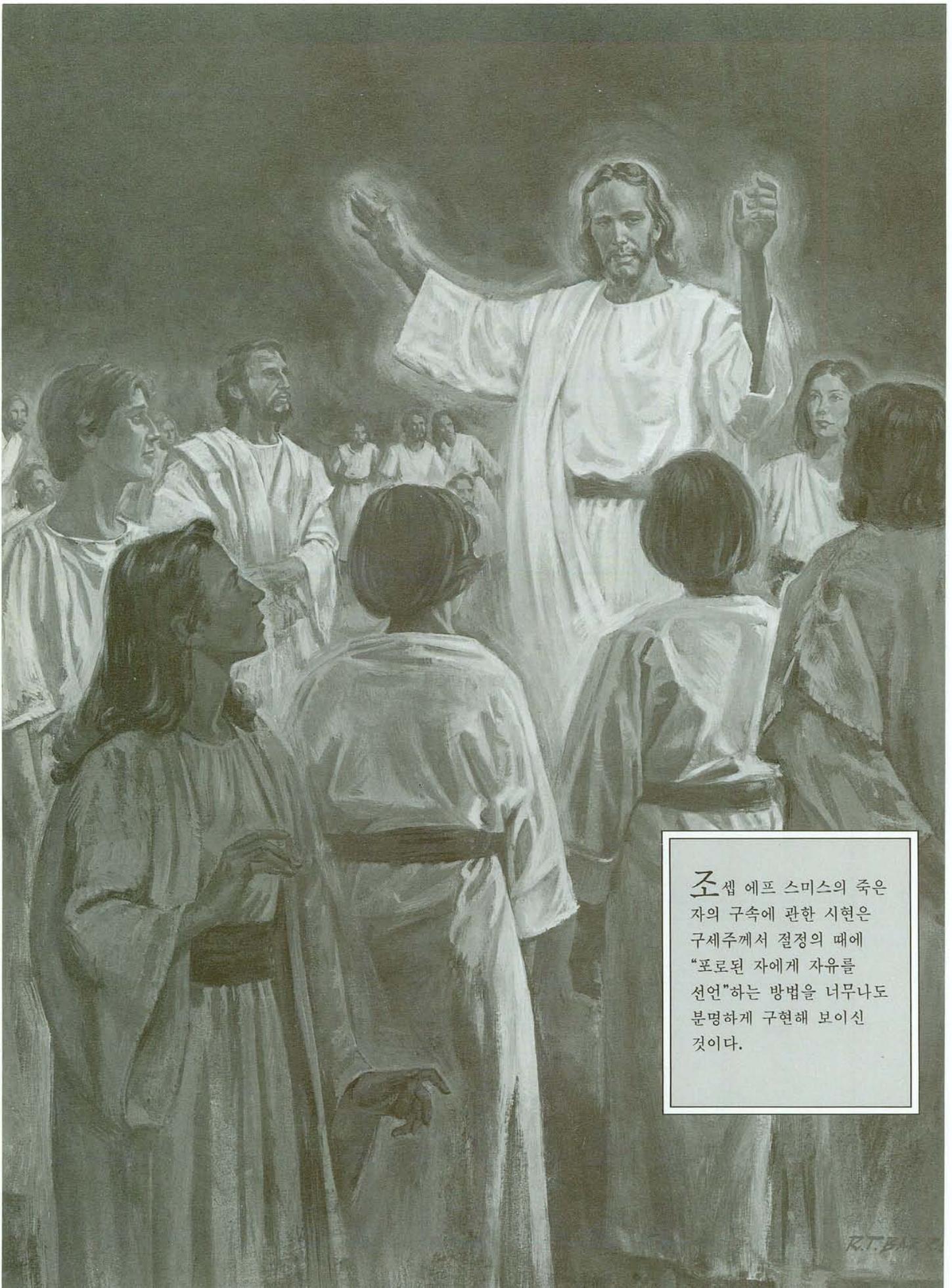
너 희 가 서 로 사 랑 하면 나 의

The third system continues the musical score with the lyrics '너 희 가 서 로 사 랑 하면 나 의'.

제 자 인 줄 알 게 되 리 라

The fourth system concludes the musical score with the lyrics '제 자 인 줄 알 게 되 리 라'.

(요한 복음 13 : 34-35, 요한 일서 4 : 11)



조셉 에프 스미스의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은 구세주께서 절정의 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방법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구현해 보이신 것이다.

장막 너머의 세상 : 말일의 두 계시

로버트 엘 밀레

1976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두 계시가 값진 진주에 추가되었음을 발표했다. 그 두 계시는 요셉 스미스가 1836년에 받은 해의 왕국의 시현과 조셉 에프 스미스가 1918년에 받은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으로서 후에 교리와 성약 137편과 138편으로 수록되었다. 킴블 대관장의 말씀에 대하여,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그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손자와 증손자에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지상에 있었음을 일지에 기록하고,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1977년 10월 14일, 교회 교육 기구 직원들에게 행한 연설.)

교리와 성약에 추가되는 일은 드문 일이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의 1890년 선언문이 추가된 이후로 교회는 새로운 계시를 우리 표준 경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기회를 받지 못했다.

우리가 이러한 계시를 어떻게 받았으며,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왜 그것이 이제 와서 교리와 성약에 포함되었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의 왕국의 시현 (교성 137)

요셉 스미스의 해의 왕국의 시현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은 영감적이고도 시사적인 것이다. 1833년에 주님은 커틀랜드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계명을 상기시켜 주셨다. “집을 지으라 명하였나니, 그 집안에서 내가 선택한 자들에게 하늘에서 오는 권능을 주려 하였느니라.”(교성 95 : 8) 커틀랜드 성전이 다 지어진 후에, 주님은 빛과 진리를 놀라우리 만큼

부어주시므로써 그들의 희생을 보상해 주셨다. 한 말일성도 역사가가 최근에 이 역사적으로 놀라운 시대에 관해서 글을 썼다.

“1836년 1월 21일에서 5월 1일 사이의 15주간의 기간 동안에 말일성도들은 교회 역사의 다른 어느 기간보다도 더 많은 시현을 보고 기타 범상치 않은 나타내심을 보았을 것이다. 그 당시에 열렸던 열 개의 다른 모임에서 성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를 보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여덟 개의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보았다고 말했으며, 다섯 번의 예배 모임에서 사람들은 구세주 예수께서 나타나셨다고 간증했다. 성도들이 하늘 무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가 하면 방언을 말하기도 했으며, 더러는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받기도 했다.”(밀튼 알 백맨 이세, 하늘의 울림 : 오하이오에서의 말일성도의 역사, 285페이지)

1836년 1월 21일 목요일 저녁에, 예언자와 커틀랜드와 미주리에서 온 여러 명의 교회 지도자들은 성전에 모였다. 기쁨부음이 있는 후회장단이 모두 그들의 손을 예언자의 머리에 얹고 여러 가지 영화로운 축복과 예언을 한 후에 놀라운 시현이 그곳에 모인 지도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교회사, 2 : 379-80)

“여러 하늘이 우리 위에 열렸으며, 나는 하나님의 해의 왕국과 그 영광을 보았나니, 내가 육체를 갖고 있었는지 혹은 나의 영이 육체와 분리되어 있었는지 말할 수 없느니라.

“나는 그 왕국의 상속자가 들어갈 매우 아름다운 문을 보았나니, 그 문은 마치 나선형으로 타오르는 불꽃에 싸인 것 같았으며,

“아버지와 아들이 앉은 하나님의

찬란한 보좌도 보았느니라.

“나는 금으로 포장된 것같이 보이는 그 왕국의 아름다운 거리를 보았고.”(교성 137 : 1-4)

이러한 해의 왕국의 시현은 계시자 요한이 본 거룩한 성 즉, 성결케 되고 해의 영광의 상태가 된 지구에 대한 시현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은 정금이더라.” (요한계시록 21 : 19, 21)

시현에 관한 요셉의 기록은 이렇게 계속된다.

“또한, 우리의 시조 아담과 아브라함, 나의 부모님 그리고 오래 전에 죽은 나의 형 알빈을 보았느니라.

“나는 주님께서 두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집합시키는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알빈이 이 세상을 떠났고, 죄 사유함을 위한 칙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알았던지라 그가 어떻게 그 왕국에서 상속의 땅을 받았는지 기이하게 생각하였느니라.” (5-6절)

요셉의 시현은 미래의 해의 왕국의 영역을 살펴본 것이었다. 그는 그의 부모가 사실상 1836년에 살아 있었음에도, 그 두 사람이 의인의 왕국에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흥미롭게도 아버지 스미스는 그의 아들이 그 시현을 받고 있었을 때 같은 방에 있었다.

예언자는 또한 그의 형 알빈도 보았다. 알빈 스미스는 조셉 일세와 루시 맥 스미스의 장남이었다. 그는 쾌활하고, 사랑스런 성품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찾았다. 예언자는 후에 그의 만행을 진실된 자로 묘사했다. (교회사, 5 : 247)

알빈은 임종 시에, 스미스가의

자녀들을 한 사람씩 그의 침대가로 불러 작별의 인사와 마지막 사랑의 표시를 했다. 어머니 스미스는 요셉 스미스의 역사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요셉의 차례가 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당한 고통과 내가 느낀 감정은 나의 때가 아주 짧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 같다. 나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록을 얻기 위해서 네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발휘하기 바란다. (요셉은 그 당시로부터 약 삼 개월 전에 모로나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 충실하게 가르침을 받고, 너에게 주어지는 모든 계명을 지키거라.’”

알빈은 1823년 11월 19일에 죽었다. 루시 맥 스미스는 그의 죽음을 둘러싼 슬픔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알빈은 특별하게 성품이 착한 아이로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다정하여, 그가 살던 지역의 모든 이웃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해 했다.”

알빈은 교회가 조직되기 7년 전에 죽었고, 따라서 합당한 권능에 의한 침례를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요셉은 시현을 받는 동안 그의 형이 어떻게 가장 높은 해의 왕국에 이를 수 있었는지 의아해 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이 내게 임하여 이렇게 말했느니라. 이 복음을 모르고 죽은 자로서 지상에 더 머물러 있었을진대 복음을 받아들였을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해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이제부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게 될 자로서 복음이 전해졌더라면 온 마음을 대해 복음을 받아들였을 자들도 모두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리니,

“이는 나 주가 모든 사람들 그들의 업적과 마음의 소망에 따라 심판하겠음이니라. (교성 137:7-9)

요셉은 모든 인간은 이 생에서나, 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적용할 기회를 갖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 시현은 주님은 인간을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만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 곧, 마음의 소망에 의하여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재확인해 주었다. (엘마서 41:3 참조)

해의 왕국의 시현에서 나타난 또 다른 아름다운 교리는 죽은 어린이들의 상태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나는 책임을 질 연령에 이르기 전에 죽은 모든 어린 아이가 하늘의 해의 왕국에서 구원받을 것을 보았느니라.” (교성 137:10)

이것은 과거의 예언자들이 가르친 것을 확인해 준 것이었다. 베냐민 왕은 한 천사로부터 “어려서 죽은 유아는 벌 받지 아니하나니” (모사이야서 3:18) 라는 것을 배웠다. 아빈아다이는 첫째 부활에 나아올 사람들의 성품을 묘사한 후에 이렇게 간단히 말했다. “어린 아이들이 또한 영생을 얻으리라.” (모사이야서 15:25)

1830년 9월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어린 아이는 나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구속을 받았나니” (교성 29:46; 또한 영감역 마태복음 19:13-15) 라고 구제화되었다.

또한, 요셉은 1842년에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다. “주님은 많은 사람,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도 인간의 시기와 현세의 슬픔과 악을 피할 수 있도록 데려 가신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실기에는 너무나 순결하고 너무나 사랑스런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악으로부터 구함을 받고, 우리가 곧 그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슬퍼하기 보다는 기뻐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교회 정사, 4:553) 이러한 어린이들은 그들이 누워 있던 대로 어린아이로서 무덤에서 나아오게 될 것이다. (교회 정사 4:555-56) 그들은 우리가 육신의 상태에서 당한 것과 같은 어려움을 그들이 부활한 상태에서 당하게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가족 단위가 영원히 계속되는 가장 높고도 가장 장엄한 승영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해의 왕국의 시현을 받은지 4년 반 뒤에, 예언자 요셉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주제로 한 첫번째 대중 설교를 하였다. 그 당시에 함께

참여했던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고 있다.

“나는 예언자 요셉이 1840년 8월 15일에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하여 말씀한 설교회에 참석했었다. 그는 고린도서 15장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었음을 말해 주었다...또한 그는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그들 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하여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난 그들의 친구를 위하여 행할 수 있으며,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매우 아름다운 설교를 했다.” (앤드류 에프 에हत, 린든 더블류 쿡, 요셉 스미스의 말씀, 49페이지)

이 설교가 있은지 한 달 뒤에, 조셉 스미스 일세는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스미스는 임종 직전에 누구든지 그의 큰 아들 알빈을 위해 침례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이람 스미스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따라 1840년과 1841년에 다시 알빈을 위해 대리 침례를 받았다. 알빈은 1877년 4월 11일에 대리 엔다우먼트를 받았으며, 1897년 8월 25일에 그의 부모에게 인봉되었다.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교성 138)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초기에 계시된 진리는 그가 사망한 이후에도 “제울에 제울을” 더하여 계속 확대되었다. 주님은 예언자의 조카인 조셉 에프 스미스에게 복음이 영의 세계에 전파되는 방법을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판장은 그의 생전 마지막 6개월 동안에, 노환으로 인한 고통을 겪으며,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비하이브 하우스에서 개인적인 연구에



물두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는 1918년 10월에 연차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운을 차렸다. 개회 모임에서 그는 일어나 성도들에게 감동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아침 내 마음에 있는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장래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지난 5개월간 혼자 산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기도의 영, 간구의 영, 신앙의 영, 그리고 결심의 영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도 끊임없이 고통하였습니다.”

부친의 자서전인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를 쓴 그의 아들 조셉 필딩 스미스에 의하면, 대관장은 그 6개월 동안에 수많은 나타내심을 받았으며, 그 중에 일부는 그의 아들에게도 말해 주었음을 상당히 많은 면에서 표현하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나타내심의 하나로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을 그 전날인 1918년 10월 3일에 받았으며, 대회가 끝나자 곧 그것을 기록하였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관심은 그가 자주 죽음과 직면하게 됨으로써

자연히 이 지상 생활 너머의 세상으로 끌리게 되었다. 그의 부모인 하이람과 메리 필딩 스미스는 그가 아직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후에 그의 자녀들이 많이 죽는 시련을 받았다. 조셉 필딩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죽음이 그의 집안을 빈번하게 침범하여 그의 어린 자녀들이 그로부터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자 그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퍼했다. 그것은 희망없이 사는 사람의 애통함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보다도 그에게는 더 소중한 그의 ‘귀중한 보물’을 잃은 데 대한 애통함이었다.”

스미스 대관장이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을 받기 몇 달 전에, 그의 맏아들이며, 십이사도 평의회의 일원이었던 하이람 맥 스미스가 4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것은 특히 대관장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이미 노령으로 육신이 쇠약해진 터에, 그는 “그때까지 견디어 온 그 어느 것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살아 있는 기간에 사후의 생을 가리고 있던 장막은

아주 얇아졌다. 하와이에서의 젊은 선교사 시절에 그는 그의 신앙을 강화시켜주고 믿음을 키워 준 꿈과 시현을 받았다. 그 이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그것은 그가 인생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그가 하는 일이 주님에게 그리고 교회 대관장단에 있는 그의 전임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확신을 주었다. 꿈속에서 어린 조셉은 그의 숙부인 예언자 요셉을 만났으며, 세상의 속된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소망이 더욱 강해졌다. 그 외에도 그는 이미 어린 나이에 이 지상 생활과 불멸의 세상 사이의 분리는 미묘한 것으로 주님은 자주 두 세계의 주민들의 교류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의 마지막 30개월인 1916년 4월에서 1918년 10월까지의 기간은 특별히 가장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의 시대라 할 수 있다.

1916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스미스 대관장은 “신의 면전에서”라는 참으로 중요한 연설을 했다. 그는 영의 세계가 가까이 있다는 것과 영들은 우리와 우리가 하는 일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말했다. 그는 육신의 상태에서 시온의 대업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한 사람들은 사후의 상태에서 “그들 자신의 일의 결과를 내려다 보는” 특권을 거부당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사실상, “그들은 그들이 육신으로 있을 때 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하지는 못한다 해도, 장막 너머의 세상에서 오늘 날의 우리의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필경 그가 이 설교에서 말씀한 요지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때로 주님은 이러한 견해로부터 또한 장막의 이쪽 편으로부터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시어, 우리는 우리를 다른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얇은 장막 너머의 세상을 볼 수 있음을 인식하고 느낄 수 있게 된다.”

1916년 6월에 대관장단과 십이사도는 신회의 본질에 관해서, 특히 “아버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한 교리상의 오해를 풀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의 교리 해설 소책자를 발행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1918년 2월 성전 금식 모임에서 “부활시의 어린 아이들의 상태”라는 가장 중요한 연설을 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리에 정통하여 준비된 예언자의 인품과 힘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자식들이 죽어 그들이 없음을 슬퍼하면서도, (1) 어린 아이는 장막 너머의 세상에서도 계속 살아 발전해 나가는 불멸의 존재인 영이며; (2) 예언자 요셉이 가르친대로 어린 아이들은 그들이 누워있던 무덤에서 나와 합당한 부모에 의하여 육체적으로 성숙하게 될 때까지 양육되어 자라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는 기뻐한 고귀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게 된다. 조셉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 나는 이 자녀들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다른 세상에서 그들을 만날 때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는가.”

그 후 여러 달 뒤인, 1918년 10월 3일 목요일에 당시 스미스 대관장은 병고로 대개 방안에서 지낼 때, 그는 앉아서 책을 읽으며, 보편적인 속죄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사후의 성역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말씀에 대하여 명상하고 있었다. 단제는 마련되었다. 일생의 준비와 그 순간의 준비는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이라는 하늘의 엔다우먼트로 보상되었다.

대관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내가 경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던지라 나의 이해의 눈이 열렸으며, 나는 크고 작은 죽은 자의 무리를 보았나니” (교성 138 : 11)

조셉 에프 스미스는 아담의 때로부터 절정의 때에 이르기까지 의롭게 죽은 “수많은 의로운 자의 영들”을 시현으로 보았다. 그들은 그들이 사는 곳으로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기를 열망하고 있으며, 압박해 있는 부활에 대한 기대로 충만해 있다. (12-17절 참조) 골고다에서 속죄의 희생을 치르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은 눈 깜박하는 사이에 죽은 자의 세상으로 들어 가신다. “그들의 영이 오랫동안 육신에서 떠나 있음을 하나의 속박으로 여겼”(50절 참조; 또한 교성 45 : 17 참조)던 죽은 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감옥에 있는 것과 같아서, 의인들조차 “구원”되기를 바랬다. (15, 18절 참조) 이리하여, 구세주는 “충실하였던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18절)하시게 된다. 베드로가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베드로전서 3 : 19) 전파하시고자 장막 너머의 세계로 가셨다.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지옥이니 연옥이니 낙원 또는 영옥은 모두가 하나이니, 그것은 영의 세계이다.”(교회 정사, 5 : 425)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시현에서 “지옥 부분만이 아니라 영의 세계 전체가 영옥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성도의

벗, 1977년 8월호, 8페이지) 그러나 그리스도는 의로운 영에게 “부활할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어 그의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불사불멸의 영생의 관을”(교성 138 : 51) 쓰게 하신다.

구세주께서 어떻게 그가 사망하고 부활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영의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스미스 대관장은 가장 중요한 교리에 대한 이해력을 얻게 된다. 그는 “주님께서 악한 영들과 진리를 거부하고 순종치 아니한 영들을 가르치려 그들에게 친히 가시지” 않고, “사자들을 임명하시어 그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부여하시오”(29-30절), 그러한 대리자들이 “배반과 범법 때문에 친히 찾아갈 수 없었던 모든 죽은 자에게”(37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음을 이해하게 된다. 택함을 받은 사자들은 이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에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기회를 갖지 못한 자들과 또한 지상에서 예언자들을 거부한 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들은 필멸의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신의 표준에 의하여 심판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제일 원리와 의식(대리 의식을 포함하여)을 배운다. (31-34절 참조)

그리스도께서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친히 방문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 시현의 초입에 교회에 소개된 교리적인 문제로,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넓혀 준다. 그러나 이처럼 분명히 밝혀짐으로써 요셉 스미스가 가르친 내용이 확인된 셈이다. 이 생에서 충실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 영의 세계에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게 된다. (57절 참조) 1844년 5월 12일자, 조지 럽의 일지에 기록된 대로 예언자 요셉은 이렇게 선언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옥으로 가서 육신으로 죽은 자들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으로 살아 있으며, 그러한 영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할 영들에게 전파하며, 인간은 육신으로 그들을 위해 일합니다.”(에훗, 쿡, 370페이지) 조셉 에프 스미스는 이 교리를 수없이 가르쳤다.(복음 교리, 122-123페이지 참조) 이로써 그는 목격자가 된 것이다.

시현이 계속됨에 따라, 스미스 대관장은 태초로부터 아담,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사야, 그리스도 탄생 전의 니파이인 예언자 등을 포함한 수많은 고귀하고 위대한 사람들을 보게 된다. 또한 그는 인류의 어머니 이브와 많은 충실한 딸들을 본다. 스미스 대관장은 이미 여러 해 전에 여성이 이 지상의 거룩한 곳에서 그러하듯이 여성들이 영의 세계에서 여성에게 복음을 전함을 가르쳐 왔다.(복음 교리, 419페이지) 다시금 이 시현을 통해서 그는 이 사실의 목격자가 되었다.

우리 앞에 그의 놀라운 시현이 펼쳐져 있다. “이것은 죽은 자의 구원에 관계되는 교회의 기준 교리를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확인한 계시입니다.”(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성도의 빛, 1877년 8월호, 8페이지) 스미스 대관장은 간증으로 그의 교리의 절정을 끝맺는다. “이같이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이 내게 나타내졌느니라. 나는 이를 증거하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이 시현에 관한 기록이 참된 것임을 아노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교성 138 : 60)

그 시현은 1918년 10월 31일 목요일 평의회 모임에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회와 교회 축복사에게 발표되었다. 그는 몸이 쇠약하여 참석할 수 없었던 관계로 그의 아들 조셉 필딩 스미스에게 부탁하여 그날 모인 총관리 직원들에게 계시를 읽어 주게 했다.

제임스 탈매지 장로는 그의 개인 일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십이사도 평의회와, 대관장단 보좌와 교회 축복사의 일치된 조치로 그 계시를 주님의 말씀으로



채택하고 받아들였다.”(제임스 이 탈매지 일지, 교회 기록 보관소.)

스미스 대관장의 기력은 1918년 11월 첫째 주일에 더욱 쇠약해져, 11월 19일에 별세했다. 그 다음 연차 대회(1919년 4월)에서 탈매지 장로는 대관장에게 감동적인 헌사를 보냈다. “그는 지금 어디에 계시니까?”

“그분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이후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허락되어 그분이 곧 일하게 될 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상에서 의의 전파자였듯이, 지금도 의의 전파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선교사였으며, 비록 육신의 생활을 떠나 영의 세상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지금도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에 부지런히 정진하고 있지 아니한 그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결론

요셉 스미스의 해의 왕국의

시현은 거할 곳을 많이 마련해 두신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은 구세주께서 절정의 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방법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구현해 보이시고, 또한 구원의 교리가 무덤 너머의 세상에 계속해서 알려지게 되는 방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사업은 장막의 양쪽에서 함께 진행되어 나간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베드로전서 4 : 6)*

로버트 엘 밀레, 유타주 프로보, 브리검 영 대학 고대 경전과 부교수. 그와 아내 셔우나는 다섯 자녀를 두고 있다.

베이보 키트의 선물

키티 드라이터가
캐디 존스턴 브라우에게 한 이야기

“귀여운 이태야, 생일을 축하한다.” 우리가 인도네시아 자바에 있는 일본인 수용소에서 아침 일찍 잠이 깨었을 때 어머니가 나에게 속삭였다. “너도 이제 아홉 살이니 다 컸구나. 얼마 안있으면 네 생일을 자유롭게 케익과 레몬 주스와 아이스크림을 잔뜩 차려 놓고 축하하게 될게다. 두고 보렴!”

“너는 너대로의 운명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태어난 특별한 아이란다. 너는 네가 특별히 이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야. 네 생애는 목적이 있고, 이 수용소에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야.” 어머니는 부드럽게 언젠가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군이 우리를 강제로 우리 집에서 쫓아낸 이후로 언니와 여동생과 남동생이 함께 18개월 동안 수용소에서 생활했다. 오빠 세 명은 다른 수용소에 있었다. 아버지는 인도네시아 침략에 저항하는 지하 운동에 가담했기 때문에 일본이나 필리핀에 있는 수용소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다.

나는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웠다.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했다! 우리는 벼룩과 이가 들끓고, 모기가 새카맣게 물려드는 가시 철망 뒤에 갇혀 있었다. 우리가 갇혀 있는 짐통같은 건물에서 우리는 한 사람당 1미터와 1.5미터밖에 허용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불친절했으며, 아이들은 항상 울어대고, 변소에 갈 때도 차례로 가야 했다. “열 살때 생일은 어떻게



될까?” 나는 의문스러웠다. “나는 자유롭게 될 것인가?” 나는 참으로 부드러운 풀밭을 걸어다니고, 그 냄새를 맡으며, 거기서 뒹굴어 보고 싶었다. 내가 노래하고 싶을 때 노래하고, 소리치고 싶을 때 소리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할까!

어느 날, 나는 혼자 있고 싶은 마음에서 건물 가까이 있으라는 어머니의 경고를 무시했다. 나는 나의 유일한 소유물인 막대기를 들고 돌아 다녔다. 어머니는 그 막대기로 땅바닥에 글을 써서 우리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는 놀이를 자주 했다. 어머니는 또한 우리들에게 성경 이야기라든가, 우리가 하곤 했던 일들 또는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하신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다.

나는 “그 좋던 옛날”을 생각하다가, 점점 더 수용소

건물에서 멀어져 수용소 변두리의 그 무서운 가시 철망이 있는 곳까지 다달았다. 내 주위의 환경을 까맣게 잊은 나는 산기슭에 있던 우리 옛집과 나의 조랑말과 장난감을 꿈꾸고 있었다. 아, 나는 왜 군인들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왔을 때 의자 위에 앉아 있던 내 인형-팝 미엔체를 놔두고 왔을까? 나는 너무 무섭고 졸려서 정든 형질 인형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집에 놓아 두고 왔던 것이다. 지금 그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또한 나를 늘 돌보아 주었던 나의 유모, 자바 아줌마가 그리워졌다. 내가 놀라거나 다칠 때는 언제나 유모 베이보 키트가 나를 달래주고 위안해 주었던 것이다. 나는 지금도 나를 쓰다듬어 주는 아줌마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고, 그 냄새와 달래주는 속삭임을 기억할 수 있는데. 나는



아줌마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상상까지 했다. “노니 키티, 키티!”

가만 있자! 정말 들린다...그것은 상상이 아니었다.

나는 그 소리를 다시 들었다. “노니 키티, 키티. 조심해서 왼쪽을 봐. 나는 덩불 속에 있어. 너무 가까이 오지 마라. 가시 철망이 날카롭고 이 부근에는 지뢰도 묻혀 있다.”

나는 조심스럽게 머리를 돌려 덩불 밑을 살펴 보았다. 거기 유모가 있었다!

“이 무서운 수용소에서 나를 데려 가려고 왔군요.”하고 내가 물었다.

“아니야, 노니, 오늘이 네 생일이라 네게 뭘 줄게 있어서 왔단다.”

나는 땅바닥에 막대기를 가지고 노는 척하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유모 아줌마, 날 데리고 가

주세요. 나는 여기서 싫어요. 제발 나 좀 잡아 주세요. 베이보 키트, 제발!”

아줌마의 목소리가 엄해 졌다. 아줌마는 나에게 조용히 목소리를 낮추라고 하고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고 했다.

“베이보들은 이 수용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팜 미엔체를 너에게 주려고 가져 왔단다. 유럽인 아이들이 마을에서 사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란다. 알라 신은 진지전능 하시니까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항상 기도해라. 신은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지 알고 계시며, 지금은 다만 우리가 끝까지 충실하게 견디어낼 수 있는지 시험하고 계신 것 뿐이야. 마지막에는 우리들에게 잘 될 것이다. 팜 미엔체를 가지고 가고, 언제까지나 그걸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어디를

“제발,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는 가시 철망에 얼굴을 찢기며, 아줌마에게 다가가며 외쳤다. “가지 마세요!”

가든지 가지고 가져라.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나는 유모가 내게 해주는 말은 무엇이나 참되다는 것을 알았으며, 언제든지 그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유모를 만져보고 싶었다. 그것이 아무리 위험하다 해도 상관없었다. 나는 몸을 돌려 가시 철망쪽으로 기어갔다. 아줌마는 나에게 팜 미엔체를 건네 주었다. 우리는 손길이 닿았다. 아줌마는 내 손등을 두드려 주었다.

“날 데려가 주세요! 가지 마세요!” 나는 인형을 옆으로 내던지고 두 손을 내밀었다. 내 몸을 아줌마에게 더 가까이 내어밀려 하다가 가시 철망에 얼굴을 찢었다. 나는 아줌마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아줌마가 내 얼굴을 어루만져 주는 기분 좋은 느낌에 잠시 취해 있었다.

“자, 노니, 이제 빨리 가져라. 인형을 가지고 빨리 가. 나는 가야 해, 빨리!”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보초가 우리를 보았다. 그는 아줌마가 달아나는 것을 보고는, 나의 유모, 나의 베이보 키트의 등에 총을 겨누고 쏘았다. 총에 맞은 그녀는 몸을 돌려, 마치 “괜찮다!”는 듯이 나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총을 쏜 뒤에 보초의 고함 소리와 여인들의 외침 소리가 한데 어울려, 아무도 내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나는 너무나 놀라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누군가 팜 미엔체를 집어들어

나에게 건네 주었다. 몸을 굽혀 막대기를 집어 들고 일어난 나는 내 앞에 일본 군인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나를 보더니 “빨리 가라.”하고 속삭여 말했다.

나는 우리 숙소까지 줄곧 뛰어 왔다. 나는 우리 적인 일본군에 의해서 구조된 것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기다리고 제셨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찾았던 것이었다. 내가 팝 미엔체를 안고 어머니를 향해 뛰어오고 있는 것을 본 어머니는 내가 베이보 키트를 만났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일어난 일을 어머니에게 말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빠져 나왔다면! 내가 그렇게 꾸물거리지만 앓고, 아줌마 말을 들었다면, 베이보 키트 아줌마는 살았을 텐데!”

어머니는 나를 두 팔로 꼭 껴안고 그렇게 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었다고 거듭거듭 말해주며 안심시켜 주었다.

나는 베이보 키트의 희생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까지 여러 해 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면서 나는 팝 미엔체를 어디든지 데리고 다녔다.

내가 열한 번째 생일을 맞기 직전에 영국과 호주 군대와 미국의 낙하산 부대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 우리는 네델란드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전쟁시에 재산을 몰수당했으므로, 돌아갈 집도 없었다. 우리는 오빠가 앓고 있는 콜레라에서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피난민 수용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아버지는 곧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으므로 부상당한 네델란드 군인들과 함께 화란으로 실려 갔다. 아버지는 남은 우리 가족이 암스텔담에 도착한 직후에 세상을 떠났다.

나의 어머니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자기 자신과 살아남은 여섯 명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서 무슨 일아든 해야 하는 것이었다. 돈 한 푼 없는 우리는 남은 나무 상자를 쌓아 놓은 조그만 아파트에서 살았다.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 : 13)

어머니는 우리의 삶을 좀더 편안하게 해 주기를 원했으나 그렇게 할 도리가 없었다.

열여섯 번째 생일날 나는 시랍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선반에 안전하게 놓여 있는 팝 미엔체를 보게 되었다. 인형은 더러울 대로 더러워져 있었다. 인형은 비행기 화물칸에 타고 온 나의 비행기 멀미의 희생물이었다. 인형은 우리 트럭이 인도네시아 군대의 총격을 받아 덮개를 쓰고 있었을 때 내 밑의 진흙 바닥에 놓여 있었다.

나는 인형을 깨끗이 닦아 주기로 했다. 솔로 닦다가 몸체를 췌맨 부분이 뜯어졌다. 인형을 버리기가 안되어서 나는 다시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인형속을 만져보았을 때, 부드러운 단추같은 것이 많이 들어 있었다. 우리 미엔체는 그렇게 오랜세월 동안 다이아몬드, 루비, 진주, 비취, 기타 여러 개의 반지등 보석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나의 남은 형질 인형이 것처럼 값진 보석의 수호자였을 줄이야!

나의 모친은 교회 회원은 아니었으나 매우 신앙심이 강했으며, 자신이 느끼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어머니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방공호를 짓기로 했다. 그속에 어머니는 음식과 약품과 물과 옷가지를 비축해 두었다. 이러한 일용품으로 우리는 그곳을 떠날 수 없었던 팔 개월 동안 지탱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집안의 보석류도 방공호에 감추어 두었으며, 우리가 수용소로 끌려가기 전에 어머니는 베이보 키트에게 비축해 둔

식량으로 이미 번져가고 있는 기근에 가족을 구하라고 말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모는 우리가 수용해 있는 곳을 찾아내자마자 내 인형에 보석 몇 가지를 조심스럽게 싸 넣어 그것을 나에게 전해 주고자 192킬로 미터를 걸어 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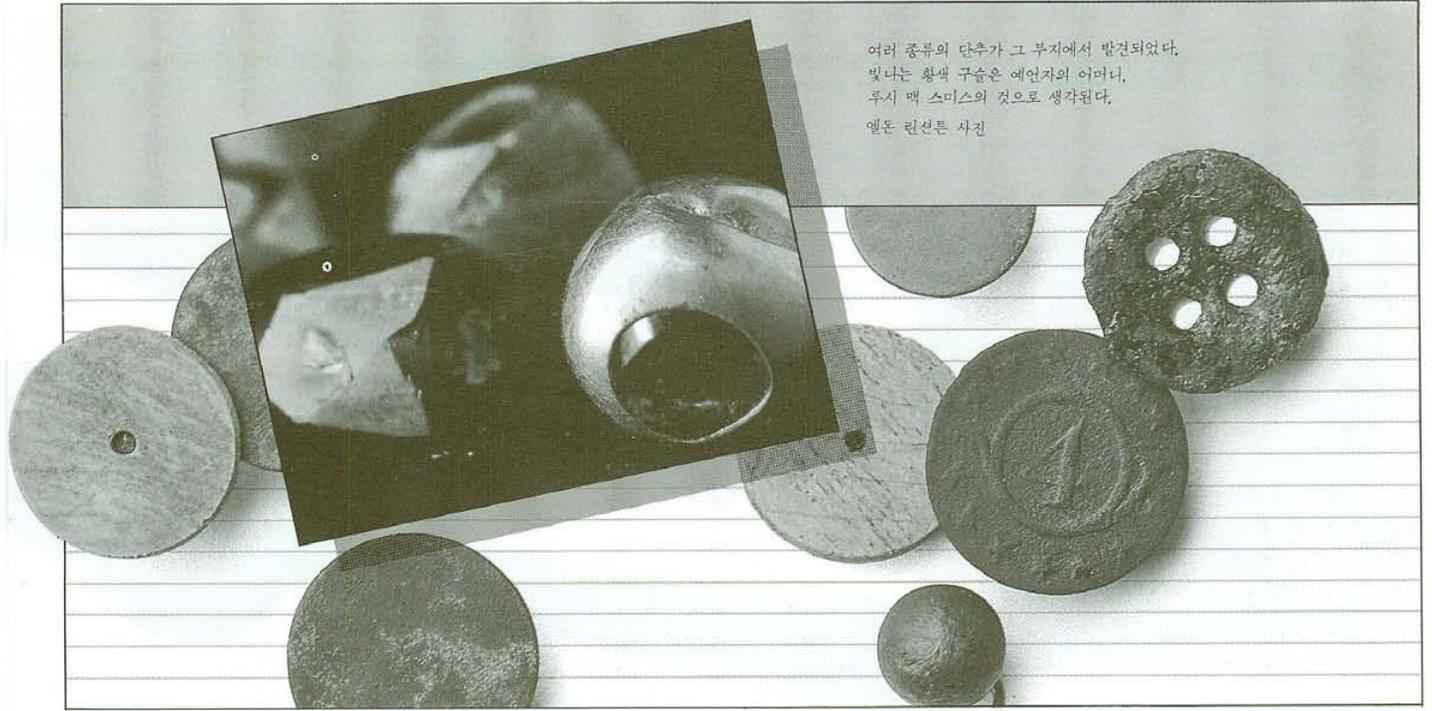
보석이 발견됨으로 우리 생활은 바뀌어졌다. 그것을 판 돈으로 우선 따뜻한 옷가지와 가구를 사들여 우리 생활을 좀더 편안하게 할 수 있었다. 결국 그것으로 우리는 고등 교육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팝 미엔체의 보물로 직업 훈련을 받아 암스텔담과 후에는 미대륙에서 더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다.

베이보 키트의 영향은 나의 아홉 번째 생일 이후로 줄곧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언젠가 내가 유모는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나는 여러 해 동안 유모의 죽음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악몽을 꾸었다.

유모는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갔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한 때는 꿈에 지나지 않던 아홉 번째의 생일날의 바램이 실현된 것이었다.

나는 내 생일을 케익과 선물과 얼음같이 찬 레모네이드로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말해 준 그 운명을 성취시켰던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복음을 통해서 베이보 키트가 나에게 보여준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한복음 15 : 13) *

여러 종류의 단추가 그 부지에서 발견되었다.
 빛나는 황색 구슬은 예언자의 어머니,
 루시 맥 스미스의 것으로 생각된다.
 엘든 린튼튼 사진



요셉 스미스 집안의 고고학적 사업

테일 엘 버지

팔 마이라에서 남쪽으로 3.2km 떨어진 서부 뉴욕의 언덕 기슭에 요셉 스미스가 어른이 되기까지 자라난 농가가 자리잡고 있다. 유일하게 지금도 그곳에 서 있는 흰색의 미늘벽 판자로 지은 집은 1820년대의 농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헛간과 다른 농가는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한 때는 들판과 경계를 이루었던 손수 잘라 만든 담과 소년 요셉이 알고 있었던 길은 이미 여러 해 전에 사라졌다. 식림 용지, 목장, 경작 지대의 정확한 위치라든가, 심지어는 예언자가 첫번째 시현을 받은 확실한 위치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스미스 가족은 그 지역에서 보기 좋은 목조 가옥에 잠시 살았으나, 그 집은 스미스가 첫번째 시현을 받았을 때 살았던 집도 아니며, 1823년 가을에 천사 모로나이가 어린

요셉에게 나타난 집도 아니다. 그 집은 1829년에 그들의 농가에서 고대 기록이 여덟 목격자에게 보여졌을 때 스미스 일가가 살았던 집이 아니며, 여러 주일 뒤에 물몬경이 인쇄되었을 때 스미스 일가가 살았던 집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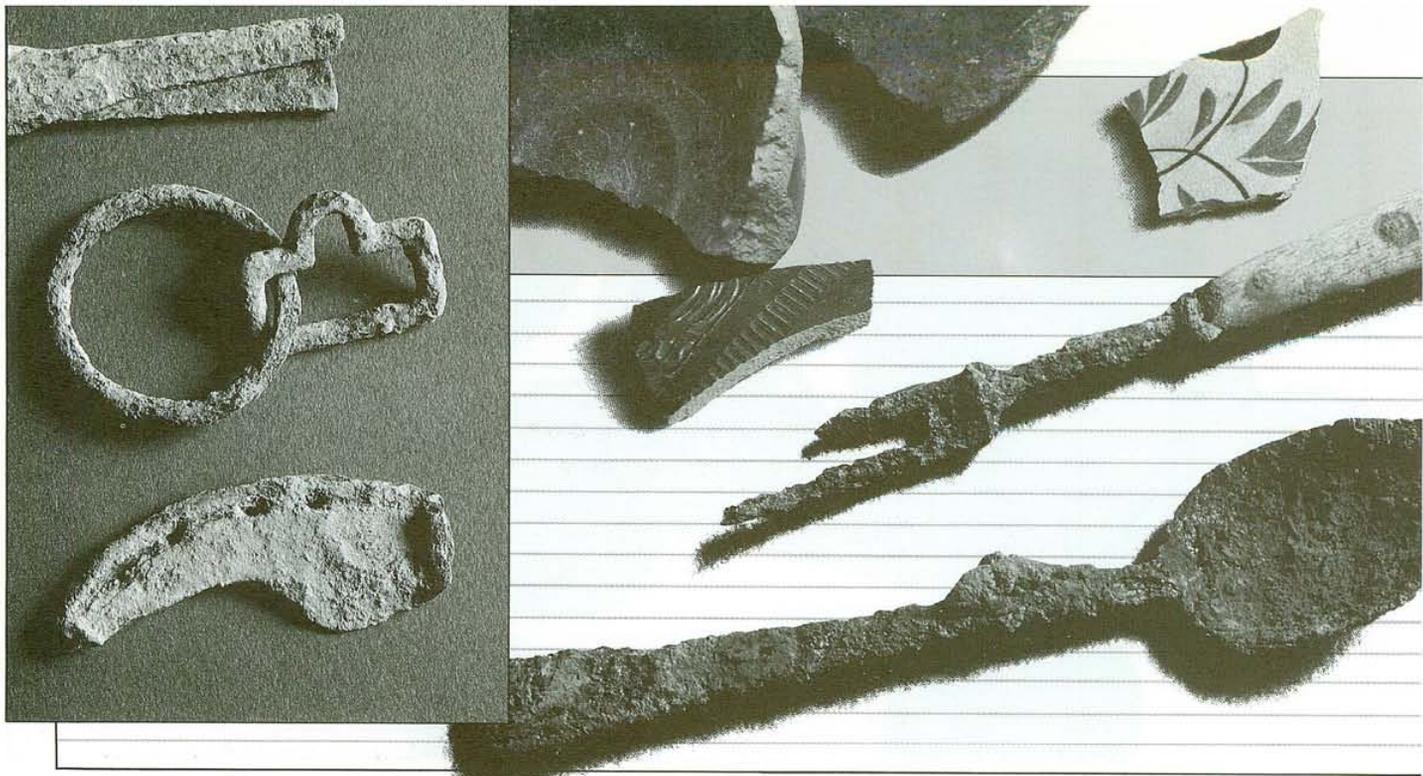
이러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언자의 가족이 살았던 집은 현재 목조 가옥이 서 있는 길 건너 북서쪽으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조그만 통나무 집이었다. 아버지 스미스와 그의 아들들이 지은 이 통나무 집은 그들이 농가에서 산 12년 중에서 8년간 즉, 1818년 말에서 1825년 봄까지, 그리고 1829년 봄부터 1830년 말까지 살았던 집이었다. 1825년부터 1829년까지 스미스 일가는 흰색 목조 가옥에서 살았다.

일 세기를 넘어 오는 동안 스미스의 통나무 집은 세월과

풍상에 시달려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의해 사그라져 갔다. 그 후로 이 조그만 집은 세인의 뇌리에서 그대로 잊혀져 갔다. 잊혀진 것을 되살려 내기 위해 최근에 교회 역사 미술 및 유적지 위원회와 유타주 프로보, 브리감 영 대학 부설 교회 역사 지역 종교 연구 센터에서 통나무 집의 위치를 고고학적으로 탐사해 내게 되었다.

역사와 고고학이 손을 맞잡고 한 근거만으로는 밝혀 낼 수 없었던 요셉 스미스의 집에 관한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다. 역사적인 연구는 어디에서 고고학적인 탐구가 시작되어야 하는지 제시해 주었다. 번갈아 가며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밝혀진 고기물(古器物)에 의해 역사적인 자료를 뒷받침해 주는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게 되었다.

우리의 작업은 교회 유적지의 광역 사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두막집 부지에서 찾아낸 고기물(古器物) : (왼쪽) 1790-1830년대의 할아리 파편 ; 마차 자물쇠와 화려채 오븐 뚜껑 ; (중앙) 금속제 고기물, 못, 스넵, 미구 고리, 소 밭갈 ; (오른쪽) 부엌 용구-두 갈래 포크와 스푼

1978년에 찍은 요셉 스미스 농가의 색채 및 적외선 사진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진은 사람이 집을 지었거나 토양을 파헤쳤던 지역을 나타낼 식물과 토양의 변화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 스미스 농가 지역에서 우리는 그러한 동요가 열일곱 번 있었음을 발견했다.

1981년에, 우리는 그러한 장소에 대하여 각기 부지 표면 조사를 시행했다. 그러한 지역에서 오직 한 군데에서만 스미스가에서 그 지점을 점유한 시기를 말해 주는 문명재(유리, 금속, 도기류)와 건축 자료(벽돌, 못, 자갈 등)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곳이 통나무 집의 위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다행히도, 역사적인 근거는 우리에게 몇 가지 대답을 제시해 주었다. 통나무 집은 만체스터-팔마이라 군주 경계 근처와 도로 서쪽에 있는 현재의 목조 가옥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을 것이다.

통나무 집의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자료는 1969년에 브리감 영 대학의

래리 시 포터 박사에 의하여 발견된 1820년의 도로 측량도의 기록이다. 1793-1870년의 구 시가 기록에 들어있는 조사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다. “타운쉽 제 12번가의 남쪽 선에서 시작되는 공공 도로의 조사표의 기록은 요셉 스미스가 사는 가옥의 남동쪽 3로드 14링크 팔마이라 마을의 군구에 걸쳐 있다.”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다. “위의 기록은 도로의 중심이 되도록 계획된 것이며, 1820년 6월 13일 현재 우리가 실제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난한 옛 마을의 구획으로 점유되었다.”

1로드는 4.95미터이고 1링크는 19.8센티미터이다. 그러므로 이 기록에 의하면 스미스는 내가 1981년 부지 조사를 하면서, 문명재와 건축 자재를 발견한 바로 그 위치인 팔마이라-만체스터 군구 경계에 있는 도로 중앙에서 북서쪽으로 17.62미터에 있었다.

유적지 발굴은 브리감 영 대학의 고고학자들과 교회 역사과의 유적지 역사가와 브리감 영 대학의 인류학과 대학원 학생들 및 몇몇 교회 사업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서 1982년 6월 25일에 시작되었다.

첫 단계는 그 부지 위에 바둑판 모양의 눈금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나무 말뚝이 10피트 간격으로 세워졌으며, 파 내려가는 동안에 발굴된 고기물의 정확한 위치와 깊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번호를 붙였다. 그런 다음, 고기물은 각 정방형에 따라 목록을 매기게 되었으며, 각기의 물건이 발견된 위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스케치를 하고 사진을 찍어 두었다.

우리가 일하기 시작했을 때, 그 유적지는 옥수수밭 1미터나 되게 한창 자라있는 옥수수밭 한가운데 있었다. 그 땅은 스미스가에서 1818년에 처음으로 일을 시작한 이래로 매년 25센티미터의 깊이로 갈아 왔다. 그 결과, 깊이 25미터 이내에 있는 모든 고기물은 피해를 받았다.

우리는 각 정방형에서 경작된 깊이로 떠 온 흙을 체로 치는 것으로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무균의 하층토에 변화가 있는지 찾아 보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침해를

받은 어떤 형태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또한 현재 식물이 자라고 있는 곳 또는 꽃가루를 채취할 수 있는 저해받지 않은 곳의 토양도 채취했다. 그것은 오두막 집이 있었을 당시에 어떤 재배 식물과 야생 식물이 자라고 있었는지를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경작 시대 밑으로 세 군데의 손길이 미친 지대가 확인되었다. 우물과 얇은 지하실과 확인되지 않은 바위층이었다.

작은 지하실은 사방 3미터에 1.5미터, 깊이 75센티미터로 측량되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기물을 발견했다. 도끼류, 핀, 버클, 나이프, 스푼, 타버린 밀 및 콩 종류, 양철 냄비 뚜껑 등. 이러한 조그만 물건 등은 지하실이 부엌 바닥 밑에 있었음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물건들은 마루 판자에 난 틈으로 떨어진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위에 놓여 있던 큰 물건들은 오두막집이 허물어졌을 때 지하실로 떨어진 것일 것이다. 우리는 또한 지하실에서 벽돌 조각과 못 등을 포함한 건축 자재를 찾을 수 있었다.

넓이 2.4미터에 1.8미터 깊이 60센티미터의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바위돌로 된 것이 있었다. 이 얇은 돌 구덩이의 가운데에는 60센티미터에서 1미터쯤 자갈돌 층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것은 침실에 붙은 발판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현재 수천 점의 도자기 조각(오두막이 점유된 시기인, 1790년부터 1830년대의), 유리병, 판유리, 금속 및 건축 자재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 있다. 발굴된 상층 토양을 채로 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 개의 하늘색 유리 구슬과 황색 구슬을 찾아냈다. 루시 맥 스미스가 황색 구슬 목걸이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발견이다.

역사 자료에 의하면 오두막집은 스미스 일가가 이사한 이후에 헛간으로 사용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가축은 그러한 건축물을 곧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오두막집은 스미스 일가가 떠난 이후로는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고기물의 날짜는 스미스가 오두막집에서 산 유일한 가족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장소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고기물은 실제로 그 가족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그들이 지내온 1820년대의 생활상에 대하여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결론. 발굴한 그 자체뿐만 아니라 역사적 및 고기물적 증거는 우리가 발굴한 지점이 스미스가의 오두막집의 위치라는 데 의심의 여지를 없게 한다. 우리는 오두막집이 일층에 방 두 개의 다락에 조그만 방 두 개로 되어 있는 아주 작은 집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슬라브를 이어서 만든 침실은 그 후에 덧붙여 지은 것이었다. 오두막집의 한쪽 끝에는 커다랗고 둥근 시냇가의 자갈돌로 만든 벽난로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불 때는 곳은 벽돌로 만들어졌다. 창문은 넓이가 20센티미터에 25센티미터 되는 유리창으로 되어 있었다. 마루 밑바닥의 작은 지하실은 건축 결과로 생긴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재배할 씨앗을 저장하는 곳이거나 유제품을 시원하게 두는 곳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오두막의 뒷 부분에는 큰 우물이 있었다.

고기물은 스미스 집안이 당시 그 나라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일상적인 물건을 사용하는 중산층 미국인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 가족들은 확실히 근면하고 아는 것이 많았다. 그들은 농장을 사고 오두막을 짓고, 후에는 편안한 목조 가옥을 지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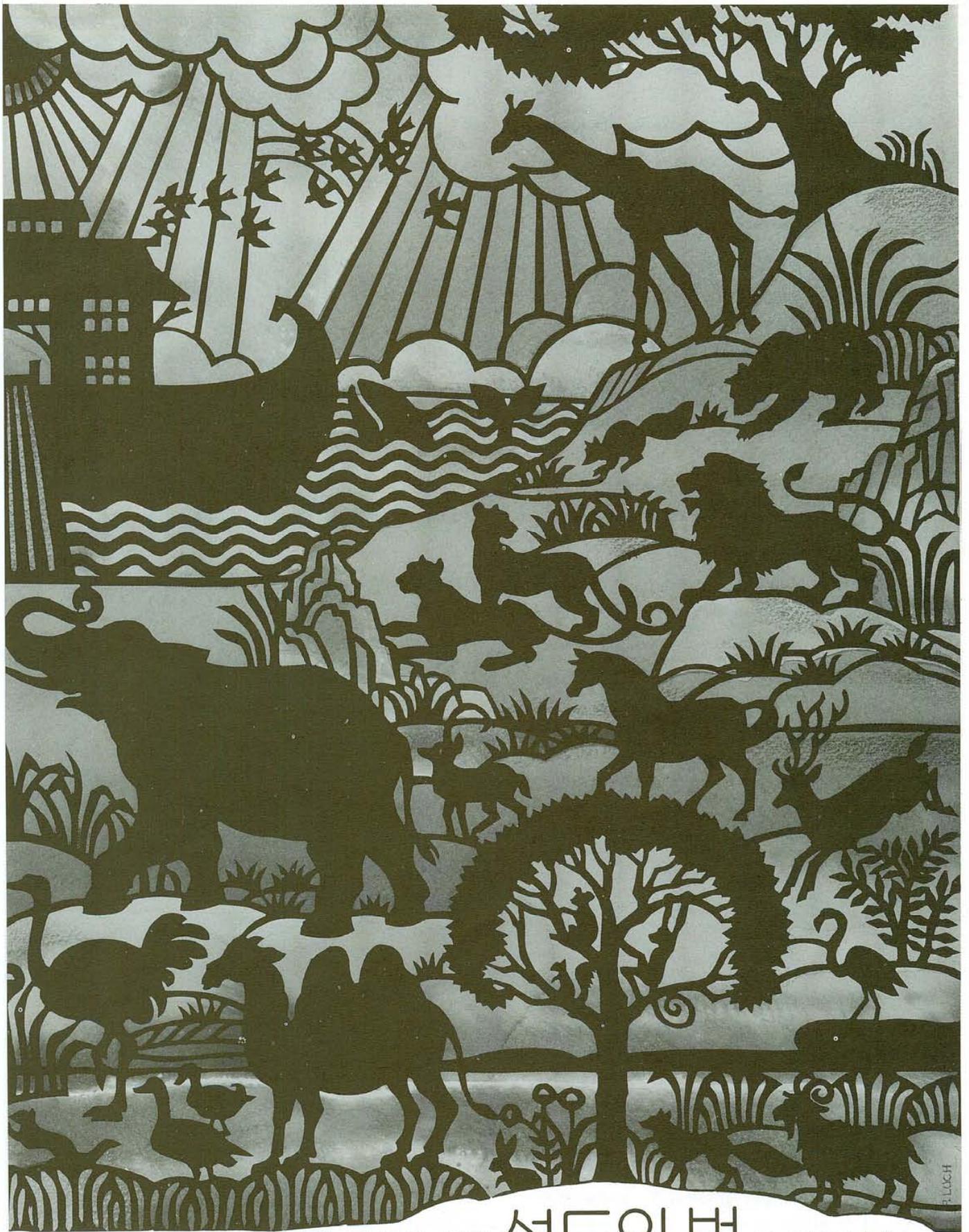
거기서 찾아낸 씨앗은 그 가족이 농장에서 밀과 콩을 재배했음을 시사해 준다. 그 장소에서 나타난 동물의 뼈는 그들이 또한 돼지를 길렀거나 사 왔음을 알 수 있다. 씨앗이나 꽃가루 및 동물뼈를 좀더 깊이 연구해 보면 더 많은 자료가

나오게 될 것이다.

비 에이치 로버츠 장로는 어린 요셉 스미스의 방이 이 오두막집의 다락방에 위치해 있었음을 시사한다. (교회 역사, 1:71 참조) 그렇다면 그 곳은 매우 협소했을 것이다. 그 오두막의 크기를 6미터에 9미터로 잡고, 다락방을 두 개의 방으로 나눈다면, 실제로 사용 가능한 공간은(벽에 이어진 낮은 부분을 감안할 때) 사방 3.6미터 가량 될 것이다. 가운데의 높이는 1.2 내지 1.8미터 쯤 될 것이다. 그 방에는 침대 하나와 세수 대야와 주전자를 놓는 곳과 의자 하나가 있었을 것이다. 그 방은 잠을 자는 곳으로만 사용되었을 것 같다. 어떻든지 그곳은 매우 누추하게 꾸며졌을 것이다.

언젠가는 주변의 건물과 담장과 목장과 과수원과 정원이나 그 밖에 스미스가를 대표하는 건물이 달려있는 오두막집이 원래의 자리에 지어지게 될 것이다. 많은 역사가의 연구와 최근의 고고학적인 발굴을 토대로 하여 그 집과 장소를 거의 원형으로 가깝게 복구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1820년 이른 봄에 숲에서 그의 오두막집으로 돌아와서 후에는 그의 조그만 이층 방에서 모로나이 천사를 맞이한 어린 소년의 실생활을 좀더 실감나게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

1. 데일 엘 버지, "뉴욕 세베카 군의 피터 휘머트의 농장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브리검 영 대학 연구소, 제13권 제 2번 (1973년 겨울) 참조
2. 루시 맥 스미스, 요셉 스미스의 역사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58년), 179-80페이지. 참조
3. 포머로이 터커, 물모니즘의 기원과 발전 (뉴욕 : 디 애플튼사, 1867년), 13페이지 참조. 토마스 엘 쿡, 팔마이라와 부근 지역 (팔마이라, 뉴욕 : 팔마이라 큐리어 저널, 1930년), 219페이지.



예언자의 말씀이 실린 **성도의 빛** 을 읽읍시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

열왕기상 3장, 4장; 31-32, 34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회생 제물을 바친 그 날 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정직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노라.”

솔로몬은 선택된 백성의 왕이 되는 일은 무척 어렵다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어린애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백성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솔로몬은 겸손히 주님께 여쭙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선과 악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부자든지, 장수라든지,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게 해달라는 것같은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은 지도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솔로몬을 기쁘게 여기시며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어느 날 두 여인이 와서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 두 사람은 몹시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각각 어린 아이를 낳았습니다. 밤 사이에 한 여인의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자고 있던 다른 어머니의 팔에 안겨 주고 그 여인의 아기를 데려 와서 자기의 아기인 체 하였습니다.

아침에 그 진짜 어머니는 자기 팔에 죽은 아기가 안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아기가 자기의 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인의 팔에 안겨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는 것을 알고 아기를 데려간 여인을 나무랐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논쟁으로 해결을 볼 수 없게 되자, 두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 누가 산 아기의 어머니인가를 가려 달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솔로몬 왕은 그의 신하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칼을 네게로 가져 오라.” 칼을 가져 오자 왕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러자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녀는 귀중한 그녀의 아이를 둘로 나누게 할 수가 없어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내 주여 산 아이를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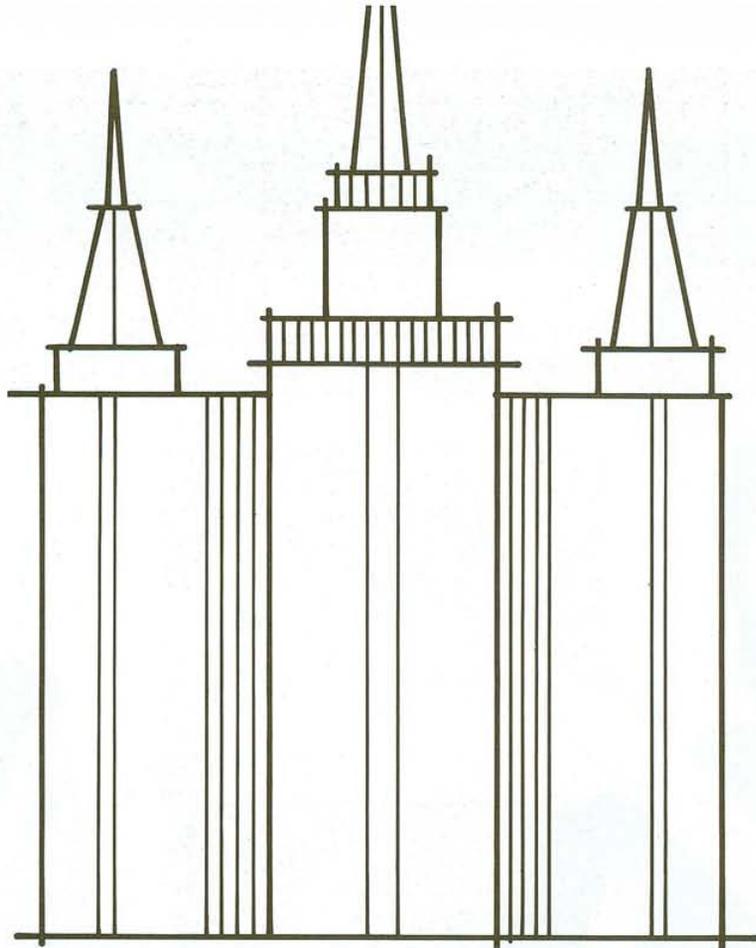
그러나 다른 여인은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하고 대답했습니다.

솔로몬왕은 진짜 어머니라면



아기가 반으로 잘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왕은 이제 산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산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니라.”

*



친구가 친구에게

철십인 제일 정원회의 키드 더블류 윌콕스 장로와 제닛 피터슨의 면담 중에서

최 근에 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명받은 키드 더블류 윌콕스 장로는 워싱턴 성전을 세우는 데 함께 참여한 네 명의 건축사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의 설계는 건물의 기본 설계로 채택되었다. 그는 유타주 하이럼에서 태어났으나,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다.

그의 집안에서 네 명의 아들 중 둘째로 태어난 윌콕스 장로가 다섯살 적에 그의 부친은 그의 아들이 무엇인가 유용한 일을 하게 해 주기를 원했다. 윌콕스 장로는 이렇게 회상했다. “아버지는 우리들을 데리고 유타주 할라테이의 올림퍼스 산 근처의 2에이커에 달하는 시골에 멋있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개자리 밭을 가꾸고, 잔디를 깎고, 소와 닭을 기르고, 새로 밭을 일구어야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부지런히

해내야 할 일이 산더미 처럼 쌓였으나, 나는 우리들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신 부모님이 고마웠습니다.”

“내가 간직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여름철이면 우리가 뛰거나 달리는 장소가 되는 우리집 동쪽에 있는 산기슭 언덕이 있습니다. 겨울철이면 그곳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2.5킬로미터 되는 길을 아무런 차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썰매를 타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스키 점핑은 그 당시에 아주 인기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스키를 어깨에 걸머지고 언덕 위로 올라가 눈길을 타고 내려오며, 누가 가장 멀리 점프 할 수 있는가를 보며 하루종일 지내곤 했습니다. 안전 바인딩 장치가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튜브에서 잘라낸 두툼한 고무밴드를 스키에 대고 장화를 고정시켜

장화가 발끝에 딱 붙게 했습니다.”

윌콕스 장로의 부친은 일주일에 7일간 일해야 했으나, 그는 여전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친이 우리들을 데리고 수영을 하러 간 일이 생각납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언제나 상점에 들려 아이스크림을 사먹고는 했답니다. 또한 낚시하는 곳도 데리고 다니셨지요. 여름마다 부친은 우리를 네 분의 조부모님이 살고 계신 캐쉬 밸리로 차를 태워 데려 가시곤 했습니다. 우리는 삼사 주일씩 그곳에 머물고는 했지요. 우리 조부모님은 아주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극진히 따랐습니다.

“하이럼 시 근처에 큰 댐이 지어지기 전에는 ‘혈러’라고 하는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우리 윌슨 조부모님께서 목장을 갖고 계시던 곳이었습니다. 손자들이 해야



할 일로 매일 아침 소매를 목장으로 몰고 내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시냇가에서 우리는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잡았습니다. ‘힐러’는 하이럼과 파라다이스 시 근처에 있었습니다. ‘힐러’는 우리 소년들에게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곧 낙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촌들과 그곳에 함께 모여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하고, 사냥도 하며 하루종일 놀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다시 소매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 우유를 짜고는 했습니다.”

커다란 관개 수로가 윌콕스 장로의 집 근처에 흐르게 되었고 그래서 어린이들은 그 근처에 갈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규칙을 어기고 윌콕스 장로가 운하 근처에서 놀다가 그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곧 낮게 드리워진 가지를 잡기는 했지만, 운하의 뜻이 너무 가파랐기 때문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 누구도 그의 외침을 들을 수 없었으나, 그의 어머니가 성신의 속삭임으로 그 아들 키드가 어디서 곤경에 처해 있는지 말해 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를 구조해 주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어머니에 관해서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점은 어머니가 초등학교 회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윌콕스 장로는 또한 좋아하는 초등학교 교사인 존스 자매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자매는 아버지가 인디언 추장인 우테 인디언이었습니다. “매년 나의 어머니와 보좌들은 와드를 위해 큰 초등학교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그 행사의 일환으로 어느 해에는



트랙터 반에서 정통의 인디언 복장에 깃털 장식을 머리에 두르고 인디언쇼를 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도끼도 가지고 존스 자매님이 우리에게 인디언 춤추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우리가 춤을 추면서 부른 인디언 전쟁 노래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윌콕스 장로는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 건축 분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미술 감각은 내가 타고난 것 같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내가 걸거나, 말하기도 전에 벽지에 집을 그려 놓고는 했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지워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온유하지만 엄격했으며, 우리들은 규칙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해심이 많은 분이요,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청소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하루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지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으나,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의 교훈을 받아 들이십시오. 바로 우리가 주님께 명령받은 대로 부모님을 공경할 일만을 할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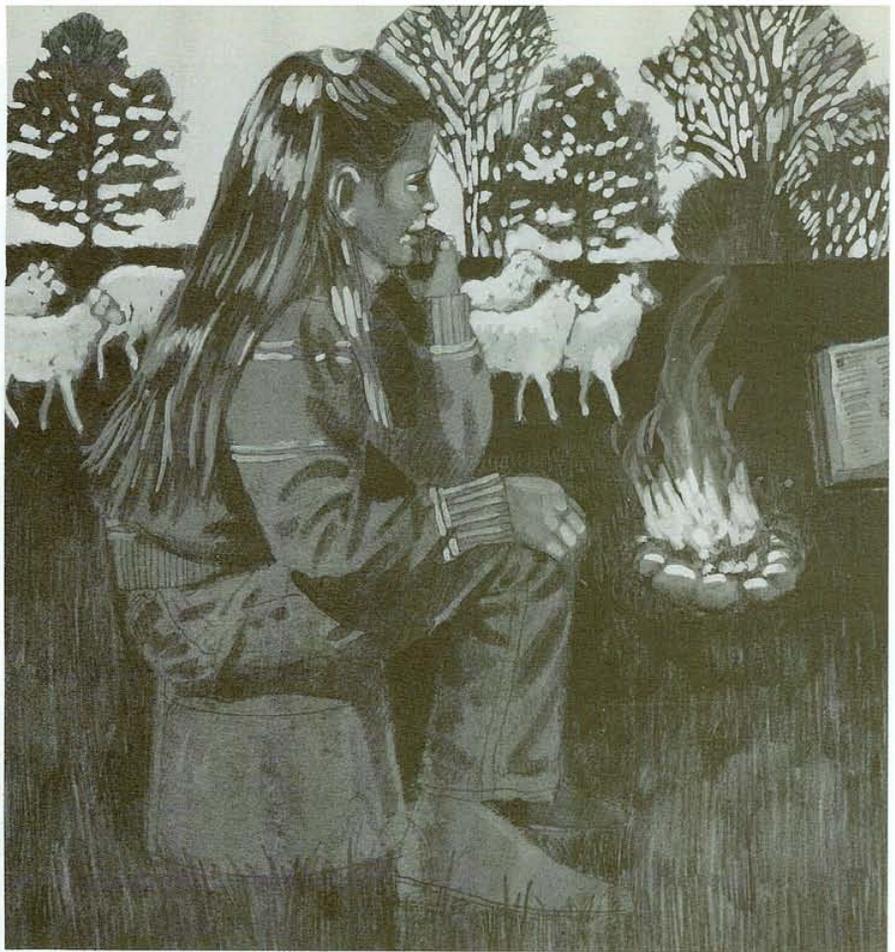
할아버지의 성경

데브라 허긴스 베어드

그 특별한 여름 날의 추억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쯤 아빠는 내가 다음 삼 개월간을 산에서 양을 돌보고 계시는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뿔뿔이 기뻐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까지였다. “큰일 났구나!”하고 그 애는 말했다. “얼마나 지루할까. 어쩌면 그렇게 재미없는 일을 할 수 있겠니?”



나는 당황한 빛을 감추려고 재빨리 나도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지만, 할아버지가 여름 내내 혼자서 산에서 지내시는 것을 부모님이 염려하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했다. 할아버지는 그 해 봄에 가벼운 심장마비 증세가 있어 의사 선생님은 가지 못하게 말렸던 것이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매년 여름마다 갔는데, 이번 여름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어리고 몸도 튼튼하여 무슨 일이나 할 수 있었으므로 내가 할아버지를 도와 드려야 했다. 나의 부모님 역시 그것은 내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할아버지를 좀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해 여름 첫달은 끝없이 긴 것처럼 여겨졌고, 나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큰 실망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다. 할아버지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조용한 분으로, 나는 과연 “할아버지를 잘 알 수 있게” 될 것인지 믿기지가 않았다. 어느 날 밤 저녁을 먹고 나서 캠프파이어 불가에 앉아 있었다. 멀리서 양떼가 ‘매에’하며 우는 소리가 들릴 뿐 사방이 고요했다. 그 날 밤 하늘은 유난히도 맑아 나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별들을 헤아려 보던 기억이 난다. 별들은 나를 향해서 빛을 발하고 나는 별들이 품고 있는 수많은 비밀을 헤아려 보려 애썼다. 언젠가 나는 우주인이 되어야지, 하고 나는 혼자서 생각했다. 그래서 별들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 내야지. 그러나 무엇이 되더라도 병어리같은 양치기 노인은 되지 않을 거야! 마침내 나는 “할아버지.”하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좀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는 웃으며 “어떤 것 말이지?”하고 물었다. 나는 갑자기 거북한 느낌이 들어 움찔했다. “나도 모르겠어요.” “너 요즘은 별로 재미가 없는 모양이구나, 그렇지?” “사실, 좀 지루해요.” “그리고 좀 외롭기도 하겠지?” 하고 할아버지는 나에게 미소지으며 물었다. “예. 그것도 그래요.”하고 수긍했다. “어떻게 할아버지는 해마다 이런 일을 참아낼 수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긴 막대로 불을





나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그 책을 펴보고 처음으로 밀줄 쳐 놓으신 성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별히 한 구절은 나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해줬지. 너도 그것을 읽어보고 싶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낡은 성경책을 나에게 건네 주었다. 그 책은 누가복음 제 2장에 펼쳐져 있었다. 나는 그것이 성탄절 이야기라는 것을 즉시로 알 수 있었다. 불빛으로 나는 그 페이지가 여러 해 사용함으로 인해 누렇게 바래고 주름잡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밀줄친 구절을 보고 읽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내가 계속 읽어 감에 따라, 낯익은 낱말들이 새로운 의미를 띄기 시작했다. 드디어 나는 책을 덮고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돌려 드렸다.

그는 애정어린 손길로 그 책을 쓰다듬었다. “나의 아버지는 양치기였고, 또 그의 아버지도 양치기셨다.” 하고 그는 말했다. “나도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어 자랑스럽다.”

할아버지는 일어나서 내 걸을 떠나갔다. 나는 하늘을 쳐다보고

휘저었다. “나는 참아낸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단다. 나는 양치기이고, 이것은 바로 내가 하는 일의 일부이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일이야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도저히 할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겠어.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우리가 잠을 자는 조그만 트레일러로 걸어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몇 분 뒤에 할아버지는 낡은 성경책을 들고 돌아왔다. 나는 할아버지가 매일 밤 그 책을 읽는 것을 보았으므로 새삼스럽게 여겨지지 않았다. 새삼스러운 것은 할아버지가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했단다. 나는 내 인생에서 진실로 중요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했단다.

“네 증조부되시는 나의 부친은 내가 네 나이 또래였을 때 돌아가셨다. 이 성경책은 그분의 것이지.

성도의 빛/1986년 6월호-한국 서울 성전 특집호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나는 그들이 결코 알지 못할 것을 안 것이다.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할아버지는 다시 심장마비를 일으켜 며칠 뒤에 돌아가셨다. 나는 온 몸에 힘이 빠지는 듯 했다. 다시는 할아버지와 함께 여름 양치기 캠프를 갈 수 없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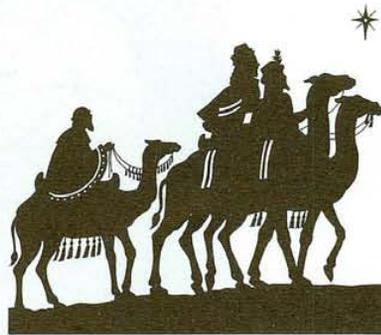
성탄절 아침에 우리 집안은 모두 다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으므로 전보다 더 조용했다. 특히 나는 그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장식 나뭇가에 모여 있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꾸러미 하나를 건네 주었다. 나는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는 않았으나, 선물같은 것을 받을 기분은 아니었다. 아빠는 나의 심정을 알고 있는듯이 그것을 열어 보라고 하셨다.

나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낡은 성경책이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짙막한 편지가 들어 있었다. “나는 네가 이것을 좋아하리라 생각한다.” 그것이 전부였다. 너무나 할아버지다운 간단한 것이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있자니, 할아버지가 그곳에 계셔서 나를 보고 내 반응을 기다리고 계신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웃음지며 성경책을 꼭 껴안았다. 트리 밑에는 나의 뒤편으로 많은 다른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어느 것도 할아버지의 선물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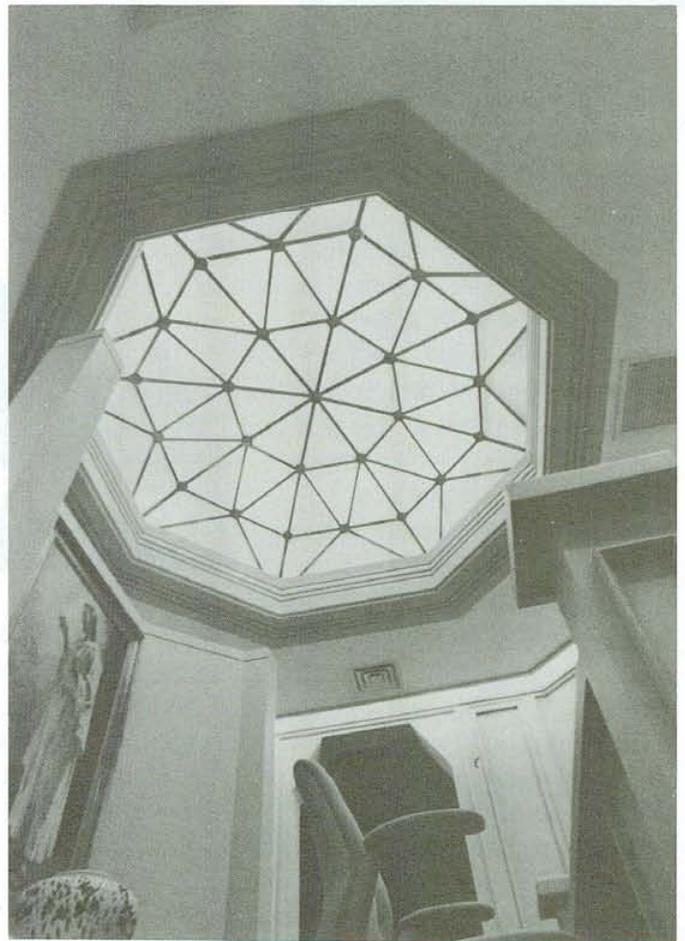


한참동안 우두커니 혼자서 앉아 있었다. 저 별들도 오래 전 옛날에 것처럼 특별하게 빛난 별과 더불어 그 밤을 비춘 같은 별들이겠지.

그 해 여름의 나머지 두 달은 손살같이 지나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학교에 돌아와 있었다. 내 친구들이 양치기가 되었다고 이러쿵 저러쿵 놀려 대었으나, 나는



서울 성전 전경



성전 추천서 확인 장소

차 례

표지 설명-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서울 성전

-
- 52 한국 서울 성전 건립 발표-1981년 4월 1일
-
- 54 왜 성전을 지을까요?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 62 한국 서울 성전 헌납 기도문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 66 성전 문을 통하여
로버트 에이치 슬로버 장로-한국 서울 성전장
-
- 72 한국에 큰 기쁨이 된 날
-
- 74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약사
-
- 78 우리 함께 성전에서
최 육환 장로-서울 서 지역 대표
-
- 79 세상 사람들이 주를 찬양하라
박 병규 장로-부산, 대구, 광주 지역 대표
-
- 80 성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 동환-청주 스테이크 부장
-
- 81 그 감격의 날들
박 하천-광주 스테이크 부장
-



성전 입구 대기실

한국 서울 성전 건립 발표

1981년 4월 1일



1981년 4월 1일 오전 9시 30분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에서는 미합중국,
남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9개의 새로운 성전을 건립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성전이 완성되면
세계적으로 말일성도의 성전의 수는
37개로 늘어나게 된다.

김볼 대관장이 발표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장소는 다음과 같다.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텍사스주의
델라스, 구아테말라의 구아테말라시,
페루의 리마,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스웨덴의 스톡홀름, 한국의 서울,
필리핀의 마닐라,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

이 성전 건립 계획은 이 교회에서
가장 크고 유서깊은 성전이 있는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에서 4월
1일 아침에 열린 기자 회견에서
발표하였다.

시카고 성전과 달라스 성전의
규모는 건평 약 720평이며,
프랑크푸르트 성전은 약 350평이고,
그 이외의 성전은 약 240 평이 된다.

김볼 대관장은 이미 몇 개의
부지는 매입하였으며 건축 공사는
각각 작업 계획이 완성되고 필요한
건축 허가를 얻으면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9개의 성전이 관할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성전...위스콘신, 미네소타, 미시간,
인디애나, 일리노이와 오하이오
전체, 아이오와, 켄터키, 캐나다의
온타리오 일부.

텍사스주의 델라스 성전...텍사스,
오클라호마 전역과 알칸소 및
루이지애나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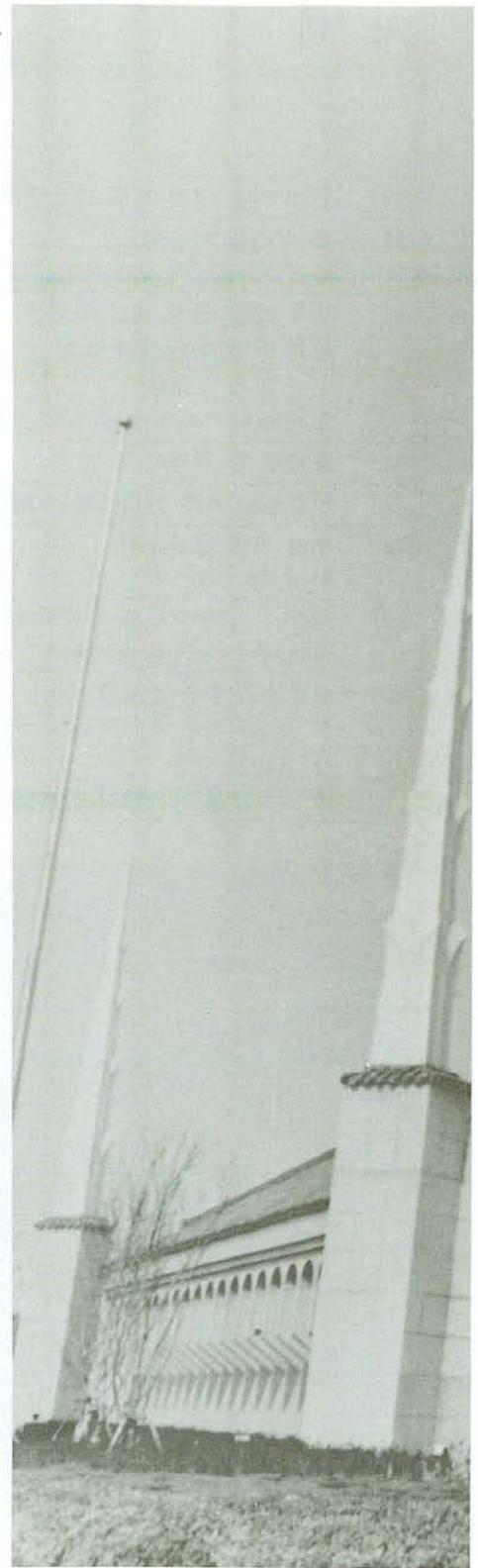
구아테말라의 구아테말라
성전...코스타리카,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파나마,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아.

페루의 리마 성전...페루.
필리핀의 마닐라 성전...필리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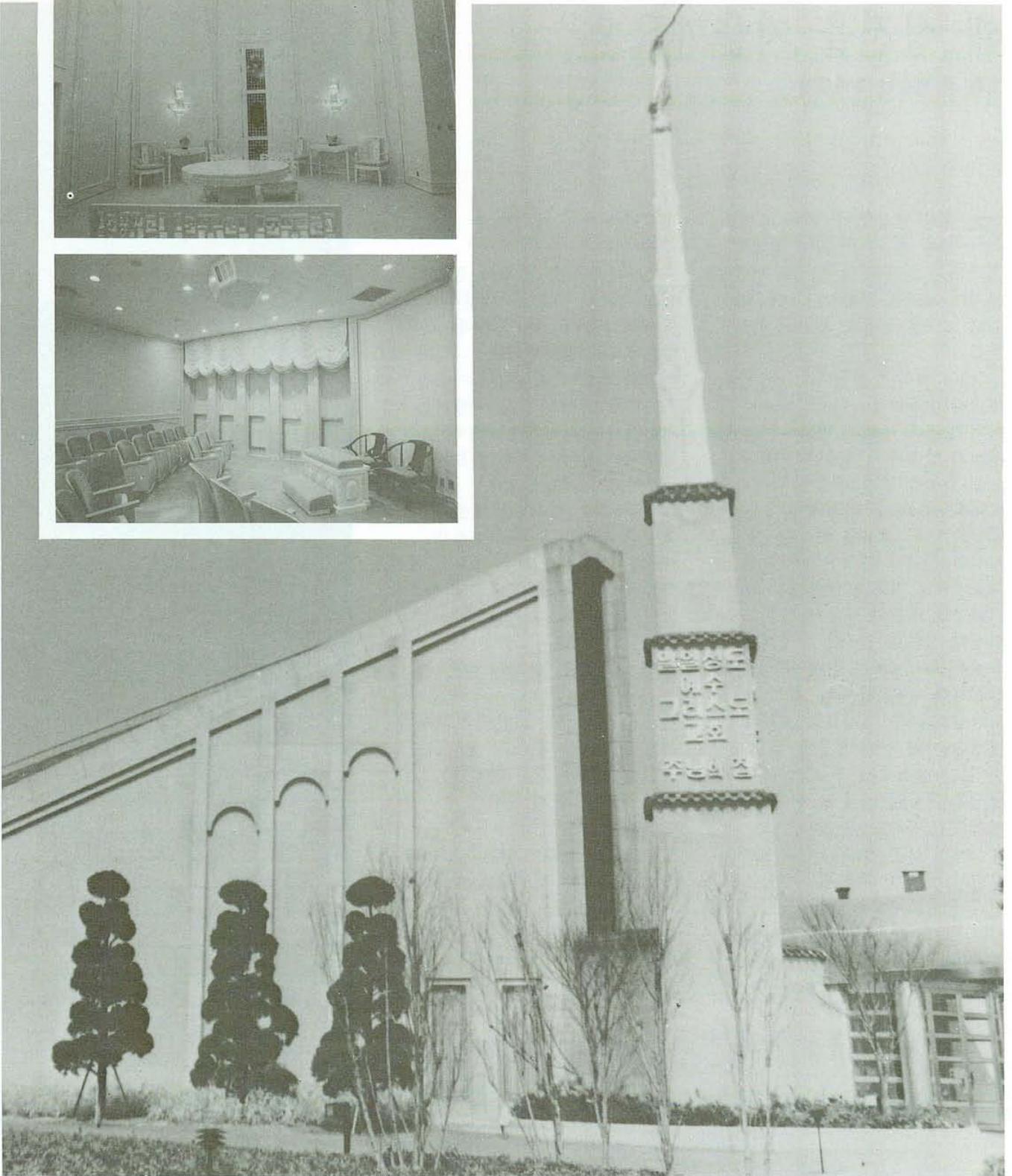
한국의 서울 성전...한국.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성전...서독,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북부.

스웨덴의 스톡홀름 성전...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
성전...남아프리카. *



상: 해외 왕국실
중: 엔다우먼트 의식실
하: 서울 성전 전경



왜 성전을 지을까요?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조 용히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본 사람이라면 인생의 성스러운 신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문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 나는 어디로 갈까? 나를 만드신 분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죽음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잃게 할까? 나의 아내와 자녀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을 떠나면 또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까? 그렇다면 그곳에서도 서로를 알아보게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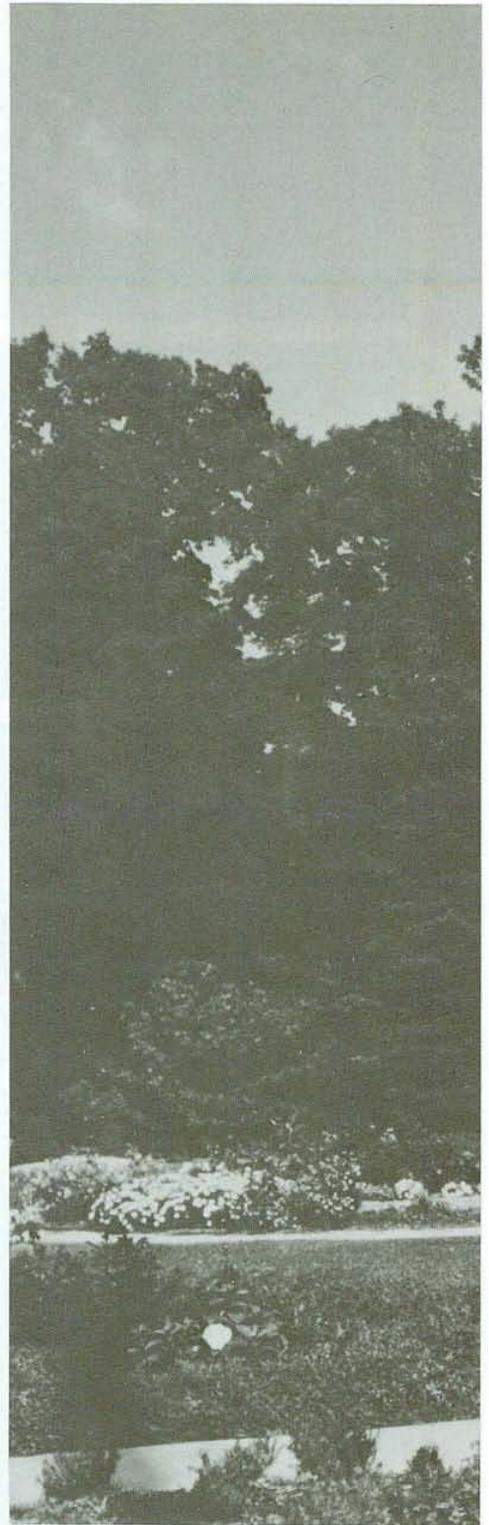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간의 지혜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밝혀 주신 말씀 안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전은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각 성전은 주님의 집이요, 거룩하고 평화로운 장소로 헌납되었으며, 세상적인 모든 것과는 멀리 떨어져 영원한 것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진리가 가르쳐지고 의식이 집행되며, 이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성스러운 유산과 영원한 존재로서 그가 지니는

잠재력을 알아 생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정규 교회 집회 장소와 다른 이 건물은 그 목적과 기능에 있어서 다른 종파의 집회소와는 상이합니다. 그렇게 다른 까닭은 건물이 유달리 크다든지 건축학상 미적인 멋을 살렸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일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정규 예배 장소와는 구분해서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장소로 성전을 지정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에 있던 관습으로 그들은 정규적으로 회당에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욱 성스러운 장소로 지성소가 있는 광야의 장막을 지정하였으며, 이곳을 당시에는 성전으로 사용하여, 특별한 의식을 행했고 여기에는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의식을 받기 위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헌납하기 전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성전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시켜 모든 시설을 살펴보게 합니다. 그러나 일단 주님의 집으로 헌납되어 성스러운



상: 커틀랜드 성전
하: 서울 성전 전경





곳으로 여겨지면 합당한 위치에 있는 교회의 회원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일 때문이 아니라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건물에서는 인간과 관련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하나님의 자녀와 창조에 관한 모습을 보여 줍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과 지상의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인 가족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결혼 성약과 가족 관계의 성스럽고 영원한 성격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남녀는 다 하나님 자녀이며, 그의 거룩한 속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가르침이 되풀이 될 때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유익한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이는 교리가 아름답고 인상적인 어조로 되풀이 설명될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다 거룩한 가정의 구성원이고 모두가 그의 형제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라고 물었을 때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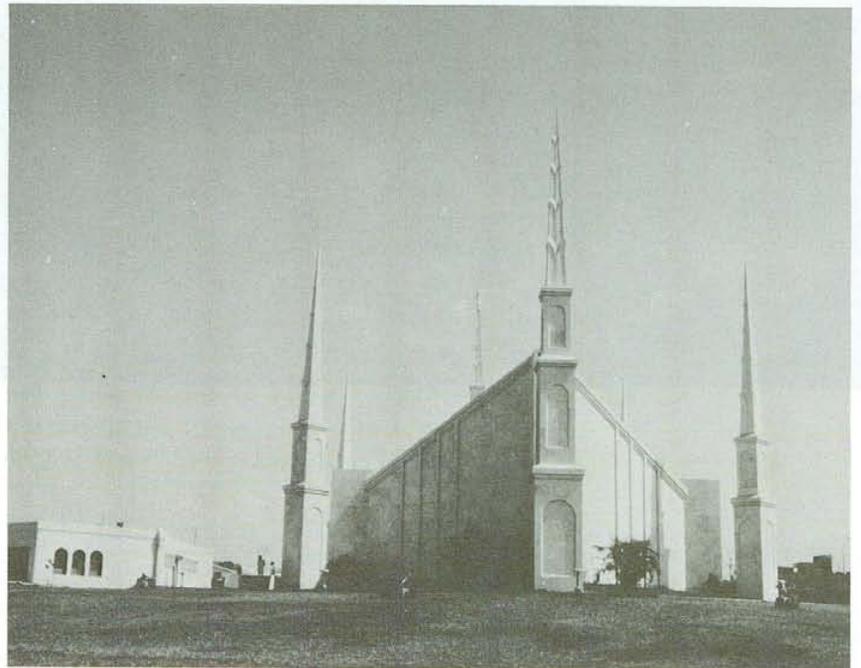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가복음 12 : 28, 30-31)

오늘날 성전에서 배울 수 있는 가르침도 인간이 그의 창조주와 그의 형제에 대해서 갖는 의무의 기본되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의식은 하나님 가족의 고상한 원리를 잘 설명해 줍니다. 또한 우리의 몸에 있는 영은 육신이 유한한 데 비해 영원한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전은 또한 이와 같은 위대한 진리를 이해시켜 줄 뿐 아니라 참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며 하나님의 다른 많은 자녀에게 보다 큰 우애를 나타내 보이게 해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할 때 지상 생활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집에서는 계시로 밝혀진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지상 생활은 영원한 여정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오기 전에 영의 자녀로서 살았습니다. 경전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리마 성전(페루)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렘 1 : 5)

우리는 지상의 부모를 통해 그의
자녀로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서 그의 협조자가
되어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란 현세와 영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조직입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사업이 가족에 관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전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한 것같이 우리는 죽은
후에도 계속 살게 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맞출 수 있는 가장
값지고 만족스러운 관계나 가정에서
찾을 수 있는 아름답고 뜻깊은
가족의 유대는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지속될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와서 축복에
참여하는 결혼 당사자들은 현세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깊은 유대를
지속하게 됩니다. 국법이 그들의
결합을 죽을 때까지 지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신권이
그들을 천국에서도 굳게 맺어
줍니다. 이렇게 결혼한 부부는
합당한 생활을 할 때 그들의 관계나
자녀들과 갖는 유대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며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확신하게
됩니다.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 남편이나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한 아내로서
그들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로서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다시 그들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생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족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삶의
값진 것과 사랑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가족 관계는 죽은 후에도

성도의 빛/1986년 6월호-한국 서울 성전 특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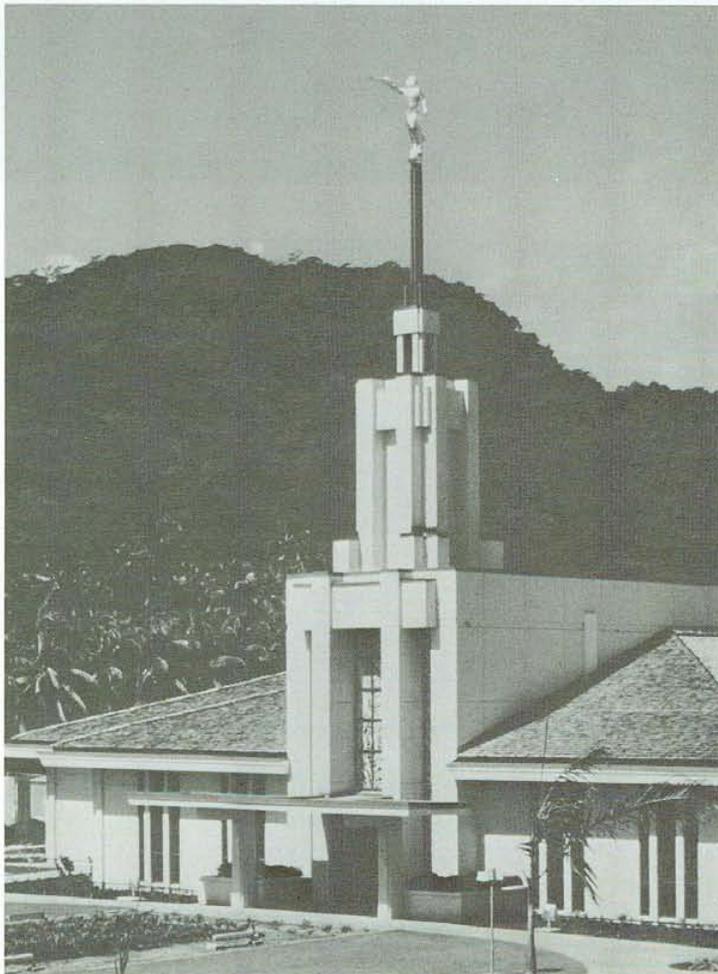


상: 시애틀 성전(미국)
하: 톤가 성전



타히티 성전

사모아 성전



지속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의 전당에서 행해지는 성스러운 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을 통해 얻는 축복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에게만 국한된다면 참으로 이기적인 일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성전에 들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개종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는 전세계에 광범한 복음 사업을 펴고 있으며 가능한 한 폭넓게 이 프로그램을 계속 펴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성스러운 계시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사는 동안 복음을 들어 볼 기회를 갖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에서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받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을 통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도 똑같은 축복이 주어집니다. 영의 세계에서 그들은 지상에서 그들을 위해 집행하는 침례, 결혼, 가족 관계를 결봉해 주는 인봉 의식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업에는 강제가 있을 수 없으나 똑같은 기회는 주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대리 사업은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해 보이는 큰 사랑의 표시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확인하고 찾아보는 광범위한 계보 탐구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계보 탐구를 돕기 위해서 교회는 계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탐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계보 시설을 갖춘 기록 보관소는 일반에게 공개되며 선조의 기록을 찾으려는 비회원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계의 계보 연구가로부터 큰 찬사를 받아 왔으며, 이 기록 보관소는 각국의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의 주요한 목적은 교회 회원이 그들의 선조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그들이 누리는 기쁨을 선조들에게도 맛볼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내나 자녀를 사랑하여 그들과 영생을 누리고자

원한다면 나의 조부나 증조부나 혹은 다른 선조들도 이와 같은 영원한 축복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스러운 곳에서는 조용하고 경건한 가운데 수많은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과 대답이 기록된 계시자 요한의 시현을 회상하게 됩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동경 성전(일본)



성도의 빛/1986년 6월호-한국 서울 성전 특집호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계 7:13-15)

이 성스러운 집에 오는 사람들은 의식에 참여할 때 흰 옷을 입게 됩니다. 그들은 합당성을 인정하는 지역 신권 역원의 추천서를 받아 성전에 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 마음과 몸과 복장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것을 제쳐 두고 하나님의 것에 온 마음을 기울이면서 성전에 올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의식은 그 자체에 큰 보상을 안겨다 줍니다.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 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잠시 세상을 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일을 조용히 생각하여 보고싶지 않겠습니까? 이 성스러운 장소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값진 기회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거기서 참여자는 참으로 인생의 값진 것을 배우거나 회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전세에서 이 세상을 거쳐 우리가 서로 알고 사귀게 될 미래의 세계를 향한 우리의 영원한 여정 등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영과 육과 정신을 유산으로 남겨 준 선조들과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정말로 이 성전은 다른 어느

건물과도 다른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성전은 성약과 약속을 맺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제단 아래 무릎을 꿇고 그의 영원한 축복을 약속받게 됩니다. 이처럼 성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가지며, 그의 독생자이며 세상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그는 우리 인류를 위해 희생되신 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스스로를 위해 봉사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봉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관계인 남편과 아내로서, 자녀와 부모로서 영원한 가족으로 죽음으로도 해칠 수 없는 관계로 인봉되고 함께 맺어집니다.

이처럼 성스러운 건물은 말일성도들이 무참히 쫓겨 다니고 박해를 받던 암흑 시대에도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성전은 빈곤하던 시대 뿐만 아니라 번성한 시대에도 세워져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전은 살아 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예언자와 거룩한 계시와 성전에서만 찾을 수 있는 영원한 축복에 대한 확신과 평안을 믿는 회원들의 강한 신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쌍 파울로 성전(브라질)





산디에고 성전(칠레)



멕시코 성전

성도의 빛/1986년 6월호-한국 서울 성전 특집호

한국 서울 성전 헌납 기도문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오,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나라의 주민의 아버지이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신께 이 헌납의 날을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당신의 거룩한 집에서 경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임하였사오며 온 세상의 구속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임하옵나이다.

우리들의 마음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날을 맞음에 기쁨으로 충만하나이다. 이 집은 아세아 대륙에 세워지는 첫번째 주님의 집이오며 참으로 이 거대한 대륙에는 수십억의 당신의 아들과 딸이 살고 있으며 복음의 구원의 원리를 접하지 못하고 살다가 돌아가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이 여러 세대를 살았던 곳입니다.

당신의 사업의 씨가 불과 삼 반세기 전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행동으로 모범을 보인 소수의 군복무를 하고 있던 당신의 아들들에 의해 접촉이 가능했던 소수의 사람들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리고는 당신께서는 위대하고 뛰어난 학자요 지도자였던 김 호직 형제를 그가 조국 땅에 돌아와 물문경의 영감의 감화를 체험하고, 요셉 스미스의 예언자로서의 부름에 대한 간증을 얻으며, 새롭게 발견한 보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초청되었고 이로써 저들은 신앙과 영감으로 이곳에서 한 생명 저곳에서 한 생명 가르쳤나이다.

그러한 작은 출발과 심각한 고난의 때로부터 당신의 사업은 전진을 계속하여 그 무리의 숫자는

여러 곱으로 늘어났고 당신의 인자하신 손길 아래 번창하였나이다.

시온의 스테이크가 세워졌고, 당신의 교회 곧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이 아름다운 나라의 비옥한 땅에 굳게 뿌리를 내렸으며, 대한민국의 선량한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터전이 되었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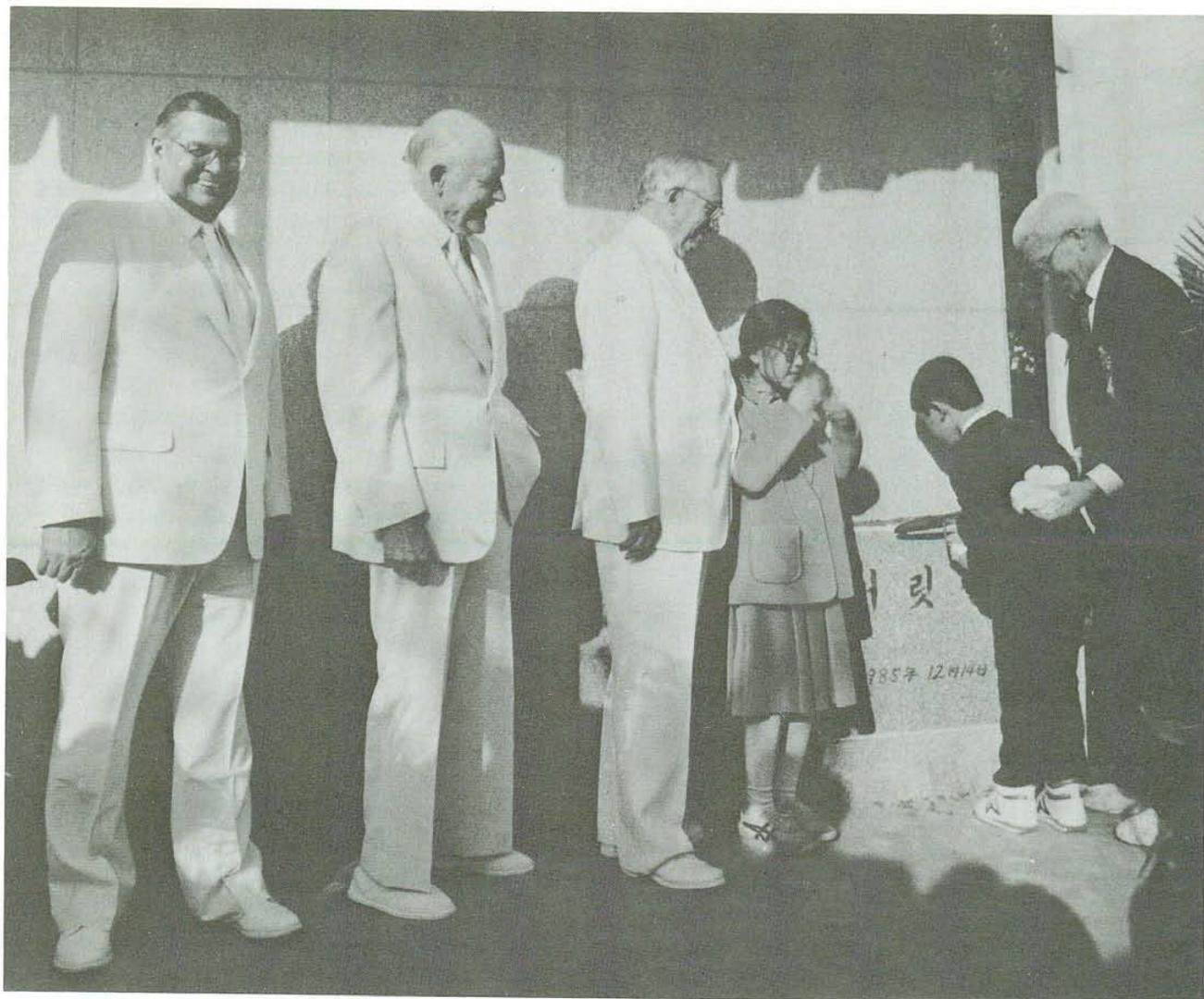
당신께서는 이곳의 당신의 사업에 따뜻한 미소로 임하셨나이다. 이 나라의 정부는 당신의 종들을 친절로 대접하였나이다. 이제 이러한 모든 것 위에 우뚝선 증거인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아름다운 전을 당신께 헌납하나이다.

오, 하나님 이제까지 허락하신 일로 당신께 찬양을 드리나이다. 당신의 전능하신 권능의 역사를 감사드리나이다. 우리는 당신의 이름에 현재와 영원을 두고 축복드리나이다.

당신의 종으로서 합당하게 성임되고 거룩하신 신권의 권능으로 행사하며 당신의 택하신 예언자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권한의 위임을 받아 우리는 이 전 곧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한국 서울 성전을 헌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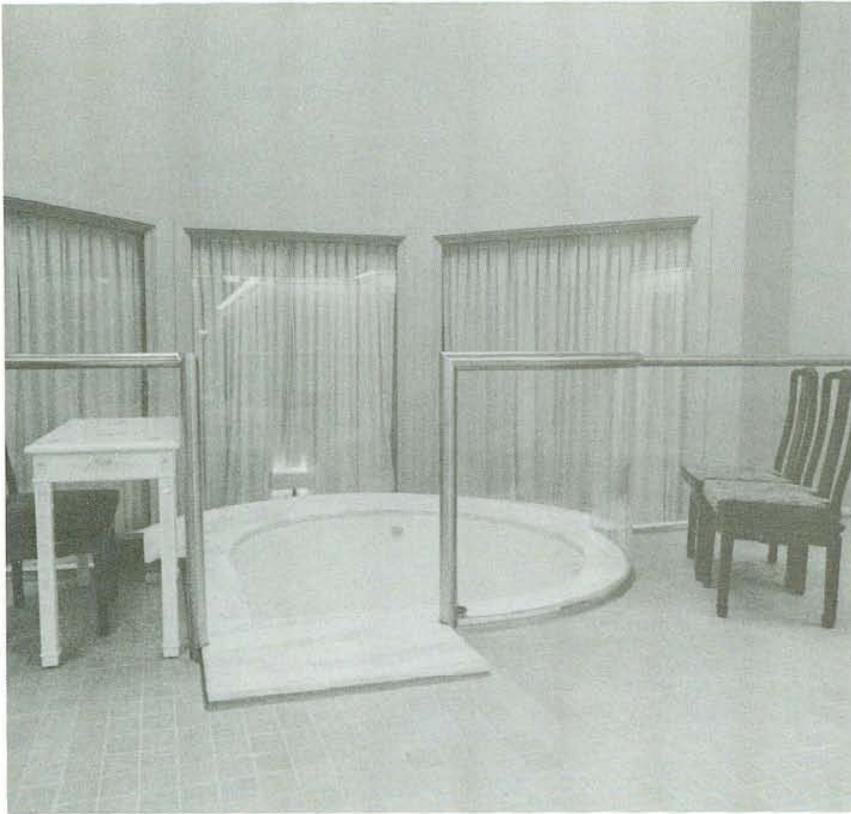
우리는 이 전을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당신께 헌납하오며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헌납하나이다. 우리는 이 전을 당신의 거룩한 집으로 헌납하며, 당신께서 원하시는 때에 방문하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임재로 거룩하게 해 주시도록 간구하나이다.

우리는 이 집의 기초의 기초로부터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백성들에게 선포될 영원한 복음의 또 다른 증거를 가져온 천사 모로나이의 동상을 포함한 가장



상: 정초식에서 머릿돌에 시멘트를 바르는 모습. 왼쪽부터 브레드포드 장로, 헌터 회장, 헝클리 부대관장, 김 영주 자매, 김 성곤 형제, 와델 형제.

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늘어선 회원들.



침례탕

높은 탑의 꼭대기까지를 헌납하나이다. 우리는 이 집의 모든 구조물과 영원한 약속이 맺어질 성스러운 제단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헌납하나이다. 우리는 이 대지와 이 기록한 전의 합당한 부속물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헌납하나이다.

이 집 곧 당신의 전이 사나운 바람과 폭풍우로부터 보존되며, 땅의 요동으로부터 보존되며, 원수의 모독으로부터 보존되며, 전쟁이나 소요의 파괴의 힘으로부터 보존되게 하옵소서.

이 집이 늘 화평의 집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사악함과 소음의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적대자가 이 전의 정문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옵시고 이 곳에 오는 자들이 모두 정한 손과 순수한 마음으로 오게 하시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대함에 합당하도록 하옵소서.

저들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도록 하시고 저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해주옵소서. 당신의 보호의 팔로

저들을 감싸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화평과 사랑과 조화가 있게 하옵소서. 저들의 자녀가 당신에 대한 신앙과 충성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전이 영원한 신권의 권능으로 거룩한 의식이 집행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하신 당신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더욱 돈독해지게 하옵소서. 저들이 당신과 맺은 성약이 저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영원한 진리의 빛이 저들의 용모에서 빛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육으로 있는 동안 복음을 따라 생활함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 뿐만 아니라 사망의 장막 저 너머로까지 이어지는 삶의 축복까지도 새롭고 놀라운 방법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어린 청년 청년들이 신앙과 간증으로 무장하고 이 전에 있는 제단에서 혼약의 영원한 유대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 곳에서 저들이 서로 나누는 성약이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서로에 대한 감사의 정신과 존경을 갖는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받는 영원한 진리의 이해가 저들의 자녀가 역시 사랑과 신리로 양육되어야 할 당신의 자녀라는 지식을 밝히도록 하옵소서. 자녀들이 당신에 대한 신앙과 헌신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당신의 사업이 이 땅과 아세아의 다른 나라에서도 더욱 강건하게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여, 이 나라와 백성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속박과 억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복 주옵소서. 충실한 성도들을 박해와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옵소서. 저들의 부지런함을 축복하시옵소서. 저들이 당신의 거룩하신 율법에 순종하여 당신께 십일조와 헌물을 드릴 때에 번성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로서 봉사하는 충실한 당신의 아들과 딸들 앞에 가시옵소서. 저들의 오른쪽에 계시며 또 왼쪽에 계시옵소서. 저들을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인도하시며 저들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영의 일깨워주는 권세로 어루만지사 저들이 회복된 진리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사업의 우리 안으로 영접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세아의 다른 나라 백성들 위에도 당신의 미소를 주시옵소서. 저들이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문을 열게 하시며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의 국민들도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복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언자를 주심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최근 위대하고 선한 한 지도자의 서거와 맡겨진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여러 해 동안 준비되어 온 다른 지도자의 부름을 보았나이다. 우리는 조용하고도 훌륭한 권한의 이동이 한 지도자로부터 다른 지도자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았나이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신 벵슨 대관장을 주심을 당신께 감사드리오며 당신의 축복이 부어져서 그가 당신의 보시기에 훌륭하며 그가 더욱 강건해지며 당신의 사업을 이끌어 가기에 튼튼할 수 있으며 온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과 존귀를 얻게 되기를 간구하나이다.

이 헌납 의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빨리 들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당신께서 거룩하게 정하신 종의 훈계대로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직책을 축복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감리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축복하셔서 저들이 맡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 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태도로 임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당신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주인이신 엘로힘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당신의 충실한 성도를 대표하는 우리의 간청을 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업이 이 땅에서 크게 자라 번창하게 하옵소서. 그 선한 영향이 교회가 조직되는 모든 곳에서 크게 일도록 하시옵소서. 덕스러움이 말일성도의 표시가 되게 하시옵소서. 당신께서 골격을 다듬으시고 축복과 행복을 위하여 저들의 삶의 여건을 인도하시옵소서. 시온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을 당신의 권세로 꾸짖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축복을 내려 주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매만져 주셔서 남을 위한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아짐으로써 당신 앞에 더욱 충실하게 걸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당신께 향한 우리들의 신앙과 봉사의 결의를 새롭게 하며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당신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나이다. 아멘. *



예배실로 가는 계단

성전 문을 통하여

로버트 에이치 슬로버—한국 서울 성전장

교리와 성약에 있는 이 구절은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성전 사업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성전 직원 및 성전 선교사들은 참으로 한국 성도들을 위한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한국 내의 스테이크와 미군 지방부에서 성전 봉사자들이 부름을 받고 성별 받았습니 다. 이 성전 봉사자들은 지난 1월 둘째 주 이래 성전에서 훈련을 받아 왔습니 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적어도 한 번의 성전 모임을 가질 수 있는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다른 봉사자들은 꼭 필요하게 되면 부름받게 될 것입니다. 성전 봉사자들이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함을 질 알 수 있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섬기며 죽은 자와 또한 살아있는 한국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신앙심을 갖고 성전에 봉사하려 오는 사람들은 큰 희생을 치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은퇴한 사람들이 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다른 성전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직업을 갖고 부양할 가족이 달려 있으며 교회에서는 대개 지도자로 일하는 형제 자매를 불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아직 은퇴한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 다.

성전 봉사자와 의식 참여자는 직장을 마친 후 저녁에만 올 수 있기 때문에 모임은 월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를 제외한 매일 저녁에 갖게 됩니다.

결혼과 인봉은 요청에 따라 낮에도 집행됩니다. 인봉 사업을 위해 대관장단으로부터 부름받고 성별된 열두 명의 인봉자가 있습니다. 결혼과 가족 인봉은 적어도 2주 전에 성전 사무장과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 모임은 스테이크 별로 갖게 됩니다.

저녁 성전 모임은 교회의 스테이크와 지부 회원 그리고 한국에서 봉사하는 선교사와 아직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엔다우먼트를 받도록 부름받을 때 우선적으로 그들을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이 일이 끝나면 죽은 자를 위한 사업(대리 모임)이 정기적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매일 저녁에 갖는 모임의 횟수는 성전에 오는 형제 자매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모임 이외에도 영어로 진행되는 모임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성전에 올 수 있는가? 누가 성전문을 통과할 수 있는가?” 첫째 조건은 감독 또는 지부장 그리고 스테이크 부장 또는 지방부장단으로부터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성전 추천서를 받아 소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합당한 사람만이 성전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교회의 높은 표준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권고(사 52:11)를 기억합시다.

“여호와와 의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시편 24편



상 : 정초식에서 머릿돌에 시멘트를
바르는 헝클리 부대관장(좌)과 와델
형제.
하 : 정문이 보이는 서울 성전의 모습.



성도의 빛/1986년 6월호-한국 서울 성전 특집호



서울 성전 정문

3-4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줍니다.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 다음 조건은 성전에 와서 자신의 엔다우먼트, 결혼, 인봉 그리고 성전 봉사자로서 죽은 자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적절한 복장을 해야 하며 성전의 흰 옷을 입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질투심, 시기심, 다투는 마음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을 성전에 가져 와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성전에 들어올 때 경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전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을 경우 매우 작은 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동안, 우리는 완전히 경건하고 조용해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교리와 성약 88편에 있는 다음 절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맺은 큰 마지막 약속을 잊지 말라. 허황한 생각과 지나친 웃음을 멀리하라.”(교성 88 : 69)

“그러므로 너희는 경솔한 말을 모두 금하며 모든 웃음 소리, 천박한 욕망, 교만, 경박한 마음, 그리고 일체의 악한 행위를 그치라.”(교성 88 : 121)

연구와 기도와 명상을 통해 우리는 성전의 목적을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한 번에 완전히 다 알려고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 이해를 넓히는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은 가르침을 받는 곳이며, 배우는 곳이며, 또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성전과 그곳에서 행해지는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와 자녀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존

케이 에드먼즈 성전장은 그의 저서 성전문을 통하여에서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성한 계시에 의해 우리는 창세 이전에 예지로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로 살았으며, 우리의 영적인 존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자녀요, 영으로는 장자요, 육으로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였음을 알았다.

영의 자녀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게 하는 아버지의 신성한 계획에 따라 지구가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살과 뼈의 육신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한 준비로서 육신의 몸으로 경험과 축복을 받기 위해 이곳에 보내진 것이다.

이것이 산상수훈이 주는 과제요, 요지인 것이다. 이 완전함과 영생을 얻기 위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율법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다음과 같은 모든 의식을 받아야 한다. (1) 물과 영의 침례. (2) 벨기세덱 신권 성임. (3) 거룩한 성전 엔다우먼트 의식. (4)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결혼. (5) 영원한 가족이 창조되는, 자녀를 부모에게

인봉하는 의식.

산 자는 엔다우먼트와 결혼을 위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침례와 성신권을 부여받는 처음의 두 가지 의식을 받지만 죽은 자를 위하거나 대신하는 모든 의식은 하나님의 지시로 현재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거행된다.

영생에 이르는 문은 참으로 곧고 길은 좁아 주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의 회원들과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우리는 한국 서울 성전이라는 아름다운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 성전이 템플 스퀘어에 있듯이 한국 성전도 적절한 조경과 보조 건물이 달린 성전 부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돌보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이상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게 되면, 성전 봉사자와 의식 참여자로서 자신을 위한 사업과 여러분처럼 교회와 성전에서 얻는 축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성전 내부 대기실

사도는 그의 명저 거룩한 성전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성전 사업과 참여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책을 읽도록 권하는 바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을 알아야 하며, 주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기초가 되는 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사업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담당할 부분과 더불어 앞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한 의식에 참여하는 자와 성약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들의 의식을 집행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비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전에 가야 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고, 축복을 받고,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 자신의 성약을 맺게 되는 평생에 단 한 번 뿐인 특별한 기회로 생각하고 고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한

번이나 두 번쯤 그곳에 간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주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여러분은 성전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해진 표준을 합당하게 지키고 있다면 자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 반드시 성전에 가야 합니다. 그런 후에도 여러분은 살아 있을 때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똑같은 축복을 받도록 거듭 거듭 성전을 찾아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합당하게 될 때까지 즉, 주님께서 정해 주신 조건을 다 갖추 때까지 성전에 가서는 안됩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자격을 갖추는 즉시 가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합니다. “성전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성전 헌납식에 참석한 어느 사람은 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인생의 큰 기쁨이 봉사와

성전 입구 대기실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교훈은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고,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함께 기도하게 내게 도움을 준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는 동안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해의 왕국의 날을 그려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정도는 우리가 수행한 봉사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곳은 지상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올바르고 자연스런 장소라는 큰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은 내 영혼의 영원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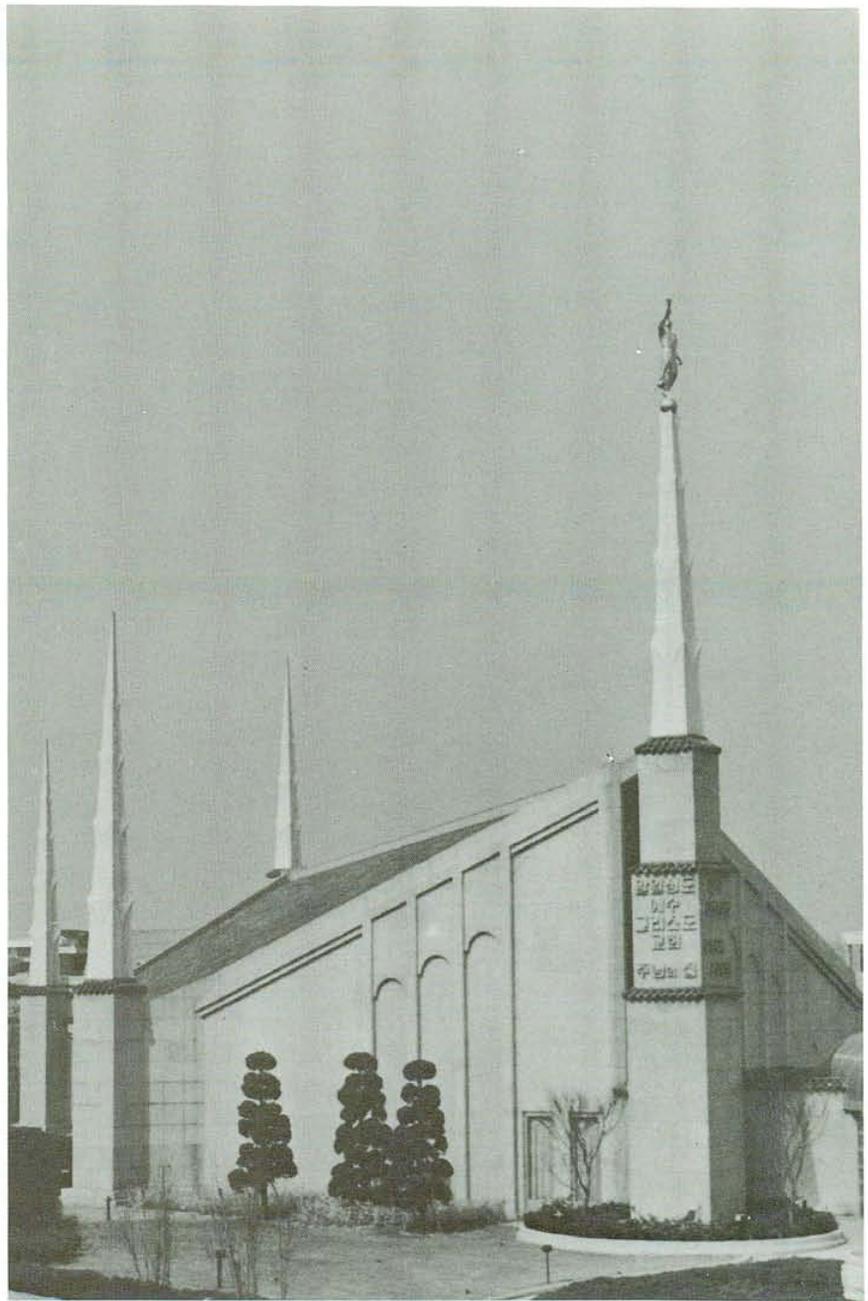
그러나 나는 그때 우리가 그 장소에 적합하지 못한 정도에 따라 영원한 행복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그의 면전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면전과 주님의 집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느끼게 되는 그 느낌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자신과 가족과 친구를 성전에 있기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이 생과 필멸의 존재로서의 우리의 목적의 전부입니다.

에드먼즈 성전장은 그의 책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그것은 모든 분들에게 권유해 드리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말일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자 한다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성전문을 통과해야 한다.” *

로버트 에이치 슬로버



서울 성전 전경

한국에 큰 기쁨이 된 날

1981년 4월 1일 제 12대 예언자이셨던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에서 한국 서울 성전 건립을 발표하였다. 이는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건립된 성전 중 37번째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일본 동경 성전 헌납 이후, 아시아 대륙의 첫번째 성전인 서울 성전은 대단히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성전은 곧 주님의 집이요, 가르침을 베푸는 장소요, 축복의 장소요, 계시의 장소요, 하나님에 관한 의식이 베풀어지는 장소이다. 따라서 서울 성전이야말로 북한과 중공을 비롯한 아시아 대륙에의 선교 사업에 있어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1983년 5월 9일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500-23호에서 한국 서울 성전 기공식이 있었다. 이 기공식에서는 12사도 정원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와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에드니와이 고마쯔 장로,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와 한국 서울 성전 준비 위원회 위원장인 이 호남 장로, 최 옥환 장로, 한 인상 장로와 버틀러 서울 선교부장, 켄슨 서울 서 선교부장, 8개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 그리고 미군 지방부장 등 초청 인사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교회 본부 성전 건축 위원회에서 한국 서울 성전 건축 감독으로 Calvin S. Wardell 형제를 부름으로써 대지 2,416평, 연건평 788평의 지상 1층 지하 1층의 건축을 진행하였다.

1981년 12월 5일 이 호남 장로가 한국 서울 성전 위원회 위원장으로, 로버트 에이치 슬로버 장로가 부위원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한 인상 장로와 최 옥환 장로가 고문이

되어 김 창선(VIP 위원), 김 용일(통역 위원), 박 재암(일반 공개 담당 위원), 허 채 · Jon C. Thorpe(안전 담당 위원), 홍 무광(인쇄와 정초, 음악 담당 위원), 박 내정(숙박 준비 위원), 김 병희(헌납 준비 위원), 이 도환 · Jenson · Jones(의전 담당 위원), 김 정열(공보 담당 위원), 서 원(재정), 전 종철(성전 사무장), 그밖의 최 동원, 이 순철 위원들이 성전 준비 위원으로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1985년 10월 24일 초대 성전장으로 로버트 에이치 슬로버 장로가 성임되었으며 3년 간에 걸친 성전 공사는 1985년 11월 15일 완공을 보았다.

11월 25일에 있었던 귀빈 일반 공개에 유 창순 전 국무총리, 김 태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69명의 귀빈들이 참석했으며 26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일반 공개에는 연 12,700명이 일반 공개에 참여했다.

일반 공개가 끝난 후 12월 14일의 헌납식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다. 5일부터 13일에 이르기까지 교회 본부의 지도자들이 헌납식을 위해 내한하였다.

1985년 12월 14일 9시 30분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의 감리와 사회로 정초식이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개회 찬송에는 주기도문, 개회 기도를 최 옥환 장로가 해주었다. 말씀 순서에는 브래드포드 장로, 헌터 장로, 헝클리 부대관장의 말씀이 있었다. 이 도환 서울 선교부장의 폐회 기도로서 정초식을 마친 후 이어 10시 30분에 헌납식을 가졌다. 헌납식의 개회 찬송은 24장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이었고 개회 기도는 한 인상 장로, 폐회 찬송은 194장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을 회중이 함께 부르고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추위를 무릅쓰고 늘어선 회원들.

폐회 기도는 이 호남 장로가 하였다.

14일 오후 1시 30분에 서울·서울 동·영동 스테이크 성도들이 제일 반복 의식을 가졌으며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롯데 호텔에서 내한한 총관리 직원들과 스테이크 부장단 그리고 귀환 선교부장 부처와 선교부장 부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회가 베풀어졌다.

이 모임에서 헝클리 부대관장의 말씀이 있었고 고 김 호직 박사의 장남인 김 신환씨의 독창과 기꾸찌 장로와 홍 무광 스테이크 부장의 보리밭 중창이 있었다. 멀리 LA에서 홍 병식 형제 부부와 LA지부장 그리고 Salt Lake 한인 지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12월 15일 오전 8시에는 서울 북·강서 스테이크, 15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경인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성도들이 제삼 반복 의식을 가졌다. 오후 1시 30분에는 외국인 회원과 선교사를 위한 제삼 반복 의식, 오후 4시에는 서울 동대문·서울 서·인천 스테이크 성도를 위한 제삼 반복 의식이 거행되었다.

이와같은 서울 성전의 현남 상황은 코리아 헤럴드, 한국 일보, 서울 신문, 경향 신문, 경인 일보, 주간 종교 등 신문을 통해 사진과 같이 보도되었다.

한편 성전 사업 중의 하나인 가족 기록 접수 현황은 1985년 12월 20일 현재 가족 기록서 수 6,702매, 제출자 수 337명에 이르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 의식 기록서로 준비된 것은 약 9,400매로써 86년 2월 초부터 성전 의식이 집행될 예정이다. *



서울 성전의 머릿돌

서울 성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역사

- 1921년-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제 9 대 대관장)가 첫발을 디딤. 부산에서 만주까지.
- 1945년 10월 26일-Ruth Robinson 형제(당시 하사)가 다른 12명과 함께 인천에 상륙함으로써 현재까지 확인된 한국을 최초로 밟은 말일성도가 됨.
- 1946년 10월 26일-Ruth Robinson 형제 미국으로 돌아감. (자료 제공 : L.A.한인 지부 장 회준 형제)
- 1950년 6월 25일-한국 동란으로 U.N.군이 참전하게 되고 이들과 함께 참전한 미국 군인 중 다수의 말일성도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이들은 군대 내에서 활동하며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쳤고 복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 한국인들에게 전도함. 한국 동란 직후 고 김 호직 박사가 미국 코넬에 유학하여 말일성도였던 교수의 감화로 입교. 한국인 최초의 신자가 됨. 영양학을 전공. 박사 학위 획득.
- 1953년-1954년 Dr. Spencer J. Palmer 군목으로 종군. (후에 한국 선교부 제 2 대 선교부장이 됨.)
- 1954년-Dr. Robert H. Slover 육군 대령으로 종군.
- 1954년 9월-Harold B. Lee 장로가 한국 방문(종군). 미국방성의 배려로 미육군 준장의 자격으로 여행을 함. 초기 선교사 Delton, Powell, Newell Kimball, Larry Orme, Claude Newman, Gail E. Carr Lee Roy Fry, Edward Brown, Cline G. Campbell
- 1955년 8월 2일(Tue)-Joseph Fielding Smith 대관장 한국 방문. 한국을 선교의 땅으로 헌납. 김 호직 박사의 귀국. 당시 헌납했던 곳은 지금 신라호텔이 들어선 곳으로 옛 영빈관 뒷산(남산).
- 1956년 4월-첫번 복음 선교사 입국. 일본에 본부를 둔 북극동 선교부의 소속으로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지 못하여 입국할 수 없었으나 김 호직 박사의 개인 초청으로 입국이 실현됨. Richard L. Delton 장로. Don G. Powell 장로. 한국 지방부 지방부장 김 호직 박사. 당시 기록상의 회원 총수 64명. 최초로 부동산을 매입. 서울 성동구 유락동 산 12번지. 신문로 서울 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보다가 유락동으로 옮김.
- 1957년-삼청동 5번지 땅을 매입. 교회의 본부를 삼청동으로 옮기고 소형 인쇄 시설을 갖추고 번역과 인쇄 출판의 업무를 시작함.
- 1958년-당시 L. Edward Brown 장로를 비롯한 11명의 선교사가 있었으나 그중 Ray Hawkins 장로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황달(간장염)에 걸려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북극동 선교부장 Paul C. Andrus가 선교사들을 다시 일본으로 데려가기 위해 방한하여 뜻을 밝히고 삼청동에서 특별 모임을 가짐. 각각 흩어져서 개인 기도를 갖고 다시 집합한 선교사들은 한결같이 일어서서 한국에 그대로 남기를 간청하였고 죽음이라도 불사하기로 뜻을 같이함. 감동한 Andrus 부장도 눈물을 지으며 허락하고 홀로 동경으로 돌아감.
- 1959년 8월 31일-김 호직 박사의 별세, 뇌일혈. 서울역 맞은편 연세대 부속 병원에서. 당시 서울 교육위원회 위원장, 건국 대학교 축산 대학장. 이 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장례는 사회장. 묘지 망우리
- 1959년-제 2 대 한국 지방부장 L. Edward Brown.
- 제 3 대 한국 지방부장 James E. Bradshaw.
- 제 4 대 한국 지방부장 Lynn Waddell.
- 1962년 7월-제 1 대 한국 선교부장 Gail E. Carr 한국 선교부 창설 Andrus 부장이 동행. 당시 지부 서울 동부, 동대문, 삼청, 서부, 부산, 부산 동구, 대구.
- 1963년-제 5 대 한국 지방부장 정 대관 형제.
- 1964년 2월 9일-최초 복음 선교사 한 인상 장로. 임지 대구로 출발.
- 1964년 8월-제 6 대 한국 지방부장 이 호남 형제.
- 1965년 1월-한 인상 장로 「물몬경」 번역 임무를 맡고 부산시 수정동 동구 지부로 전근.
- 1965년 8월 2일-2대 한국 선교부장 Spencer J. Palmer.
- 1966년 9월 10일-서울 용두동 소재의 예배당을 Gordon B. Hinckley 장로가 헌납함으로써 아시아 대륙 제 1 호의 교회 정규 예배당이 들어섬.
- 1966년-차 중환 형제가 국내 최초로 박사 학위 취득.
- 1966년-제 7 대 한국 지방부장에 임명됨.
- 1967년-물몬경 한국어판 출판, 제 1 판 3,000권 인쇄. 삼화 인쇄소에서 시도했다가 실패, 보진제에서 초판을 인쇄함. 이 호남 형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선교부장단 보좌로 부름받음.
- 1967년 4월 27일-대관장단의 Hugh B. Brown 부대관장이 Gordon B. Hinckley 장로(당시 사도)를 동반, 한국을 방문. 현 청운동의 국기 게양대를 헌납하였고 이 모임에 독립 운동가 이 갑성 선생을 초대함. 개회 기도-박 재암. 당시 한국의 선교사는 총 62명.
- 1967년 8월-2박 3일 동안 최초로 청소년 대회 개최.

1967년 10월 4일-성도의 벗이 문공부에 등록되어 정규 잡지로 인정받음.
 1968년-부산 지방부 초대 지방부장 배 영천 형제.
 1968년 8월-제 3대 한국 선교부장 Robert H. Slover. 한국 지방부가 서울 동 지방부(박 재암 부장) 서울 서 지방부(김 종균 부장)로 분리 독립함.
 1968년 8월-교리와 성약 한국어판 출판.
 1970년-한국어판 찬송가 출간.
 1971년 7월-제 4대 한국 선교부장 L. Edward Brown.
 1972년 7월 30일-중부 지방부 조직. 지방부장에 박 주인 형제.
 1972년-한국 신학 연구원 발족. 원장에 이 호남 형제.
 1973년 3월 8일-한국 서울 스테이크.
 아세아 대륙 제 1호의 스테이크. 당시 사도로서 Spencer W. Kimball 대관장이 감리.
 초대 스테이크 부장 이 호남 형제.
 초대 축복사 김 종균 형제.

1973년 5월 25일~26일-최초의 스테이크 대회.(900여명 참석)
 1974년 7월-제 5대 한국 선교부장 Eugene P. Till.
 1975년 7월 1일-한국 부산 선교부 창설.
 초대 선교부장 한 인상 형제.
 경상 남북도, 전라 남북도, 제주도 포함.
 부산 지방부, 광주 지방부, 대구 지방부, 마산 지방부, 전주 지방부의 5개의 지방부와 150명의 선교사를 가짐.
 1975년 8월-한국 지역 대회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감리.
 1976년-북지 농장 구입.
 논 : 5,000평, 밭 : 4,000평.
 1977년 7월 1일-제 6대 한국 서울 선교부장 Ray Hawkins 서울 서 스테이크 분리. 초대 스테이크 부장 김 창선 형제.
 1978년 7월 1일-제 2대 부산 선교부장 이 호남 형제.
 1978년 8월 15일-한국인으로 최초의 지역 대표로 한 인상 형제가 부름받음.
 1978년 11월 12일-한국 지역

재헌남. 기꾸찌 장로의 지시에 따라 이 호남 형제가 헌남 기도함.
 1979년 7월 1일-한국 서울 서 선교부 창설.
 초대 선교부장 Brent Clement 형제.
 1979년 7월 1일-부산 스테이크 창설, 장 재환 형제.
 서울 동 스테이크 창설 고 원용 형제.
 서울 북 스테이크 창설 홍 무광 형제.
 1979년-교회 태버나클 합창단 한국 공연.
 1980년-집회 시간 조정 3시간 프로그램.
 1980년 7월 1일-제 2대 한국 서울 서 선교부장, 김 차봉 형제.
 1980년 10월 25~26일-한국 대회 (Area Conference) 청운동.
 1980년 10월 27일-한국 지도자들 동경 성전 헌납식에 참석.
 한 인상 장로 지역 대표로서 본모임 개최 기도를 말씀.
 1980년-광주 스테이크 창설. 초대 박 병규 부장.

서울 성전 부속 건물 전경



1981년 4월 1일-제 151차 대회 연차 대회에서 한국 서울 성전 건립을 발표함. 김 창선 부장이 수락 말씀을 함.

1981년 7월 1일-제 3대 한국 부산 선교부장 박 병규 형제.

1981년 11월 30일-제 2대 한국인 지역 대표 이 호남 형제.
인천 스테이크 창설 초대 허 채 부장.

1982년 7월 1일-8대 한국 서울 선교부장 David C. Buttler 부산 서 스테이크 창설. 도 길희 형제.

1982년 11월 21일-청주 스테이크 창설-황 충열 부장.
강서 스테이크 창설-이 도환 부장.

영동 스테이크 창설-박 재암 부장.

동대문 스테이크 창설-손 승은 부장.

1983년 5월 7일-대구 스테이크 창설-권 찬태 부장.

1983년 5월 9일-신촌 현장에서 성전 기공식 7:00 AM.

12사도 정원회의 Marvin J. Ashton 장로 감리. 그의 총관리 역원으로 William R. Bradford 장로, Adney Y. Komatsu 장로, 지역 대표로 이 호남 장로, 한 인상 장로 특히 부지를 구입했던 옛 선교부장 Spencer J. Palmer 부부도 참석.

1983년 7월 1일-제 3대 서울 서 선교부장 Edwin Jensen 형제.

1984년 7월 1일-제 9대 한국 서울 선교부장 이 도환 형제.

1984년 10월 26일-제 3대 한국인 지역 대표 최 옥환 장로가 부름받음.

이 부름으로 서울과 서울 서 지역으로 분리되면서 각각 4개와 5개의 Stake를 관리하게 됨.

1985년 12월 14일-한국 서울 성전 Dedication

부대관장인 Gordon B. Hinckley 장로와 12사도 정원회의 Howard W. Hunter 장로가 이 모임을 위해 한국에 왔고 ASIA 회장단 전원과(William R. Bradford, Jacob DeJager, Keith Wilcox) 일본인 총관리 역원이신 요시히코



서울 성전 전경

기꾸찌 장로가 성전 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석함.

Gordon B. Hinckley 장로가 헌납 기도를 해 주셨고 한 인상 형제가 반복 모임을 포함한 모든 모임에서 헌납 기도 통역을 맡음. 초대 한국 서울 성전장에 Robert H. Slover 형제가 부름을 받았으며 이로써 Slover 형제는 한국과 세번째 인연을 갖게 되었다. 성전장단 제 1 보좌에 허 채 형제, 제 2 보좌에 박 재암 형제가 각각 부름을 받았는데 특기할 사항은 이 두 형제가 모두 스테이크 부장으로 수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986년 2월 14일-4대 및 5대 한국인 지역 대표로 김 창선 장로와 박 병규 장로가 부름을 받고 동시에 박 병규 장로는 2대 한국 교회 교육 기구 대표자로 임명되었다.

1986년 2월 21일-한국 교회의 초창기때 부터의 지도자였던 이 호남 형제가 가족들과 같이 있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

1986년 2월 30일-교회의 공보 channel을 통해 한국 땅의 제 4 선교부가 발표됨.

대전 선교부-홍 무광 형제.

1986년 4월 27일-전주 스테이크 탄생. 스테이크 부장에 박 주인 형제. *

우리 함께 성전에서

최 옥환 장로—서울 서 지역대표

지금으로부터 만 20년 전에 삼청동 길에서 우연히 젊은 두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 이 위대한 회복된 복음을 알게 되었다. 이 복음은 순수함과 진실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피부에 느끼게 하였다. 온유함과 가정을 지상의 천국으로 승화시키는 특별한 힘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선교사와의 복음 공부 시작되었고 정성을 다해 가르쳐주는 복음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었다. 모든 것이 옳다고만 생각되었다.

곧 침례를 받았으며 성신의 인수를 받고 성약의 백성이 되었다. 참으로 그 순간까지는 짧고도 긴 기간이었다.

내 생애동안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진지하였으며 회개하고 거듭나는 고통과 결심이 뒤따랐다.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약을 지킬 때 축복을 주심을 알게 되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성경과 물몬경을 통해서 이 복음이 참됨을 증거하게 해주었으며 구약의 「에스겔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어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에스겔 37:16-19)고 하셨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유다 지파의 기록 성경과 요셉 지파의 기록 물몬경을 같이 공부 해야만 한다는 것은 심오한 구원의 계획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왜 이곳에 살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봉착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조상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구원을 위한 의식이 있는가? 이 모든 문제가 자세히 설명되고 쉽게 이해되며 성전 위식을 통해서 돌아가신 조상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의식을 알게 될 때 산 자와 죽은 자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위대한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오랫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성전에서 부부 인봉의식을 받기 위해 준비하였고 드디어 1970년 7월 30일 하와이로 떠났다. 그곳에서 성스러운 인봉의식을 받았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시간들이었다.

질게 푸른 녹색의 정원속에 우뚝 솟은 흰 성전은 1919년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이 헌납하였다. 그곳에서 봉사하는 흰 옷 입은 천사들! 얼굴에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미소들! 바로 이곳이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집인 것이다. 의식을 마치고 간증모임에서 우리는 감사를 드렸으며 우리나라에 성전이 세워지도록 두손 모아



어안 렌즈로 찍은 서울 성전의 모습

간구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한국 땅에 아름다운 서울 성전이 헌납된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하나이다. 수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이 주님의 집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요, 남편과 아내의 영원한 결혼 인봉의식, 가족인봉 참으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의식과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는 아내와 함께 성전 봉사자로 봉사할 수 있는 축복을 한없이 기쁘게 생각한다. 성전을 통한 이 뜨거운 경험을 어디에서 맛볼 수 있겠는가? 이 위대한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함께 성전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세상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박 병규 장로—부산, 대구, 광주 지역 대표

1958년 침례를 받고 교회에 다니는 핏수가 더 함에 따라 성전에 대한 관심도 커져갔습니다.

그림으로 솔트레이크 성전을 볼 때마다 그 독특한 건축미에 마음이 끌렸으며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의 소망은 극히 막연한 정도여서 성전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몇 해를 보냈습니다.

10여 년 전 하와이 성전에 갈 분들을 추천할 때에 함께 가도록 지도자의 권유가 있었으나 그 권고에 따를 만큼 주변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1980년 10월 25일 광주 스테이크가 조직되고 10월 26일에는 그 다음날 있을 동경 성전 헌납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든 스테이크 부장들이 동경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스테이크 부장의 부름을 받았던 나는 그 헌납식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1981년 4월 1일 이 범태 광주 스테이크 축복사와 함께 연차대회에 참석하게 되어 꿈에 그리던 솔트레이크시에 도착하였습니다.

곧 성전에 도착하여 성전 주위를 돌아보았을 때 조명을 받고 있는 성전 모습은 나에게 특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4월 3일 이른 아침 민 헤기 부장의 안내를 받으며 나로서는 처음으로 성전 의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전 봉사자들의 한결같이 정중하면서 따뜻한 안내와 진실이 넘치는 미소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의식을 받으면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새롭게 배웠으며 성전 유무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분명히 알 것 같았습니다.

의식을 마치고 밖에 나왔을 때 화강암으로 건축된 성전 외벽을 만져보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아 오던 그 성전을 실제로 만져보며 이 주님의 집을 짓기 위해 40년 간 애쓰신 신앙의 선조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전 !!

1983년 5월 9일에 기공하여 1985년 12월 14일에 이 땅에도 한국 성전이 헌납됨으로써 믿어지지 않았던 그 일은 이제 엄연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헌납이 있기 전에 많은 분들이 영적인 준비를 위해 힘든 씨름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또한 그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을 더욱 정결케 하고 돌아가신 조상들의 기록 작성에 힘썼습니다. 또 혼자만 하는 것보다 여러 회원과 함께 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아 다른 형제 자매들의 계보 사업을 조금씩 도왔습니다. 스스로 하게 함으로써 조상을 가까이 느끼게 하려했습니다.

요즈음 나는 금요일이 되길 많이 기다리게 됩니다. 이날 저녁은 성전에 가는 날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분요로움을 떠난 진정한 화평을 느끼며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님의 큰 사랑을 깊게 느끼게 되는 날입니다. 반복하여 의식을 받음으로써 맺은 성약을 성취하고 그 성약에 충실하여 저의 약점을 온전히 극복하고 싶은 큰 소망이 있습니다.

성전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다음 성구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뻐하라, 크게 즐거워 하라, 세상 사람들아, 노래불러 울려퍼지게 하라. 죽은 자여, 임마누엘 임금께 영원한 찬양의 찬송가를 부를

지어다. 저는 창세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를 그 옥에서 속량해 줄 수 있게 정하셨느니라. 이로 갠 자를 석방될 것임이니라.」
(교성 128 : 22)

이 성전 의식은 우리를 완전히 이끄는 데 꼭 필요한 것임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이 회복된 복음을 주시고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어찌 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

성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 동환—청주 스테이크 부장

거룩한 성전 헌납식을 마치고 나의 지난 신앙 생활을 돌이켜보며 간증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1967년 10월 이 재수 형제로부터 선교사들을 소개받은 것이 인연이 되어 1968년 3월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들이 매일 규칙적으로 찾아와 복음을 전해주었으며 이 재수 형제의 관심과 모범, 또한 선교사들의 진실한 태도는 나로 하여금 회복된 진리를 생각케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 나의 신앙은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는 것이 앞으로 기쁨과 보람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게 했습니다. 나의 신앙은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면서 몇 차례의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주일학교 시간의 개최 기도를 부탁받고도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후 선교 사업, 결혼, 그리고 복음 가운데서의 가정 생활을 통해 인생의 목적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다시 지상에 회복되었음을 알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복음 생활을 통하여 많은 기쁨과 보람을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과 시련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지난 1979년, 30여 년 동안을 시골에서 홀로 생활하시던 어머님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급히 서둘러 귀국한 나의 슬픔은 말이나 글로써 표현할 수 없는 절망과

비통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러한 나에게 위로가 되고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의 근원은 회복된 교회의 구원의 교리 즉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한국에 성전이 헌납되기 전까지는 구원이나 승영에 이르는 중요한 의식들을 행할 수가 없어 많은 성도들이 성전이 없음을 아쉬워하고 기대하던 중 거룩한 주님의 영이 거하시니 성전이 이 땅에서도 헌납되었으니 참으로 달리 찾을 수 없는 기쁨이요,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 주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한 대리 침례는 물론 자신의 엔다우먼트,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성스러운 의식들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경험들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내가 개인적인 엔다우먼트를 받고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귀여운 첫째 딸 진희와 함께 하와이 성전에서 인봉된 거룩한 시간은 고요한 환희의 순간이었으며 매우 경건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지난 성전 헌납식을 통하여 어려움 가운데서도 충실하게 복음생활을 하시는 훌륭한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말일에 회복된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운데 날로 성장하며 발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방법에 따라 생활하며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의 원리에 충실할 때 우리에게 더욱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간증 드립니다. 때로는 인생의 회의를 느끼기도 했고 여러번 자신의 연약함을 슬퍼한 적도 있었으나,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겸손의 뜻을 가르쳐 주셨으며 다시 강하게 되는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더서 12:27 참조)

가족 기도, 경전 읽기, 가정의 밤, 제보 사업, 선교 사업, 그리고 가정 복음 교육이 모두 평범하고 잘 알려진 말일성도의 기본적인 방식임에도 여러번 성실하게 지키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제 거룩한 성전을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는 더욱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며 많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나에게 많은 모범을 보여주신 형제 자매와 또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나를 남편과 아버지로서 성실히 지지해 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